

히브리서 연구

Studies in Hebrews

M. R. De Haan 지음
김영균 옮김



히브리서 연구

Studies in Hebrews

by M. R. De Haan

©2013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지은이 | M. R. De Haan

옮긴이 | 김영균

펴낸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3.5.11.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 6.18. 제17-292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7층

전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com

표지 사진 | 이종열 av1611@naver.com

표지디자인 · 편집 | 박소현 dew0706@naver.com

■ ISBN 978-89-89741-68-8

■ 정가 12,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차례

헌사/추천사	005
서문	007
1. 온전히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절반만 구원받았는가?	010
2.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021
3. 구원의 목표	034
4. 훨씬 더 뛰어나게	046
5. 모두가 나왔으나 모두가 들어가지 않았다	059
6. 광야의 시체들	072
7. 수고의 안식	085
8. 둘째 축복	098
9. 왕관을 얻으려면	110
10.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120
11. 사망에 이르는 죄	130
12.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143
13. 하늘의 제사장 직분	154
14.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167
15. 율법과 은혜	178
16.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감	189
17.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202
18. 믿음의 승리	214
19. 믿음의 보상	226
20. 지켜보고 있다	238
21. 섬김을 위한 징계	250
22. 나중에	261
23. 신앙 성적표	271
24. 분리하라	285
25. 입술의 열매	295
부록: 그리스도의 심판석	309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헌사

자신의 몸을 살아 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
더욱 큰 권능을 갈망하며
자아와 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승리를 추구하고 있는
믿는 자들, 바로 그 무리에게
이 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추천사

저는 지난 수년간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
었습니다. 사실 이 두 장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극히 사랑하는 친구인 M. R. 디한 박사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저에게 제시한 히브리서에 대한 분석은 저로 하
여금 그와 동일한 견해를 수용하도록 할 만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관심 있게 디한 형제의 <히브리서 연구> 원고를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자극할 만큼 분명
하고 명쾌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일종의 연옥이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리스
도의 심판석의 명백한 교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
석이라는 주제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제시할 때, 사람들이 제 면

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또 다른 연옥일 뿐이야.” 라고 빈정거리는 수모를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 그 주제를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정확한 견해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반드시 강조해야 할 교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본 히브리서 연구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징계에 관한 모든 중요한 교리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주제를 정확히 이해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일서 3:3에서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훨씬 “무게 있는” 말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이, 방황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열어주는 도구가 되어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올바른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테오도르 H. 엡

“성경으로 돌아가자” 방송국 국장

서문

본서는 히브리서의 모든 구절을 강론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서의 핵심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책입니다. 이 서신의 핵심 내용과 정확한 해석을 위한 열쇠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젓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젓을 사 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 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히 5:12-14)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삶과 열매 맺는 삶에 이르지 못한 채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 구원을 소홀히 여길지도 모르는 몹시 큰 시험에 직면 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완전(성숙)을 향해 나아가라”는 권면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다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 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손실을 당하게 되고 열매 없 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늘에 계신 대 제사장의 임재와, 그들로 승리의 왕관을 쟁취하게 해 줄 단단한 음식(말씀)의 능력에 대해 상기하도록 해 줍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옳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징계는 그들이 자초 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징계마저도 무시한다면,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한

쪽으로 제쳐놓거나 죽음을 통해 데려가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해석이 인기도 없거니와 전통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해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들 히브리인(히브리서 기록 대상자)들은 성령님과 더불어 구원의 문턱까지 갔었으나 실제로 구원받기 전에 뒤로 물러나버린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 전부터 이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묘사가 이들이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이 전에 맺은 열매들은 이들이 참된 신자임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에 나오는 복들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심판에 대한 부분(히브리서 6장과 10장)은 애꿎은 히브리인들에게 적용하는 태도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영광과 회복에 관한 예언들을 교회에 적용하고 심판과 저주는 이스라엘에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일관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가 믿는 자를 위해, 또한 믿는 자를 향해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은혜에는 책임이 뒤따르며, 우리가 느슨하고, 육신적이고,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마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그 결과를 모면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의 배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서의 메시지는 원래 미국 전역에 걸쳐 방송된 두 개의 라디오 설교였으며 이 메시지는 히브리서의 하이라이트와 핵심주제만을 다루고 있을 뿐 전체를

철저히 강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책을 읽고 히브리서를 붙들고 다시 공부하게만 된다면 그것이 본서가 주장하는 해석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간직할 것입니다. 이 책이 당신으로 하여금 과연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살펴보게 하는 데 기여한다면 비록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마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연구가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상고”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신실한 갈망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책을 내어 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엡 4:14-15)

01

온전히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절반만 구원받았는가?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히 1:1-3)

성령님께서서는 이 세 구절을 통해 히브리서를 소개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엄청난 보화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그것을 지탱하고 계신 분이요, 세상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합법적 상속자시며 다시 오실 영원한 왕으로서 현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에 관한 또 다른 책을 쓴다는 것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에 관한 많은 뛰어난 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수년간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복을 가져다 준 내용

들을 출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같은 주제에 대한 또 다른 책을 펴내는 것은 반복에 불과할 것 같아 망설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부담은 지속되었고 결국 저는 성경의 진리는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유익하다는 확신을 하게 되어 이 부담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한 절, 한 절 강론하는 대신 히브리서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자세한 사항들은 피하고 그 대신 히브리서의 한 가지 위대한 교훈인,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이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시되지 않은 많은 것들

히브리서는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사뭇 다른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이에 답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한 인간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제시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결정적인 답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저자이심에 만족하며 더 이상 이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려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서신의 기록 연대나 수신자 혹은 기록 장소 역시 알지 못합니다. 이 책이 제공하는 메시지만이 중요할 뿐 이런 것들에 대한 추측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교회가 초창기에는 거의 히브리 그리스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사실 바울의 시대까지도 여전히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히브리 그리스도인

들에게 쓰였고 이에 히브리서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들을 형제라고 불렀을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일까요? 쉽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견해는, 이들은 거듭난 믿는 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으며, 히브리서는 이들에게 은혜로부터 떨어져나가 소유하고 있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아르메니안 학파의 신학적 입장으로 이 입장은 주로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해석의 다양한 견해는 이 두 장의 해석에 따른 차이에서 나옵니다.

둘째 견해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진실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 다만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께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왔다가 최종적으로, 실제로 구원받기 전에 뒤로 물러날 위협에 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칼빈주의적 신학사상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견해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알려진 진술은 다름 아닌 스코필드 관주 성경 히브리서 6장에 대한 관주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6:4-8은 유대인이면서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구원의 문턱까지 다다랐고 심지어 성령의 빛을 받고 확신케 하시는 사역을 맛보기까지 하였으나 그 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구절은 그들이 믿음을 가진 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들은 가테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손에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있기까지 했으나 결국은 돌이켰던 정탐꾼과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Scofield Reference

Bible, p.1295)

이 견해는 칼빈주의적 구원관을 붙들고 있는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반된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올바릅니까? 당신은 어느 의견을 지지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옳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편견이나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다가서서, 다른 사람들의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만 엄격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에 만족스럽게 답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의 문맥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비추어 해석하지 않는다면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대해서만 올바른 해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정확한 해석은 사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불신자들인가?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들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가?” 이 문제에 히브리서 전체의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절반만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 논조를 흐리게 할 뿐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구원받았을까요? 히브리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히브리서의 신자들이 진정한 성도요, 거듭난 자요, 구원받은 사람임을 진지하게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반복해서 편지를 받아볼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대명사 “우리” 라는 단어 속에는 당연히 기록자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데,

기록자는 히브리서에서 이 대명사를 1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묘사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 테니 주목해 보십시오. (자세한 예는 나중에 제시할 것임) 어떻게 다음 성경 구절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히 3:1)

이 말씀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일 수 있을까요? 거듭나지도 못한 죄인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히 4:14)

이 문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지도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며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 누구도 절반만 구원받고 절반은 구원받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못받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구원의 문 앞까지 도달했다 하더라도 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들이 입으로만 믿음을 거짓 고백한 자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거짓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신 게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16에 나오는 다음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죄인은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 구원받기 전에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 구절을 읽어 보고 이들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당신이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성경 교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시므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총명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19-25)

이 훈계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절반만 구원받은,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제가 아는 한 모든 주석가들이 이 내용은 믿는 자에게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을 두고 믿는 자가 아니라 거짓으로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 해당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회생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히 10:26)

이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앞선 구절들(히 10:19-2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며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훈계 받았다면 바로 이어지는 26절에서 갑자기 문맥이 단절되어 버릴 수는 없습니다. 26절의 “우리”도 역시 앞선 구절들의 “우리”와 동일한 믿는 사람들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또 다른 구절에 고의로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 10:34-35)

끝 부분에 나오는 보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즉 히브리서는 절반만 구원받은 자들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고 받는 자들에게 기록된 것이 아니며 그들은 분명히 구원은 받았고 따라서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지만 보상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히브리서의 경고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에 미치지 못하고 주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잃게 될지

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들 히브리인들은 하늘에 자기들을 위해 더 좋고 지속되는 보화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에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얻도록 그들의 확신을 굳게 붙들라고 훈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따라서 히브리서의 핵심은 믿는 자들이 단지 구원에만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최고의 열매와 섬김에 이르도록 하라는 엄숙한 경고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가르치면서 이 은혜는 또한 심각한 책임을 수반하고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은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은혜가 가져오는 본질적인 결과여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멍하니 서서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고 더 나아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벧후 3:18)

은혜 “안으로” 자라라고 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즉 히브리서 해석의 열쇠는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

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젓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고다. 젓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히 5:12-14)

이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후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갓난아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라야 한다고 훈계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히 6:1)

이 훈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발육이 부진한 상태에 머물며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게됩니다. 반복되는 경고와 주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계속 육신적 상태에 머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음으로 벌하시거나 그들을 내버려두어, 육신에 속한 삶에 버림받도록 하여(고전9:27),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비록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구원은 받을 것이나 상급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고전3:15). 성경은 이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합니다(요일5:16).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히브리서에서는 “고의적인 죄”라고 합니다(히 10:26). 만약 믿는 자가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했으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보고, 오는 세상의 능력도 맛본 후에 더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에게 회개를 허락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실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당신은 믿는 자입니까? 당신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 은혜로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은 성숙으로 나아갔습니까? 은혜 안에서 성장했습니까?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함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하고도 더 나은 지식을 거역하여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죄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양심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는 그 무언가를 아직도 여전히 실행하거나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히 10:30)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 있는 죄를 만약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히브리서 6장과 10장의 경고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즉 절반만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에게 해당되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둘러대면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0:31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피해보려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히브리서의 교훈과 부담은 일차적으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얻게 되거나 상실하게 될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으며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히브리서 12:1-2 말씀에 나와 있는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엮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1-2)

결코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대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이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히 12:5)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 의심스러운 모든 죄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십시오. 만약 더 이상 죄를 발견치 못한다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이며,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 하소서.” (시 139:23-24)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히브리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과 열매 맺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최상의 축복에 닿을 수 있도록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셨기에 우리가 영적 성숙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영적 갯난아이로 머물러 실패하는 삶을 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데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고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히 4:14-15)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 대처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갈등과 시험과 시련을 다 이해하고 계시며 좌절하고 패배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께 나아

와 그분의 공훈과 은혜를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에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훈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히 4:1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누구도 패배와 불순종에 계속 머물러 있을 핑계를 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완전함으로 나아가자”(히 6:1) 라는 명령에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발견되는 악을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묵인한다면 이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요, 그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이며 이 땅에서 징계에 의해 주님의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인물

히브리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들의 구원자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상화와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주인공일 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께서 다름 아닌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처음 몇 구절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히 1:1-2)

이 아들께서 하나님이지요, 아버지와 하나이시라는 사실은 다음의 여러 가지 신적인 특성으로 즉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1. 그분은 모든 것의 상속자이십니다(2절).
2.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2절).
3.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3절).
4.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실체이십니다(3절).
5. 그분은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이십니다(3절).
6.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는 죄없는 분이십니다(3절).
7. 그분은 신성한 왕좌 위에 앉아계십니다(3절).

이처럼 히브리서의 첫 세 구절에는 아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일곱 가지 특성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피조물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신격을 가진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만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히브리서의 이 세 구절만으로도 충분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주제가 바로 이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인성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으며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은 이를 두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요 1:14)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심을 그만 두셨을까요?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신성은 한쪽에 내려놓으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께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하나이신 걸까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지니신 채로도 여전히 다른 모든 피조물들 위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히 1:4-5)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타락한 적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임무를 부여 받으며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보다 뛰어난 피조물은 없으며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보다 나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채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가장 뛰어난 분이시며 이를 더 강조하기 위해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히 1:6)

하나님께서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마 4:10)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심으로 친히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본성을 지니신 채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더 낮게 되셨다는 말씀에 의해 이것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납니다. 천사들은 처음 나신 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이분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와 침으로 범벅이 된 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최고의 모욕과 굴욕을 온유하게 견뎌내신 그분이 다름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이신데도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마음에 명심할 때에만, 우리 구속받은 자들은 그분께 완전히 헌신하여 완전함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히브리서의 요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분으로 선명히 묘사되신 바로 그분께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제1장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무리보다 우월하심을 더욱 많은 증거들로 입증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크게 숭배했음을 기억한다면 다음의 논증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천사들과 예수님의 대조는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다음 몇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1.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왕국에서 왕이십니다(8절).
2. 그분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9절).
3. 그분은 땅과 하늘의 설계자이십니다(10절).
4. 그분은 영원한 창조자이십니다(11절).

5.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십니다(12절).
6. 그분은 최종적인 정복자이십니다(13절).
7. 그분은 천사들이 섬길 구원의 상속자들의 주님이십니다(14절).

위 사항 중 단 하나도 그 어떤 최고 천사에게도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째서?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이 다음과 같은 훈계로 시작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히 2:1-3)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이며 그 다음은 “우리” 라는 대명사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과 그들이 같은 부류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는 곧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경고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히브

리서 1장의 가르침을 상기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1장에서 주 예수님을 “창조자”, “지탱자”, “구원자”, “증보자”로서 가장 뛰어난 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분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그분은 우리의 절대적 헌신과 순종, 그리고 최상의 섬김과 열매 맺음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이와 같은 문맥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이 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어째서” 라는 말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요구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리라고 기대하실 권리를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상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는 회심하지 않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고백이 만약 거짓 고백이라면 그 고백을 굳게 붙들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섬김과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의 경고로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서 2:3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거부함이 아닌 소홀히 함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죄인에게 적용되어 복음 설교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영적인 적용으로서는 용납이 될지 모르지만 이 구절의 해석은 죄인이 아닌 믿는 성도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두 단어가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우리”와 “소홀히 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기자 자신이 포함되므로 그가 믿는 자들에게 서신을 기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홀히 함”이라는 단어는 혹시 소홀히 다루게 될지도 모를 뭔가를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거부한다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으며 안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에 합당한 행위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회심은 우리의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단지 영원한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요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나왔으며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받았으나 그들의 목표 지점은 승리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겨우 몇 사람만이 이 풍요로운 땅에 도착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무리는 비록 피에 의해 구출되었고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광야에서 죽었으며 승리의 땅에 들어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늘나라가 아니며 현 세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곳으로 히브리서는 바로 이 승리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빌 2:12)

이것은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구절은 믿는 자들의 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구원을 일하여 “밖으로”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는 일하여 밖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가지고 열매를 생산할 수 있으며 혹은 구원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신 중 어떤 사람에게 농장 하나를 선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의 노력과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니다. 이 농장은 당신에게 공짜로 넘겨진 것입니다. 당신은 권리증을 넘겨 받았고 이제 소유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농장을 열심히 가꾸어 많은 과실의 수확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그 농장을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홀함으로 인해 당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과 축복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추수 때에 보상과 손실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회계보고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이 가져다준 기회와 시간과 책임에 대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

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고후5:10).

좋거나 나쁘거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은 보고서의 내용이 좋은(good)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구원을 소홀히 한 사람들은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3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피한다는 뜻인가요? 지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피하게 해 주는 것은 은혜의 구원이지만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개보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바울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고전 3:13-15)

이 말씀은 실로 엄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죄를 지을 면허를 준 것이 아니며 느슨한 삶에 대해 변명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후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출두해야만 합니다. 이 분명한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히브리서의 엄숙한 경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히2:1,3).

이것이 그토록 슬프게도 무시되고 있는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회심은 신앙 생활의 첫걸음에 불과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에 완전히 일치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완성될 신앙의 여정이 남아 있게 될 것임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성숙하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다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은혜의 요구사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세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며 우리의 온 존재를 완전히 내어드림으로써 최대한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갇난아기로 남아 패배당한 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겨오지 않으셨는지요? 당신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믿음 생활에 얼마나 진전을 이루셨나요? 당신의 섬기는 삶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인생의 짐을 불평 없이 잘 지고 가십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본향으로 부르시면 확신 가운데 그분을 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 왜 한걸음 더 전진하지 않으십니까? 잠시 멈추어 당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간증과 섬김과 확신을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돌이켜(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께 당신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이제 요한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봅시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요일 2:28)

이제 당신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패배의 삶에 지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으며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라고 말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엮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1-2)

승리의 삶을 위한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와 의심스러운 모든 죄, 그리고 당신을 내리누르는 무거운 것들과 당신

을 엮어매는 모든 죄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철저히 고백하시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에는 당신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당신의 눈을 자아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두어들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겪게 될 모든 경험을 현재의 희생과 고난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의 관점에서 해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주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불평 없이 십자가를 견디셨으며 수치를 멸시하셨고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겨우 견딜 정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높은 곳에 앉아서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자들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옆지른 우유를 놓고 울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일도 오늘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말고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히 12:11-13)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서 걷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좌우를 돌아보거나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눈은 오직 초점을 고정하고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발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03

구원의 목표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히 2:7-8)

히브리서는 사도들이 사역하던 교회 시대의 초기의 성도들 중 대부분이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배교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부패하고 패역한 미신과 전통으로 가득한 율법 종교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 부패한 종교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마태복음2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환경으로부터 이제 막 벗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파의 인기 없는 교제권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 확고하고 타협 없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경우 그들은 친구를 포기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거나 옛 종교와 결별하게 될지도 모르며 결국 그리스도와 이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을 따르는 작은 추종자 무리들과 함께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에 없게 됩니다. 자신들이 아끼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며 당시 종교지도자들로부터 조롱은 물론 심지어 박해까지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멸시받는 구원자를 따르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였던 것입니다. 이 구원자께서는 이에 대해 미리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신앙 여정 가운데서 믿음이 나약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따돌림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 옛 율법주의로 되돌아가고픈 유혹을 받았으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세상과 타협하고픈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성별된 삶의 간증을 잃었고 옛 동료의 친구들의 호의를 얻고자 쉽고 인기 있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시작은 잘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첫사랑과 뜨거웠던 열정을 잃고 미지근한 상태로 전락하여 열정도 식고 열매도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갓난아이였으며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영적 영양실조를 겪고 있었고 전진 대신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충만한 은혜의 자유 가운데 걷던 이들이 이제는 죽은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한 상황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꺾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나?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갈 3:1,3)

이들 갈라디아인들 역시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체 안에서 지속하고픈 유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율법의 행위로 이 구원을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되고 교묘한 추측에 근거한 시험이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바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라는 책은 바로 이들에게 구원은 은혜로 받을 뿐 아니라 동일한 은혜로 궁극적 승리를 얻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는 것과 이 은혜가 그들로 신실함을 통해 왕관을 얻게 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어야 하며 결코 후퇴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심과 거듭남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 목표에 이르는 긴 여정 가운데 겨우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분의 최종 목표는 그 사람을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29)

구원은 지옥에서 구출되어 죽을 때 하늘로 가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구원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부산물 즉 일종의 보너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목적은 쓸모없던 죄인을 완전한 성도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인 경우이고 또 하나는 구원을 받고 뭔가가 “더”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후자는 구원 후 권능과 승리와 기쁨과 섬김과 열매 맺음과 최후의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반면 또한 구원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싸구려 상표가 붙은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교회에 나와 등록부에 사인하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상당수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분명한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분리)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과 설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떳떳치 못한 행실이나 의심스러운 옛 습관을 버지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적 직업과 친구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도 계속 교제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단체를 지지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달된 믿음을 부인하는 자들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회심 후에도 그리스도의 원수들과 결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신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명예를 같이 메고서) 세상적 유흥업소에 다니며 쾌락적인 습관도 지속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적당히 “가고 싶은 교회”를 택해서 가는 것 빼고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난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옛 생활과의 단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도 교회에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이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셈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최상의 축복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할 것을 요구하시며 그분의 뜻이란 다름 아닌 “주님께 거룩함”입니다. 당신은 이 점에 있어 얼마만큼의 성별이 있으셨는지요? 당신이 이제껏 살아온 신앙 여정을 되돌아볼 때 얼마만큼 성장하신 것 같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직후 놀라운 시절을 보냈던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뜨겁고 열정적으로 주의 뜻을 행할 만큼의 영적인 상태에 있으신지요?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 열정과 기쁨과 혼을 향한 뜨거움과 그리스도를 위해 타협없이 일어서던 그 거룩함,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 버린 것입니까?

도대체 어찌된 것입니까? 여기저기서 죄가 들어와 당신은 점점 주님으로부터 미끄러져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2:1은 가장 적합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과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란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고 영에 속한 자들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패배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생명만 얻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풍성한 생명과 삶을 얻은(요 10:10) 형제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안에 생명수를 갖고 있는가 하면(요 4:14), 그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요 7:38).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마 11:28)가 있는가 하면 그 후 그분을 따르기를 배워 그분의 명을 메고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마 11:29). 비록 후자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즉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 자들은 소수이기는 하나 이들만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좋은 두 가지 부르심에 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르심이란 이것입니다. 처음은 구원받기 위하여 그분께 나아오

라는 부르심ियो, 또 하나는 그분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려 순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두 번째 삶이 바로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은 삶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섬김의 기쁨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분리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달음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빌 2:15-16)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엡 5:15-16)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엡 4:14-15)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되고 나중에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삶은 분리된(구별된) 삶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멩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귀를 갖겠느냐? 빛과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고후 6:14)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고후 6:17)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후 7:1)

이 말씀들에서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할 두 가지 종류의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육”의 더러움이요, 또 하나는 “영”의 더러움입니다. “육신”의 더러움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함과, 불결함, 도둑질, 거짓말,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말 등과 같은 육신의 죄들에 아주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더러움 즉 세상과의 교제, 거짓 종교와의 타협, 열매 없는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정죄하는 대신 그것들을 권면하는 것 같은 모습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이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닌 악한 교리로부터 분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의 속박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는 요구는 물론 영적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요구입니다. 이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여 완전함에 이르도록 인도하기 위해 히브리서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1.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큰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믿는 자의 마음은 즉시 주님께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대가를 치르셨으니 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빚지고 있다.”고 소리치십시오. 히브리서2:5-8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심으로써 육신을 입으신 것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 2:9)

베들레헴 구유(manger)에서 자신을 비워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어떤 믿는 자라도 깊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관저에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시며 침 뱉음을 받아 피와 침 범벅이 되신 그분을 뵈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신 희생임을 인정하지 않을 자가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순간 “주여,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께 바치고자 하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숨 막히도록 끔찍한 어둠 속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늘의 기초를 뒤흔드는 듯한 하나님의 아들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는 절규를 듣고서 그 누가 감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전부가 나의 것일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작은 선물일 뿐, 우리 주님의 것처럼 놀랍고 것처럼 신성한 사랑은 내 혼과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네.”

그러나 초기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지 않고 것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며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족을 위해 낭비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은 너무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하시고자 두 번째 동기를 제공하십니다.

2. 보상의 약속(A promise of a reward).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신실한 섬김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그분께 빚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만 그분의 구속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기대하실 완전한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며 이에 신실한 섬김에 대해서는 의로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은혜의 보상임은 물론입니다. 저는 제 아들들이 저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기를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시키면 아무런 변명 없이 순종합니다. 아이들은 제 아들이므로 저는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했다고 샅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생명을 빚지고 있으며 저는 그들을 먹이고 옷 입히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옳은 일일 뿐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일이니 그들이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으며

그 일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노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들에게 작은 일거리를 주고 그에 따른 작은 기쁨의 선물을 줍니다. 저는 그들에게 몇 천 원씩을 보상으로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샀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아무런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은혜의 보상인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최상의 섬김을 항상 기대하실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저 불과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과 자아와 싸울 때 쉽게 지치며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느끼시며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신실하신 대제사장의 너그러우신 배려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물론 보상조차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이기적이며 열매 없는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들은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불순종에 대해 아무런 형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세 번째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3.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주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권면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 주님께서서는

질병과 약하게 함과 죽음을 마지막으로 처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지상에서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고전11:30-32). 계속 반역을 지속하는 경우 이 고의적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간섭”을 중단하시고 나중 이 모든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결을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히 6:6),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고전 9:27). 그들의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타 버릴 것이며 보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에 의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은혜가 남용되는 것을 결코 용서치 않으십니다. 만약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의해 회개치 않은 죄들을 태워 버리실 것입니다(고전 3:13-15).

우리 모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즉시 주님께 나아와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히 2:3)

04

훨씬 더 뛰어나게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히 1:4)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 2:9)

위의 두 구절은 모순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1:4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말씀이고 2:9은 육신을 입으신 주님의 사람이 되심에 관한 말씀이므로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책임 추궁을 하지만 하지만 이런 현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 소경이기에 거듭난 성도들만이 복음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고전2:13). 성경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영감의 증거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모순이라고 생각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록된 사건들을 비롯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죽음, 즉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본인이 기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신34:1-8). 모세가 자기의 죽음과 죽은 후의 장사지낸 것까지 다 기록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모세는 성령에 의하여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부고를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대언자들이 받은 영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대언자들은 아무런 오류 없이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미리 말했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오류 없이 예언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신 분

또 다른 모순의 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4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분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2:9은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고 기록했으니 서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 이시고,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 “모든 것들의 상속자”, “존엄하신 높은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이는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상당한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즉 주권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 하신 모습이요, 낮

아저서 굴욕을 당하신 아주 겸손하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가련하고 불쌍하고 잃어버린바 된, 즉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사람의 아들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 즉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에게 무언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의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님을 섬기는 데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히브리서는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 사항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또 사람의 아들로써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분께서 행하신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존재(What He is)와 그분의 역사(What He did)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이 지구상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주인으로서 지어졌고 지구 위에서 완전한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은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창 1:26)

이 통치권은 창세기 1:28에 다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권위와 통치권은 절대적인 것이고 모든 땅에서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금지된 열매에 참여하여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으로

인해 땅위의 통치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주인이 되는 대신에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마귀에 의해서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둘째 사람을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데 그분은 인간이 땅위에서 가지고 있던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통치권은 미래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오실 그 때에 이 세상의 정부는 그분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것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한 신비의 몸을 위로부터 받은 후 그리스도와 함께 땅위에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존귀와 명예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던 그러한 명예입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히 2:5)

다윗은 오래 전에 위대한 우주를 쳐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시 8:3-4).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시편 8:3-4의 상태를 보고 흥분하고 감격했으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그분을 찬미하고 마음속이 감격에 차 있습니다. 시편 8:3-4은 예언적인 언급입니다. 첫째로 인간에게 해당되며 통치권을 상실했던 사람이 다시 한 번 회복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모든 피조세계의 구

속을 내다보며 인간이 다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합니다(시 8:5).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히 2:7-8)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인데 아담이 잃어버린 권위를 다시 되돌려 받고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에 의해서만 그 시편 8:3,4 이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쓸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인간이 이와 같은 것을 회복한 시기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사망은 여전히 최고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고 반역과 경건치 못함은 만연해 있고 폭풍과 자연의 재앙들은 여전히 멈추지 않은 채로 있고 세상은 자연의 힘 앞에 굴복된 상태로 있고 죽음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 세상은 아직 인간이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8:5-6을 인용했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히 2:8)

둘째 사람의 등장

그렇다면 인간이 잃어버린 통치권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죄

지는 인간을 죽음으로 저주하셨고 온 땅은 아담의 죄의 저주 아래 두셨습니다. 죄가 온 땅을 탈취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죄를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도가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죄에 굴복하게 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길이 보여야 합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저주의 죽음이라는 굴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대언자의 눈을 가지고 그 답변을 이렇게 보여 줍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자연 세계에 있어서는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그 땅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을 다시 얻을 만한 아무런 표적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반드시 구속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그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히 2:8b)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But we see Jesus)”**(2:9)고 했으므로 다윗은 다른 사람 안에서 답을 봅니다. 그가 둘째 사람 즉 마지막 아담인데 그가 첫 번째 사람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속은 성육신을 통하여 성취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히 2:7) 그러나 첫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고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격차를 경험하셨습니까?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으므로 엄청난

신분의 격차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출생으로 인해서 아담의 인류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히 2:16)

이 성육신의 목적은 그분께서 인간이 되시어 인간의 빛을 갚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것은 죽음의 고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광과 영예의 관을 쓰셨던 분이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신 다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2:9).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신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참으로 예수님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크신 사랑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히 2:10)

그것이 그분께 합당했다

그것이 그분께 합당했습니다. 그것이 그분께 합당했다는 내용은 그분께 잘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자나 옷이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하지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 입은 사람의 성격과 인품에 그 옷이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참 멋있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께 잘 어울리는 성품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잘 어울리는 그분의 성품을 제대로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그와 같이 그분의 성품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잃어버린 상속을 회복하고자 하신다면 오직 죽음의 고통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서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물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위대한 분이시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지어진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성경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고난을 통해 완전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되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사실 이상한 말 같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닌가요? 완전한 인간이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는 구속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구속자로서의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으셨거나 죽으려 하지 아니하셨다면 불안정한 구원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긴 하지만 “죄의 삯은 사망”이므로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든 속성에서 완전하신 분이요, 자신의 완전하심을 입증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구속함으로써 이제 인간의 피

조세계에 관해 통치권을 회복하는 일, 그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 통치권을 잃어버린 인간은 스스로 그 통치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우리 인간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켜 우리의 죄의 빚을 자기 자신 위에 얹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의 징벌과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셨고 다시 한 번 우리 인간들을 위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주장하십니다. 창세기 1:28에 언급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보십시오.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 1:28b)

그러나 이와 같은 통치권 회복이 완전히 실현되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둘째 사람으로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부터 오신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분을 보게 되겠지요?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단지 지옥으로부터 구출되는 것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죽으면 단순히 하늘나라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체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주께서 세우실 천년 왕국에서 우리의 위치, 지위, 권위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보상으로 결정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피조세계를 회복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이며 그 심판석에서는 왕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위가 분배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행

위에 따라 어떤 사람은 다섯 도시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열 도시를, 다른 사람들은 모든 보상을 다 잃어버리게 되며 그저 불 가운데에서 겨우 구원받은 정도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삶을 살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라.”, “완전히 그분을 섬기는 데 헌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훈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실패하게 되면 손실을 겪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요일 2:28).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충만하지 못한 보상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요이 8). 반면 어떤 분들은 풍성한 보상을 받으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벧후 1:11).

주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우리 마음의 동기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온전한 굴복 즉 복종으로, 주님께 맡긴 채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내적 동기는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에 근거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감사의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구속이라는 은혜 안으로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일은 우리에게 모두 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

양하리이다, 하시며 또 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히 2:11-13)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심

이 구절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은 아주 뛰어나고 핵심적인 계시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참하고 가치가 없고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고 더러운 죄인들과 일치시킨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해 죽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견디셨고 수치를 무시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를 형제들이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죄의 진창 속에서 구출하신 그분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피로 씻긴바 된 그 어떤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 일입니까? 우리의 최상의 것보다 적은 것을 그분을 위해 바친다면 얼마나 성의 없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육신을 위해 뒤로 물린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제단에 바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스러워하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에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 내려 하심이라.”(히 2:14-15)

이 헌신에 있어서 당신은 얼마나 정진하셨습니까? 혹시 당신은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내려놓으려고 하십니까? 모든 자기 의를 다 부인하고 모든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두려워하거나 혹은 나는 그러한 삶을 견디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히 2:17-18)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자이십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의 사나운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하신 대장을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면 전쟁은 이미 텅 빈 무덤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소탕작전 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마귀는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그가 불 못에 던져질 때까지 소탕작전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시고 당신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그분이 준비하신 보상을 미리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구속에 대한 그 무한한 대가를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그분께 모든 것을 내맡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아와 육신

에 속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분께 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
리라.”(딤후 2:21)

모두가 나왔으나 모두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히 3:1,2)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이 누구를 향해 기록된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적용하면 전체 의미를 왜곡시키게 되고 혼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적절한 예를 다시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의미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1:29로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만약에 이 구절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구원받는 구절로 적용해 버린다면 구원을 의미하는 다른 모든 성경의 말씀과 모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성경 말씀들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로 선언하

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멩에를 뎡으로써 구원받지 않습니다. 멩에라고 하는 것은 일과 수고와 노역의 상징입니다. 죄인은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멩에를 메거나 어떤 십자가를 짐으로써 구원받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분이 자신을 구원하실 분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므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느니라.”(롬 4:5)

그러므로 마태복음 11:29에서 주님의 멩에를 뎡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초청하여 또 다른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르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초청은 바로 그 앞 구절의 마태복음 11:28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초청입니다. 이는 세상의 필요 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 쓸데없는 노력을 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자들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님께로 나오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코자 하는 자기 자신들의 수고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무엇인가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온 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더 나아가 장성함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의 멩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고 나를 섬김으로써 더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는 바로 구원받은 저와 당신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분명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승리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승리는 오직 땀 흘리는 노력과 희생으로만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계속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주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당신은 더욱 바쁘게 일하러 나가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때 얻은 안식에 덧붙여 또 다른 혼을 위한 안식을 찾을 것이며 평강의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얻은 안식을 넘어서 그보다 더 큰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28에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였고 29절에는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깊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다른 안식입니다. 마태복음 11:28의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은 죄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의 수신자를 정확히 아는 일을 실패한다면 중대한 착오와 혼동을 불러옵니다. 즉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일 하라고 강요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멍에를 메고 일과 수고와 배움으로 믿음의 성장이 뒤따르게 됩니다. 은혜와 행위를 뒤섞어버리는 것은 기록하지 못한 연합입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어떤 성경 구절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냐, 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한 다음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규칙은 대단히 중요

합니다. 이런 규칙은 히브리서 공부에서도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혼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성경 자체가 모순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은 믿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마태복음11:28의 “**내게로 오라**”하신 초청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첫 걸음을 이미 내디딘 사람,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온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11:29의 “**너희 위에 내 멍어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배워 더욱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와 복종의 삶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전히 젖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 믿는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완전히, 영원히 벗어났지만 승리의 땅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소홀히 했던 자들이었습니다(히 2:3). 그들은 의무나 책임을 떠내려 보내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상의 복에는 미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히4:1).

거룩한 형제들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 히브리서를 공부하려 한다면 매우 짙은 안개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으나 주님을 섬기는 것과 승리의 삶에 아직 미치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의 편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아보면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서3장은 다음과 같

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서두의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말은 바로 전 구절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았기에 다음의 훈계를 받습니다. 즉 그들의 눈은 승리의 삶을 위해 그분께만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호칭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것을 의미한다면 더 이상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위치에 있어서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위치로 볼 때 그들은 거룩했고 거룩히 구별됐고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 있어서는 아직도 한참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구원받았으며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 신실하라고 권면 받고 있습니다. 참여한 자들(partakers)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시사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일 때만 이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누다”는 뜻이요, “동일한 실체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벧후 1:4b)고 했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그 하나님 곧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골 1:12)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10:17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
요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거룩한 형제들이여”라고 불렀다면,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 불렀다면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요, 한 몸의 지체로서 아주 친밀하고 더 이
상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연합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은 회심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들이었다. 복음과 함께 나아가다
가 실제로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
리는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히브리서의 수신
자들을 거듭나지 아니한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문법
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계속해서 성경은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
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히 3:1)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죄인들이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분은
그들의 심판자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죄인들의 중
보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은 갈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은 십자가에 먼저 나와 멈추기 전까지는
제사장에게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통해 먼저 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그분이 지금 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전적으로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을 때 죄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대속자 이시오,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오기 전까지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실 수 없고 기도하실 수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요 17:9)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이 거룩히 구별되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열매 맺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과 삶에 있어서 그분께 신실하도록 훈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그분께 신실코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히 3:2)

성경은 한 예를 우리에게 소개하셨는데 바로 모세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집에서 신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완전했다든가 결코 실수하지 않았다거나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신실했다”고 평가합니다.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함을 말합니다.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도되”(히 3:5)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비교되었을 때 모세의 신실함 위에 그리스도의 신실함

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이 증거가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둘을 비교한 것은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모세의 신실함보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즉 핀으로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아주 작은 두개의 단어로 인해서 증언됩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자기 집에서 신실했던 반면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자기 집에서 감독관으로서,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히 3:6) 모세가 자기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함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집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위에서 집을 다스리는 감독자로서 신실했습니다.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를 존경했고 그를 드높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아래로 자기 자신들을 가두고자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모세는 완전함과 거리가 먼 자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그의 증언에 있어서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수행하여 다 기록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자기 집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이 다 존중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말을 유대인들이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세보다도 더 크신 분의 오심에 있어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고 그분의 약속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쓴 메시지가 동일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와 같은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성취됨으로써 모세의 신실함이 입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6 끝부분에 보시면 은혜로 얻게 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써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만약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면만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됩니다. “믿는 자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굳게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한 보장과 신뢰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끝까지 굳게 붙들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끝까지 굳게 붙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소망의 확신과 신뢰,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굳게 붙든다면”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와 정확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으며 쓰레기로 간주되었고 그 사회의 찌꺼기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더 쉬운 길로 돌아가면 어떨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고 비난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만약 그들이 성별 된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항복해 버리고 쉬운 길을 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증을 숨긴다면 박해와 비평으로부터 그들은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확신과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이 멈추게 될 것이고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에 미끄러진 것처럼 여전히 영적인 아이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받게 될 시험과 시련 아래에서 낙담하는 것 대신에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 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만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벧전 4:12-13)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과 함께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이 침체되거나 패배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신실하기 위해서도 역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상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소망을 기쁨으로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만이 충만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는가?

당신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당신이 한때 알고 있었던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당신을 정복해 버렸습니까? 당신의 구원이 진짜인지 어떤 때는 의심이 나기도 하십니까? 당신의 삶에 있어서 거의 진전이 없는 것을 볼 때 낙담했습니까? 만약 가끔 가다가 당신의 신실함의 대가가 너무도 크다고 느껴지고 낙심된다면 치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갈보리를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당신이 구속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것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당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정죄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영원한 지옥을 향하고 있었던 그때를 말입니다. 당신을 구속하기 위해 그분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2. 자, 이제 위를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이 동일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지금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당신의 소홀함과 실패에 대해 용서를 제공하고 계시고 당신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시련과 시험과 유혹에 대해 항상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3. 앞을 바라보면서 동일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실함에 근거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되돌아오실 그대에 통치의 왕관을 씌워 주실 그 날을 지금 고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물이나 인간이나 자아로부터 눈을 떼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 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히 12:3)

이 모든 것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문제입니다. 당신이 단지 현재만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시선을 미래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신앙 생활을 할 때 현재의 환경만 바라보면 실패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현재의 고난과 희생을 영원이라고 하는 보상의 조건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즉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영원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이제껏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것에 대해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의 시련들은 그 길 끝에 있는 영광의 빛에 비추어서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다 녹아 없어질 것이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도다.”(롬 8:18)

자주,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우리의 시련은 지고가기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불평하도록 시험 받을 수도 있고
불만과 절망에 시험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신부를 데려가시고자?
주께서 곧 나타나시리니
하나님의 영원한 그날이 오면
모든 눈물이 영원히 그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그대에
이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그대에
인생의 시련들은 너무도 작게 보일 것이요,
그분의 사랑스런 얼굴을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슬픔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그때까지.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
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히
10:35-37)

06

광야의 시체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출생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그 순간은 모두 갓난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아기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므로 영적인 성숙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슬픈 일기는 하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육이 부진한 것처럼 보이고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현상을 경험하거나 괴로움을 겪고 광야를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자녀들이긴 하지만 전혀 성장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어린아이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과 진심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평범하게 믿는 성도들은 한심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모든 성경을 다 잘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고 말씀대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제대로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히

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며 그 수신자들에 해당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영적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벌써 선생이 되어야 마땅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만 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갓난아기 음식인 젖만 먹을 줄 알고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히 5:12).

그 원인은 그들이 그 큰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히 2:3). 그런데 그 큰 구원에 대해서는 주께서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먼저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히1:1).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아기에 머물러 기어 다니거나 조그마한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져 있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모든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거나 성경공부를 게을리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경과 함께 보내시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그 성적표를 제가 채점해 드릴 터이니 당신 스스로도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을 소홀히 함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는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라. 왕관을 얻기까지, 성숙함에 이르도록 나아가라” 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성장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은 채로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실패하는 것은 주님의 징계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신앙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보상의 손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의 예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것에 미치지 못할 위험을 예언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난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에 대해 아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을 보여 주고 그들이 풍성한 삶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경고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사십 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히 3:7-11)

이 부분의 모든 내용은 “그러므로” 라는 처음 단어를 빼고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경고로서 사용되었는데 그 전에 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자는 백성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내어드리며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시 95: 6-7)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선택을 받았고 이집트로부터 구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3장에 인용된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히 3:7,8)

완악한 그리스도인들

이것은 누구에게나 늘 생길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음을 강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늘 있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우리는 주로 마음이 강박한 죄인들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강박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시듯 부탁하시는 말씀들을 계속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향한 감각에서 무디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타이르는 말씀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서 드디어 그들로 하여금 다음의 장소, 즉 “그들을 다시 회개케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까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직 특별한 징계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으로 다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요, 그곳에서 그들이 한 일은 다 타 버릴 것이나 그들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에 얼마나 확신을 가졌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죄나 나쁜 습관을 버려야할 필요에 직면했을 때, 그 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찔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

이 되었을 때 죄나 나쁜 습관은 당신 안에서 결코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 당신이 그러한 것들에 실패하거나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느꼈었는지를 당신은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그 내적인 확신과 찢림은 점점 질식하여 강도가 약해져서 변명을 찾기 시작하고 한 때는 당신에게 죄책감과 찢림을 가져다주었던 그 일들이 오늘날 용인되거나 묵과되면서 변명을 늘어놓고 양심의 가책도 전혀 받지 않은 채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무슨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아직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강박해진 것입니다. 왜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전혀 모르는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보상이 불행하게도 새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주인들의 잔인한 채찍 밑에서 노예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와 권능으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참한 속박과 노예 상태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 아래 놓여졌고 이집트에서 벗어나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으며 다시는 그 밑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가나안 땅을 향해가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가나안 땅이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지 이집트에서만 구해내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광야의 여정이 놓여있고 그들의 눈에 통과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 땅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길목에 홍해를 놓으셨고 그들은 되돌아 갈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약 가나안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제공하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바위로부터 물도 주셨습니다. 그들의 옷은 결코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신발은 결코 닳지 않았습니다. 모든 필요가 다 제공된 이 모습이 얼마나 적절한 모든 필요의 공급이었습니까?

가나안에 이르지 못함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은 단지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에 불만을 품고 옛날 이집트 땅에서 먹었던 음식의 옛 식단에 욕심을 품고 그들이 이집트를 벗어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옛 이집트가 그들 마음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적 식욕에 굴복해 생선과 양파와 마늘과 참외와 오이 등 이집트 음식을 먹고 싶어했습니다.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지난날 세상에서 즐기던 일들이 생각나거나 되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육신의 만족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혹시 구원받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피에 의해 구속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 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히 3:10-11)

여기서 내 안식이라는 것은 주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구속의 안식인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벽돌을 굽는 가마로부터 구출됨으로써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승리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땅, 곡식과 포도즙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에서의 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이집트 땅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의 구속을 되돌리기 위해서 노예의 속박의 땅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로부터 구속받은 백성이지만 가나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다니 구속받은 백성에게 이처럼 비극적인 운명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그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구속 받은 백성의 편에서 그분을 믿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그들이 결코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

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히 3:18-19)

그들이 믿지 않으려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정탐꾼들의 올바른 보고를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열두 정탐꾼들이 보내어졌을 때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의 바로 경계선상에 와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큰 성벽을 가진 도시들과 큰 키를 가진 거인들의 소식과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심을 믿는 데 실패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광야로 되돌아가서 38년이나 더 광야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리의 문턱 바로 앞에 머물렀는데도 그들은 결국 불신으로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훈계를 위한 것임

이 기록은 우리를 훈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예들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에 필요한 훈계와 경고를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는 자를 예표하고 이집트는 죄와 속박의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그들의 종으로 속박 아래 있었듯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세상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출자 모세는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들의 유월절 어린양은 우리 죄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예표요 그 양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빠져 몰살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씻은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마귀들의 모형이며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

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요, 만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이며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반석은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영적 성장의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아직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생명을 나타냅니다. 가나안에서 혼의 안식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현재 살고 있는 성도들의 풍성한 승리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하늘나라를 묘사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가나안이 정복에 의해서만 소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전쟁의 땅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용감하게 전투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패배도 경험하면서 정복해 가야 합니다. 승리의 기쁨은 영적인 성장의 방해물을 통과했을 때 맛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하늘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더 이상 어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이집트로부터 벗어나 있었음에도 승리의 가나안 땅 즉 풍성한 삶의 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7-11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경험과 주님의 엄숙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절들을 적용해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중의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의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아

니하도록 하라.”(히 3:12-13)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 알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이는 당신 모두를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당신 모두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과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자신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복을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한 사귀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소홀히 함과 불순종을 통해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패배하는 경우 하나님과의 사귀를 저버리고 결코 영적 성숙한 승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보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확신을 굳건하게 하고 고백의 시작을 끝까지 굳게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와 소통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보장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가만히 서 있는 이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위치 즉 구원의 완전하고 영원한 보장의 은혜에 대해 너무도 만족한 나머지 그냥 서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성장이 멈춘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진한다는 것은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살아 있으면 움직이고 노

력하고 성취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됨은 우리의 서 있는 위치를 확신시켜 주지만 주님과 교제야말로 우리의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1:7)

그리스도안에서 친구 된 당신에게 말합니다. 회심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멀리 걸어오셨습니까? 얼마나 달렸습니까? 아마 당신 중에는 20년, 30년, 40년 전에 구원받은 분들도 계실 터인데 아직도 가나안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구원받았을 그때보다도 더 승리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신지요? 스스로 한번 물어 보십시오. 나는 그 첫사랑의 기쁨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의 내가 체험했던 그 기쁨을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1년 전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더 즐거운가? 내가 늘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최근에 기도의 응답 받은 적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전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답변해서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별 진전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승리의 지점은 아직 멀며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적 감각이 냉랭해졌습니까? 비판적입니까? 냉소적입니까? 언짢은 기분이 자주 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더 익어가고 더 성숙해지는 대신에,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화평을 알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빈손으로 그분 앞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겨우 열하루 길

홍해를 건너 기뻐 노래하며 춤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져버린 예를 보니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도 그 어떤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경험을 반복할 수 있다는 데 아무런 핑계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 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 이르는 가데스바네아까지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나안에 서 있게 될 그 전투 때문에 그들은 호렘을 향하여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렘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는 세일 산의 길을 따라 열하루 길이었더라.)”(신 1:2)

호렘에서부터 약속의 땅 바로 입구 즉 가데스바네아까지는 겨우 열하루 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은즉 돌이켜 이동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으로 가고 거기에 가까운 모든 곳으로 가며 평야와 산지와 골짜기와 남쪽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라. 보라, 주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은즉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지니라, 하셨느니라.”(신 1:6-8)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에, 그들의 유업을 취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그들은 반역했고 패배의 광야에서 38년간을 더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열하루의 길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들은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히브리서 4장은 이것에 대한 개개인의 적용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으나 오늘 말씀도 다음과 같은 경고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의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히4:1)

믿는 자들이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당신은 일어나 돌이켜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불순종도 내려놓고, 승리의 땅을 주장하고, 안식을 발견하고, 평안을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누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주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니, 정직하게 당신의 삶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시험을 견딜 수 없다면 정직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시고 그것을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달리십시오.

수고의 안식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늘로 가도록 정해졌으나 이 땅에서는 비참하고 패배한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전혀 다른 두 가지, 즉 패배 혹은 승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육신에 속하여 육신적으로 믿는 자들과 영에 속하여 영적으로 믿는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은 채 영원한 아이로 사는 성도가 있으며 반면 성장하고 자라서 영적인 어른이 된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의 부담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거듭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잘 인도함을 받아서 다음 단계로 성숙을 향해 자라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데 패배함으로써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않도록 히브리서의 기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히 5:12)

이것이 비극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오래도록, 영원토록 어린아이로 남아

있으며 영양실조를 겪고 성장이 멈춰버리고 기쁨을 상실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며 승리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부인할 용기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5년 전, 10년 전의 상태에서 더 전진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자아와 세상에 대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과 평화야말로 모든 이해를 뛰어 넘는 것입니다. 충만한 삶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는데도 왜 패배하고 낙망하는 가운데 지내야만 합니까? 저는 이 히브리서 성경공부가 그 길을 당신에게 제시해 주기를 확실히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1).

그리고 다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4)

그렇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데는 결코 다다르지 못하는 성도가 많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참으로 놀라운 이러한 예와 이 비극에 대해 엄숙한 경고로 우리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요,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출된 백성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과 피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벗어나 있고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요, 풍성한 승리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상태에서 구출은 되었으나 가나안의 거인들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놓여 있는데 그 광야는 열하루면 통과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사십년이나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의 큰 무리가 가나안 땅의 승리를 보기 전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벗어났으나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충만한 승리의 기쁨은 결코 맛보지 못했습니다.

엄숙한 경고

이 불신과 불순종의 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숙하고도 확실한 경고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정확한 본보기의 증거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구속은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으로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 경고는 영적 성장의 광야에서 버둥대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은 훈계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의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히 4:1)

히브리서4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어휘는 REST, 즉 안식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서 4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3:11부터 4:11사이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안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안식과 현재의 안식과 미래의 안식입니다. 과거의 안식은 구원의 안식입니다. 현재의 안식은 죄에 대한 승리의 안식

입니다. 미래의 안식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시련이 다 끝나게 될 때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세 가지 안식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한 가지 특별한 안식이며 나머지 두 개는 본문의 주제를 분명히 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도입이 됩니다. 우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로 주어지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걸을 때에만 오는 또 다른 안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안식으로 이 세상 육신의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안식이 있습니다. 첫째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선물이요, 셋째 안식은 미래의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일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더불어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안식은 섬김과 승리와 평안의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가능성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 있고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4:9-11까지 보면 이 세 가지 안식들의 정의가 분명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9에는 미래의 안식이 나와 있고 그 안식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것은 바로 요한이 계시록 14:13에 말한 그 영원한 안식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

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어지는 몫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히브리서 4:10을 보니 상당히 다른 안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미래의 것이지만 이미 완성된 사실로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히 4:10)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안식이며 구원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28의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것은 주어진 안식이요, 수고와 일을 해서 얻은 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을 멈추고, 세상의 윤리도덕의 관점으로 보는 자기 자신의 모든 의와 선행을 다 내버리고, 가련하고 무기력하며 스스로 낙심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 구원을 얻기 위해 나올 때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하거나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그 무엇으로 살 수 없고 그 안식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구원의 안식은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롬 4:5)

이 안식에 있어서는 일 즉 사람들의 행위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10절 뒤에 바로 다음 1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일을 중단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안식이 온다고 말 한 후에 이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

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히 4:11)

히브리서 4:10에서는 자신의 일들 즉 노력을 그치고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11절에서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지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언급한 안식은 오직 우리의 노력과 희생에 의해서만 오는 안식이요, 수고와 일에 의해서만 오는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믿는 자들이 소유하는 구원의 안식이 있고 또 다른 안식이 있는데 이는 순종과 섬김의 길에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안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에 있어서의 이 두 가지 가능성이야말로 성경에 생생한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에 관해 언급하셨고 더 풍성한 삶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요 10:10). 그 하나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중에 앞선 것 하나만 얻으면 구원만 받은 것입니다. 바울도 두 가지의 평안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모든 믿는 자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이 있고 또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행복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화평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롬 5:1)

이 화평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온 결과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얻는 화평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영원한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

른 화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6-7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강(peace with God)”(롬5:1)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받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4:7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peace of God)”(빌4:7)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 드렸을 때, 즉 내가 염려하거나 스스로 예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와 감사함으로 우리의 요구 사항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할 때만 오는 평안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에 관해 다 이야기 하십시오. 영적 전투를 그분의 손에 위임하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peace with God)”을 누리고 있는 수천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화평(peace of God)”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할 때에만 오는 “하나님의 화평(peace of God)”, 은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경험에서 주어진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28-29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똑같은 초청이 아니

라는 것을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 다른 부르심입니다. 첫째 부르심의 28절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는 “오라(come)”는 단어입니다. 반면 29절의 첫째 단어는 “떼라(take)”, 즉 멩에를 떼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라(come) 하는 초청은 죄인을 향한 것으로 헛되게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진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나 바칠 것이 없이 맨손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구원의 안식을 주십니다. 그것은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 수고도 비용도 노력도 들지 않습니다. 모두가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peace with God) 안식”입니다. 단지 그리스도께 나아옴으로서 얻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다음 29절은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이 구절의 대상은 이미 주님께 나온 자들, 즉 이미 공짜로 주는 선물을 무료로 받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구원의 안식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실 더 많은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주께 와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 내 멩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로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는 뭔가를 메고 그분을 위해 일을 하러 가자고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멩에라는 것은 굴복의 상징이요 순종의 상징입니다. 수고와 섬김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죄의 멩에로부터 영원히 자유입니다. 아주 힘들고 잔인한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는 영원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출을 하셨기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멩에를 메고 그분께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멩에는 가볍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부분을 그분이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멩에를 메고 가는 것은 그분의 멩에 아래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분의 뜻에 온전히 굴복한 것이며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치고 전 생애를 그분께 내어드린 결과로 얻는 것은 당신의 혼의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28의 안식이 아닙니다. 그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29절의 안식은 멩에를 메고 감으로서 얻게 되는데 그것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 되고 꾸준히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하셨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우리가 찾는 안식은 엄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집트에서 종의 멩에로부터 구출된 이스라엘의 그 큰 회중들 안에는, 혼을 위한 안식을 찾은 자는 겨우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순종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자 하고 멩에를 메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불과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고 둘째 안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부르심은 해당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검을 위한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순종과 신뢰의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부르심은 첫째 부르심과 마찬가지로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승리를 얻고자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광야에서 패배하면서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구출받은 후 열

마 있다가 가데스바네아에 있는 가나안의 국경 근처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그들 앞에 단호한 선택을 놓아두셨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중요한 결정을 놓아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승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홀로 너희의 성가신 일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랴?”(신 1: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너희 장막 속에서 불평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26-30절)

그 결정은 구원받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가나안의 거인들이 두려워 광야로 돌아오느냐의 결정은 분명히 그들 앞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꺼이 신뢰하고자 하였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육신의 소리를 듣고자 했습니까? 아주 역사적이고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그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참으로 슬픈 기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신 1:32)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대신 욕신을 따라 패배의 길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된 말씀들로 확인해봅시다.

“주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신 1:34-35)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3-4장에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실패를 들어 경고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하십니다. 당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 서 있었던 것같이 바로 그 장소에 서 있습니다. 당신도 역시 구원을 받았으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패배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이 세상의 무게로 인해, 고백하지 않은 죄로 인해, 완전히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해 당신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단지 순종코자 하는 자들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제껏 알게 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이 두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먼저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

는 체험을 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부르심,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에 내어 주도록 하는 그러한 완전한 복종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불려도 좋고,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라 해도 좋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해도 좋고, 완전한 굴복이라고 해도 좋고, 둘째 축복이라 해도 좋고, 완전한 내어맡김이라 해도 좋고, 당신이 무어라 불려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정말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히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기쁨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맡김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평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들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가나안에서 승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감히 원하지 않으므로써 후회를 하는 광야에서의 방향이 될 것인가? 당신의 마음을 오늘 이 순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을 구속하기 위해 그분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 주신 그분에게 뭔가를 내가 뒤로 감출 수 있겠는가? 그분의 부르심이 지금 들리지 않으시나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하신 분께서 “나를 따르라. 그분께서는 너희 앞에 가시리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몸과 마음과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는데도 또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그분의 나

라에서도 더욱 풍성하고 기쁘고 완전한 보상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분을 담대히 신뢰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너무도 단조롭고 열매 없는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 그분께로 돌아서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당신이 살고자 한다면 그분이 당신 앞서 가실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가던 길을 더 이상 선택하지 말고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당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승리!!

그것은 저 산 높은 곳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폭풍 부는 바다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전쟁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의 주께서는 저를 필요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작은 음성으로 그분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작은 길들로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사랑하시는 주님, 제 손을 당신께 놓겠습니다.

당신께서 제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겠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가도록 원하시는 그곳으로 제가 가리이다.

그곳이 산이든지, 혹은 들판이든지, 혹은 바다이든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제가 말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말하리이다,

저는 당신께서 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08

둘째 축복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의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 이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히 4:1-3)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줄 많은 복들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당연히 첫째 복에 이어 둘째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은 성경에 분명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복이며 둘째는 승리의 복과 아울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순종으로 섬기는 복입니다. 첫째 구원의 복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주님께 받게 될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둘째 복은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잘못된 견해를 지닌 많은 믿는 자들이 이 “둘째 축복”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온갖 비성경적인 감정이나 영적인 느낌 같은 것들에다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

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축복은 성령침례를 말하거나 구원을 결정지어 주는 어떤 신비의 체험적인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둘째 축복이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내버릴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이 복은 때로는 깊은 감정과 느낌의 체험을 동반할 수도 있으나 때론 아무런 느낌이나 눈물 없이도 올 수 있습니다. 이 복은 헌신에 관한 강력한 설교를 듣고 이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올 수도 있고 혹은 한 그리스도인이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올 수도 있고 중대한 결단과 금식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론 회심과 동시에 오기도 하며 회심 후 한참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둘째 복은 확실한 결과를 수반하는 분명한 체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셋째, 넷째 복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말씀에서 새로운 조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뭔가를 포기할 때 주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둘째 복”이라는 용어가 너무도 남용된 고로 이 표현보다는 차라리 성경적인 용어들 즉 순종이나 순복,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 또는 그리스도를 따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체험

히브리서 기록자는 본 서신의 수신자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승리의 복을 향해 나아갈 것을 호소하기 위해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체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양의 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을 때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둘째 명령을 받게 됩니

다. “올라가 그 땅을 소유하라.” 이 순간 이들은 “올라 갈 것인가”, “뒤로 물러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한 채 가나안에서의 전투대신 광야에서의 쉬운 삶을 선택하고 맙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과 희생과 커다란 전투를 의미합니다. 반면 광야에서 그들이 할 일이라고는 그저 빈둥거리고 어슬렁거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사회복지 계획 아래에서 모든 것이 제공되는 생활입니다.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습니다. 음식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으니 그저 주워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들은 땀 흘려 밭을 갈거나 팥이질을 하거나 추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바위로부터 거저 흘러나왔습니다. 우물을 파거나 펌프를 설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옷을 수선하거나 신발을 고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전혀 헤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실로 놀라운 삶이 아닌지요? 완벽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구호품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런 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곡식과 포도즙을 즐기는 삶, 즉 승리와 풍요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는 땀 흘리며 일을 해야만 합니다. 곡식을 가꾸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하며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야하고 계다가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쫓아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기보다 광야에서 안주하며 편안한 삶을 즐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승리의 삶은 “안주하는 느슨한 삶”으로는 이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을 만큼은 하나님

을 신뢰했으나 승리를 얻을 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신뢰의 결핍

그 이유는 히브리서 4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히 4:2-3)

“구원의 안식”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안식”은 일을 요구합니다. 승리의 안식은 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곱째 날에 대한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히 4:4)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일을 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은 수고와 노력에 뒤이어 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만큼 불안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바쁘게 일하라.”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이 동일한 복된 소식 즉 “일어나 그 땅을 소유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모형과 그림자로서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아 연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영적으로 소유하

게 됨을 보여 줍니다. 다음 구절이 이 사실을 확증해줍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히 4:8)

가나안에 들어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안식은 하늘나라의 안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안식은 미래의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아 하늘에 들어가는 모든 자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현재 수고하여 얻어야 할 안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히 4:11)

히브리서4장은 “...너희 중의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1절b)고 시작하고 있는 반면 뒤에 가서는 이 두려움에 대한 치유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히 4:11a)

당신은 둘째 복을 받으셨나요? 구원받으신 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전체를 바치라고 하셨을 때 거리낌 없이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판에 박힌 기도 몇 마디와 더불어 성경 한 두절을 읽으면서 사건사고로부터 보호받겠지라고 생각하며 일요일에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열매 없는 삶을 여전히 살고 계신가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단지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위해 제단 위에 당신의 삶 전체를 올려놓고자 분발하고 노력하기 전까지는 결코 당신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인가, 제자인가?

성경은 믿는 자들은 성도와 제자, 두 그룹으로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무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아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곧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께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 그분은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70명의 소수를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지 70명만이 사역자로 부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버려야 했고 또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제자의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몇 절을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16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24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8절)

바로 이것이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관해 베드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에 걸쳐 시차를 두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인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는데 그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왔습니다(요 1:42). 이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로 나아왔고 이때가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구원받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1:28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5:1의 말씀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롬 5:1)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에 베드로의 삶에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의 직업, 친구관계, 혹은 습관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께로 나아와 구원을 받았을 뿐, 그 후 자신을 드러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첫째 부르심과는 다른 또 한번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을 때는 침례인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고 계속 사역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둘째로 주님께로 왔을 때는 얼마가 지난 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몇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1:14)

이 구절에 따르면 때가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구원받은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옛 직업인 고기잡이로 계속 바빴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막 1:17-18)

이전까지는 단지 성도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이제 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제자(disciple)”라는 단어는 “훈련(discipline)”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서 훈련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얻은 “가나안의 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며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그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회복지와 실업수당을 즐기면서도 전투에 나가거나 일하기는 거부하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구원 이상의 것을 당신에게 주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섬김과 희생의 기쁨을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느날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다”(마 8:19)라고 나아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마 8:20)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네가 대가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래도 여전히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 14:26)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로 따르려는 자가 치러야 할 대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

지 못하리라.”(눅 14:27)

구원과 제자의 도를 혼돈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반면 제자의 도란 구원받은 후 주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제자로의 부르심에 직면했을 때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은 물론 배와 가득 잡은 고기를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기에 아주 적은 수가 주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께 쓰임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 적은 무리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부르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그분께서 이끄는 곳이면 나는 따르리라”고 말을 하기보다 그 대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이 열심 있는 젊은이들에게 헌신하도록 촉구할 때 주님을 따르는 데 수반되는 대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더라면 오늘날 설교 현장에서 비극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헌신예배의 분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은 즉흥적인 감정으로 헌신을 맹세합니다(찬송가360장).

“나는 모든 것을 버리려네, 모든 것을 버리려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려네”라고 노래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헌신하고자 더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와 헌신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젊은이들은 일시적인 열심과 흥분 상태에서 헌신을 선포하거나 선교지로 의기양양하게 떠났다가 얼마 되지 않아(몇 개월 혹은 몇 년도 안 되어)실망하고 좌절하고 무

기력하고 낙담한 채로 돌아와 다시는 주님을 섬길 기력조차도 상실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교사나 목회자들이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치려야 할 대가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준다면 중도에 포기하는 선교사나 사역자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제자의 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기들이나 믿음이 나약한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하고 성숙하여 용기백배하고 죽기까지 신실할 만큼 완전히 헌신된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자 헌신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누구도 낙심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낙심한다면 그런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아직 신앙의 갓난 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제자의 도란 장밋빛 낭만이 아닙니다. 사역자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든지 가서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헌신하는 것은 주일학교 야외 예배나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나 미지로 떠나는 선교여행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확고한 마음을 품고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쓰고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보상의 소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놀랍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위대하고도 동정심이 많으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는 무오하신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의 마지막에는 특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19:27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치른 대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가 가야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상상한 대로 왕국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길이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인지 의아해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서는 모든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을 격려하기에 충분한 확신에 찬 말씀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느니라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백 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마 19:28-29)

만약 우리가 다가올 영광을 믿고 그것에 눈을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궁핍하고, 멸시받고, 버림 받아도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모든 즐기던 야망을 버리고

내가 바라고 찾고 알던 모든 것 버렸으나
얼마나 부유한 삶인지
하나님과 하늘이 여전히 나의 것이니
세상은 나를 멸시하고 버리나
이들은 나의 주님 역시 버렸으니
인간의 마음과 눈은 나를 속이나
당신께서는 인간과 달리 참되시니
당신께서 내게 미소를 지으시니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원수는 나를 미워하고 친구들은 나를 피할지 모르나
당신의 얼굴을 보시면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09

왕관을 얻으려면

당신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히 4:12-13)

히브리서 4장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 구절 바로 앞선 구절에서 우리는 헌신되고 성별된 삶을 통해 깨닫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 지니”(11)라고 권면 받았습시다. 히브리서 4장 전체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단지 구원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제자의 도를 따라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상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며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부르심에 확고하게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은 자아를 내려놓는 일에 대한 대가와 주님을 따를 때 자아가 치러야 할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삶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졌던 사람들과의 단절과 가장 소중한 친구관계마저 포기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격려하시고자 말씀의 권능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강력하여 최후의 승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이에 덧붙여서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의 임재가 있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희석된 복음을 피상적으로 전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수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 확고한 주님의 종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단지 구원의 축복을 넘어 제자의 도(道)라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전진하십시오. 이 축복은 구원받은 후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맡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 헌신이야말로 승리를 위한 필연적인 선결 조건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헌신의 부름을 받은 후 그분을 따르고자 결단을 내렸을 때 바로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도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핑계를 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서 보상을 놓치게 될 사람들의 손실은 이 땅에서 불순종하며 얻는 대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근거 없는 견해, 우리는 구원받은 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는 견해,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든,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간증을 보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견해는 전적으로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큰 두려움

바울의 사역의 비결은 그가 현재의 손실과 희생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이익을 바라보며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올바른 관점을 지녔기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것들을 미래의 영적인 눈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몇 절을 봅시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짚어잡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 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잡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8-11)

이 모든 시련과 환란 중에서도 바울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고후 4:14)

바울은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과 미래의 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 베푸실 보상을 염두에 두고 그는 다음과 같이 단호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고후 4:17)

바울은 자신의 지난 35년간의 박해와 채찍질, 투옥과 돌로 맞음, 욕을 당함

과 빈곤, 궁핍, 이 모든 것을 “잠시 동안의 가벼운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고백의 비결은 바로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고후 4:18)

잃어버릴지도 모름

바울에게는 또 다른 동기가 있었기에 확고부동하게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상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딤후 1:12)

그러나 바울은 육신의 나약함과 교활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만약 그가 예수님과 보상으로부터 눈을 돌린다면 자신도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시 잃어버릴 수 없지만 제자의 도는 우리 각자의 신실함에 달려있기에 상실해 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회복될 때까지 제자의 도를 상실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론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요이 8)

우리가 한 일들은 불순종과 부주의로 인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자기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려 상을 받아야 할 달리기

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전 9:24, 26-27)

바울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승점에서 받게 될 상급과 보상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규칙을 어긴 채로 끝까지 달려보야 왕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음(castaway)”은 구원의 상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상의 상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도키모스(adokimos)”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상 받을 자격을 상실했거나 인정받지 못함을 뜻합니다.

더 나은 부활

이 상급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실한 자들에게 부활과 더불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희생과 견주어본다면 주님을 만나 뵈는 때 받게 될 상급은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희생은 앞으로 받을 상급에 비하면 그저 “잠시 동안의 가벼운 고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미 하늘을 다녀온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

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빌 3:7-8)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구원을 얻거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행위 구원이나 노력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는 인상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기 위해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빌 3:9)

바울은, 구원은 자신이 행한 일이나 행하고자 하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만 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왜 모든 것을 기꺼이 잃어버리기로 했는지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빌 3:10)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자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분을 구원자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딤후1:12). 그가 알고자 한 것은 다름 아닌 “고통의 교제와 부활의 권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빌 3:11)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거의 승리를 쟁취했으면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확고하게 밀고 나아가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부활에 도달하려함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끝까지 노력하고 일하고 견뎌으로써 얻게 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은혜로 얻는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고 잘못하여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질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얻고자 하는 그 부활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 시에 특별한 보상을 얻고자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원어의 번역에 있어 어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스어로 죽은 자들의 부활은 “ek ton nekron”입니다. 여기서 “ek”란 “밖으로”라는 뜻이고 “anastasis”는 부활을 의미하고 “nekron”은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번역해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자들로부터 “밖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지만 그중에는 보상을 받을 자들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 받고, 충만한 보상을 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갈망은 부활하게 될 모든 성도들 중에서 보상을 받을 특별 그룹에 속하는 “더 나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다 타버리고 겨우 불로 인해 부끄러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바울은 모든 손실을 감당하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으며 그리스도의 고통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죽음에 일치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짐을 지닌 채 선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느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꺾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빌 3:13-14).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노라며 신앙 생활을 해 놓고 나중에 어리석게도 왕관을 놓쳐버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따라서 바울이 “내 몸을 억제한다.” “꺾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한 순간 방심해서 육신에 굴복함으로 죄에 빠져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채 열매 없는 여생을 보낸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부주의로 인해 신앙 생활을 망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바울이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중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주님의 칭찬:**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주님에게 눈을 고정시킨 채 달려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치른 모든 희생에 대해 “잘 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2. 주님의 본: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우리를 얹어매는 죄를 버리는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건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의 왕좌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3.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히 4:11) 이 말씀은 훈계의 말씀인바 뒤이어 승리를 위한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즉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히4:12-14).

4. 충분한 주님의 도우심: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도우시며 지원해 주시는 한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히 4:14-15)

이제까지의 엄숙한 경고에 대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다시 생각나게 되어서 떨리지는 않으신지요? 당신의 마음

은 승리의 확신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히 4:16)

지금 이 순간 이 말씀대로 그분께 나아가 승리를 주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10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히 5:9-10)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속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달려갈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롬8:29).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겠지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는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하고, 충분하고 적절한 공급하심을 우리가 잘 활용할 때에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보자이신 대제사장을 주셨고 그 대제사장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증보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지키시며 증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증보하실 그 누군가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고 또 죄가 없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맡고 계시는 책무는 믿는 사람들의 죄들을 중보하는 것이며 정결케 하시는 피를 적용하는 일입니다. 만약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살 수 있으며, 그리하여 죄 없는 완전함 가운데 있다면 중보자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믿는 자들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배우고 또 믿어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이에게 하늘은 보장되어 있고 그들에게 지옥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단지 영원으로 가는 첫걸음일 뿐이요, 하늘나라로 가는 걸음을 한 발 내디딘 것일 뿐 아니라 보상을 향한 걸음이기도 합니다. 이제껏 행해진 그 어떠한 행위도, 혹은 아직 행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그 어떤 행위도 믿는 자로 하여금 하늘나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고 믿는 자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구원을 가지고 믿는 자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승리하는 삶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왕관을 결정짓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음과 같은 사이비 교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늘에 가는 것을 보장받았다는 이유로 그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 없다거나, 혹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며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선악을 막론하고 회계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큰 손실을 당하는 반면, 신실한 자는 왕관을 받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고후 2:16)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히브리서 5장은 히브리서4:14부터 우리를 대제사장계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 대제사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을 돕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승리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돕는 대제사장계로 히브리서 5장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둘로 나타납니다. 그분들은 인간 대제사장인 아론과 신성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입니다. 세상에서 걸려 넘어지고 지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완전한 도움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제사장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걸려 넘어지고 지쳐 떨어진 우리들은 바울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빌 3:12)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완전해지는 것이므로 바울은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공허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사역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붙잡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

약함에 싸여 있기 때문이라.”(히 5:1-2)

아론은 사람들로부터 취해진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인성을 입고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또한 아론을 예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신성을 가지셨으면서 또한 인성을 지니고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은 인간을 대변하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의 영원한 신성으로 보건대 그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대제사장이셨지만, 그분의 성육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따라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은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자기 속에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먼저 자기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는 제단 앞에 멈춰서야 하고 그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아 있고 새로운 길을 따라 제사장은 자신의 죄로 인한 헌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제사장에게로 나와서 희생물의 피에 근거해서 죄 사함을 요구할 수 있었음을 레위기 4장이 증언합니다. 더 나아가 그 증보는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위해서도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 제사장은 정결과 용서를 제공하기 위해 임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피

를 바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지닌 상태에서 그 자신도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5:2에 말씀 하셨듯이 “그 자신도 연약함에 싸여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히 5:3-4)

평범한 인간이었던 아론은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섬김은 실제적으로 죄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오셔야 할 분의 예표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아론의 희생물은 일시적으로 죄를 덮을 수 있으나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죄로 인한 영원한 속죄 헌물로 바치기 전에는 깨끗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예표를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 이상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위한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라.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과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히 5:5-10)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제사장이셨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것이었고 그래서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상의 어떤 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속죄는 이루어져야 하고 오직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는 아론의 예표와 모형을 따라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영원하신 직분으로 우리가 인도되고 나서 그분께서 육체로 계신 날들 동안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가 인도됩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인간 제물로서 자신을 바쳤고 아론이 이스라엘을 위해 희생물을 바칠 때에 자신을 위해 먼저 희생물을 바쳐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속죄하시기 전에 타락한 인간의 수준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는 그분의 영원하신 신성만큼이나 인성도 필요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 인간의 수준까지 자기 자신을 굽히시고 낮추신 것은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려 하심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고자 함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즉 죄 없으신 그분께서 큰 통곡과 눈물로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실로 이것이야말로 아주 거룩한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눈물

과 피땀으로 하나님께 고뇌 가운데 울부짖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요 12:27)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상은 사망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으며 결국 응답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구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뭇의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그분께서 죽음 위에 군림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오해합니다. 그분은 죽으셨으나 응답을 받으시고 삼일 후에 일어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고난당함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완전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불완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완전한 구속자와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히 5:9-10)

구원의 창시자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고 대제사장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성취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부활로 인해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히 중보하시는 중보자로도 계시되신 것입니다. 아론은 죽었고 그의 사역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그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직분을 성취하고 완성하실 때까지 그것을 실제로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교훈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습니다. 당신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주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패배하거나 무기력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은 믿음에서 전진하지 못한 채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간곡히 부탁하고 권면하십니다. 그들의 큰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섬김의 안식과 믿음의 승리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수신자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정 기간 구원받은 상태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갇난아기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 성령께서 이와 같이 책망하십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히 5:12)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말씀의 기초조차도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계으름에 대한 변명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으름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조명과 가르침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게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영적인 유아에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어떠한 핑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6장이 다음

과 같이 시작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히 6:1)**

지금은 유아기로부터 더 빨리 성장해서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많은 간청의 부탁을 듣고도 훈계를 소홀히 하여 계속 불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결코 승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결말이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들은 빛 비춤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으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나가 다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들은 이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결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겨우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 즉 건축과 나무와 지푸라기와 같은 일들은 불타서 연기 가운데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불 가운데에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에 이르도록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그 지점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더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점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깊이 찔러서 당신이 왜 신앙 생활에 실패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아직은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이 성경의 충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신앙 생활의 실패를 인정하고 간절하고도 뜨겁게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요청한다면 당신은 은혜 가운데 자라고 있는 것이요,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요일1:9)

이 구절의 말씀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외면하지는 마십시오. 이 엄숙한 경고들을 다 뺏개치고 이 구절이 당신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즉 강박하게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한다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경고를 받은 후에도 성령님의 찌르심과 권면하심과 요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혹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당신이 원망이나 원한을 품는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간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의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의 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히 3:12-13)

11

사망에 이르는 죄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히 6:4-6)

히브리서 6:4-6까지의 이 구절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하며 가장 논쟁이 많은 구절들 중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자들과 성경 학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날카로운 갈등과 충돌의 싸움터입니다. 이 논쟁과 충돌에 있어서의 슬픈 측면은 쓴 뿌리와 서로를 정죄하는 분위기 가운데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론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논쟁자들이 마음에 쓴 뿌리를 가지고 자기와 관점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가운데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직한 견해에 대해 상대를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대신에 이 논쟁은 너무 자주 상대를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아니면 교제를 단절하는 것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일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들을 깨닫는 대로 말씀의 빛을 조명 받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의 토론은 말씀의 빛 비춤보다는 자신들의 열을 발생시킬 뿐입니다. 열을

내면서 싸운다는 말입니다.

경고의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기 위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서로 다른 차이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인답게 행동하자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진리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당신을 풍성한 은혜 안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본문 말씀을 정직하고 겸손하며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혹 당신이 전에 배운 바가 있고 은혜 받은 바가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살펴 바른 길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은 전문적인 성경연구가나 신학자나 설교자는 아닐지라도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은 주님을 바로 아는 일이고,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은 그분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며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권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 내용들 중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전통적으로 알려진 해석과는 차이가 있거나 반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반화된 교리와, 흘러들어 검증되지 않은 어떤 일반적인 상식과, 어떤 이단이 가지고 있는 견해들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점진적인 빛 비춤과 조명에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전통적인 교리라고 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조명을 더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은 지식이나 참된 진리를 통하여 얻게 되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어떤 설교자나 성경 해석자도 오류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흠이나 실수가 전혀 없거나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서 아주 슬프고도 위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래된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는 오류에 관한 것들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있는 오래된 전통의 예를 들자면 유아세레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우리의 의견이 일반적인 전통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들어 말하지 않고 혹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워한다면, 이 역시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못하며 자신의 영적 성장에서 아주 슬프고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속이는 자 마귀는 오류를 진리로 알도록 갖은 흥계를 꾸밉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공식적인 종교계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은 이단이셨고 바울도 전에 회원으로 있던 산헤드린 공회의 눈에 비취볼 때 그도 역시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두 견해

자, 이제 우리는 본문4-6절을 다시 검토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을 잠시 접어두고 미리 마음먹은 관점에서 벗어나서 모든 전통과 이미 습관적으로 정해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극히 객관적으로 다시 배우는 심정으로 한번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대립하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 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히 6:4)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히 6:6)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첫 번째 의문은 히브리서 저자나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에 달려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서신을 받는 대상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냐? 혹은 기록자는 구원받았는데 수신자는 구원받지 못했는지가 확실해져야 해석도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첫째 그룹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구원을 받았다가 그 후에 떨어져 나가 배교하거나 아니면 타락해서 결국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다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은혜로부터 떨어져나간 자의 교리”라 부릅니다. 이 가르침은 어떤 한 사람이 거듭날 수 있고 그러다가 하늘로 가는 도중에 어떤 죄들을 저지르거나 믿음을 잃어버려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결국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견해에 반대되는 또 다른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자들이 결코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인데 그들은 한때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결코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히브리인들 중에서 외적으로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자들로 사도들 앞에서는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며 애초에 거듭난 적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는 자들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지, 어째서 이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하면, 한번 은혜를 받으면 영원히 은혜를 받은 것이며,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는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 두 견해들

이상은 성경학도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들인데 오늘 우리는 이 모두를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이 그들의 주장대로 성경의 나머지 구절과도 일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만약에 이 구절이 가르치기를 어떤 사람이 오늘 구원받았다가 타락해서 다음 어느 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다시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6절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어떤 인간이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는 소망이 없겠지요? 그에게 다시 주님께 나아와 주님을 시인하고 구원받으라고 다시 그를 초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6:4-6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한 때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타락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와서 다시 구원받으라고 초청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성경

은 분명하게 한번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다시 구원받으라고 하면 모순되는 주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전에 한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락했고 다시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십시오. 당신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은 완전히 허구며 성립이 안 되는 자체 모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들이 참으로 의미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잘 정리해 봅시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들의 견해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으면 영원히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구절들에 대한 참된 해석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칼빈주의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제로서 사랑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스코필드 성경의 관주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문의 수신자들을 “구원받았다가 타락했다”고 말하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맞지 않으므로 구원받을 뻔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스코필드 성경의 히브리서 6:4-8의 주석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경우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로, 구원의 현관문까지 다가가서 성령님과 함께

거의 동행까지 했다. 즉 성령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확신을 주기까지 했다고 말하나, 그들이 실제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까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 (page 1295, Footnotes, 스코필드 주석의 내용 참조) 스코필드 성경 주석은 구원받기 직전까지 갔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6:4-8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직전까지 갔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모든 근본주의자들이나 칼빈주의자들이 따르는 교리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인척 할 수는 있지만 구원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6:4-8이 가르치기를 한번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회개할 수 없고 다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자들에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이야기 했듯이 “당신은 멸망으로 영원히 가 버린 거야. 왜냐하면 두 번 다시 회개가 안 되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칼빈주의 친구들은 이 해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주장하기를, 이들은 결코 구원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백만 하는 자들이었고 구원을 소유한 자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억해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성

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다니기만 하고, 종교적인 행위만 했는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회개할 수 없다고 했으니 만일 어떤 사람이 입으로만 시인했다가 나중에 그 신앙이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교리는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인데, 과거에 거짓으로 신앙고백을 했다는 이유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채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나아와서 구원받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 몇 십년 동안 교회에 다니다가 구원받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삼십년간 교회에 다니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무엇인가?

어느 주장이 옳습니까? 이러한 견해에 진리의 일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모두 전체적인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기록자의 관심사는 구원의 상실이 아니라는게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결코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새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는 얼마나 우울한 복음입니까?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다시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문맥을 잘 연구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거듭난 믿는 자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은 그들이 경험한 성령의 많은 열매들로 인해 증명됩니다. 즉, 히브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간에 제시된 많은 성령의 열매들로 봤을 때 그들은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린 자들도 아니고, 구원받은 척 하거나 구원받을 뻔한 입술로 고백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 믿는 자들은 상당히 오랜 동안 구원받은 상태로 있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의 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는데 그 후 그들의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완전함으로 더 전진하는 대신에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담대하게 당신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5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의 핵심(열쇠) 주제는 전적으로 영적 성장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히 5:12)

이미 오래 전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마땅히 성숙했어야만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로 젖을 필요로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자는 히브리서 6장을 다음과 같은 간절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6:1)

완전함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누가복음 8:14에도 쓰였는데, “가시나무 가운데 뿌려진 씨들이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는 그

완전함은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절박한 경고가 뒤따라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성장했던 믿는 자일지라도 길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 결과, 주님의 징계를 받고 그는 사역을 박탈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일에서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비록 그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용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끝나버렸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등잔대를 옮긴다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일들이 불로 시험받게 될 것이며 그런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보상을 잃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죽기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고전 3:15)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다. 그는 그 사실을 오히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상과 왕관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파한 뒤에 어떤 부주의한 순간에 육신에게 굴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쪽으로 제쳐짐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딤후 1:12)

그러나 바울이 두려워했던 그 뭔가가 있었으므로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전 9:24, 26-27)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동시켰습니까? 그러나 조심스럽게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실함에 대해 말하고 있고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보상과 상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당신은 지금 구원받으려 하늘을 향해 달리지 않고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 여기 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고갈된 자, 즉 죽은 믿음의 소유자는 달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경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자랑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 있고,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는 사용하지 않고 선반에 올려놓은 물건을 보듯 지켜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배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으로부터 해고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나무와 건초와 지푸라기가 타는 것같이 타오르는 연기를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불 가운데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버림받았다(castaway, 고전9:27)”라는 단어가 개역성경(Revised Version)에서는 “거부되었다(rejected)”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받은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왕관을 얻는 것과 받을 유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유업의 소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상급을 위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더욱 이러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꾀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빌 3:13-14)

우리는 바로 이 구절이 히브리서6장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후 경주는 시작됐는데 가다가 중간에 믿음에서 넘어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고와 훈계가 여러 번 반복된 후에도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더 사용하지 않

고 일할 수 없는 곳에 올려놓아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루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사역자로 부름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각 지체들이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조명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뻔뻔스럽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의 결과가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 지상에서는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 가운데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요,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거룩하고 신성한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는 죄를 의도적으로 계속 짓는 것이야말로 분명히 주님의 징계를 부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전 11:28, 31-32)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성경이 은혜와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는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주의와 방종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제멋대로 해도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말 거듭나기는 했는데 다시 죄에 빠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겉보기에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타락했으며 그 이후에 회개한 증거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죽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다 피 아래 놓이게 되었다면 그 후에 어떻게 살던지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들이요, 끊임없이 제기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여러 그룹들이 이 질문에 답변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그 질문은 다름아닌 “죄 가운데 떨어져서 다시 회개하기 전에 죽은 그러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통해 답을 제시합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교리로 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다시 잃어버렸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그룹은 다른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된 자들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휴거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해야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것

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독자 중에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나온 설명들 중 옳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답변보다 나은 답변이 있습니까? 이들의 답변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 나은 답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의 해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 즉,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은 채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의 빛에 조명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니 바울은 가르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지은 죄를 스스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징계하시며 그 징계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고전 11:30)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고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의 징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약하게 되거나 질병을 통한 징계가 그들을 바로 잡는 데 실패하는 경우 하나님의 자녀를 죽음으로 데려갈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기록자도 히브리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히 12:11)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징계에도 불구하고 단련이 안 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징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신 쓴뿌리가 생기고 더 반역적이 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고(고전 11:30), 이 땅에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등잔대를 옮겨 버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반 위에 올려 놓고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논쟁이 많았던 히브리서 6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인용하겠습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히 6:6)

이것은 결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징계에 관한 문제이며, 정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한 엄숙한 경고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그와 같은 경고가 여러 번 나옵니다. 히

브리서 2:1에 보면 사도는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4장 1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의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이 경고 역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승리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극명하게 서로 구별되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안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둘째는 섬김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안식이요, 다른 하나는 보상의 안식입니다.

믿는 자들도 이르지 못할 수도 있음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6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믿는 자에게 쓰였고 그들의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구원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1에서 수신자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4:15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4:16에서 그들은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갈 것”이라 합니다. 6:4-12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즉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증거는 믿는 자들에 대한 묘사에서 발견됩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

는 자들에 대해 그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회개가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기초 원리들을 떠나 “구원의 안식”과 “섬김의 안식”,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6장을 깊이 살펴보시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히6:4-5)

만약 이 내용이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이 성경으로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도저히 깨달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6장의 이 구절에는 믿는 자들의 다섯 가지 표식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들은 한번 빛 비춤을 받았습니다.
2.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습니다.
3.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4.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5. 그들은 예언, 즉 오는 세상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미래의 예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작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즉 그들은 단지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묘사에 대해서 답변을 시도해 보았으나, 그들의 어떤 시도도 이 구절을 잘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회심도 하지 않은 죄인들이 복음의 빛 비춤을 보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결코 완전히 소화하거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참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만약 진짜로는 성령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래서 성령님과 단순히 어울리기만 했다고 주장한다면, 즉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봅시다

이와 같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장이 과연 다른 성경 구절들에 비추어 볼 때 옹호할 만한 주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빛 비춤을 받았다”든가, “맛보았다”든가, “참여자가 되었다”든가 하는 단어는 어떤 곳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거룩한 성령께서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알게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선 빛 비춤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는 “photizo”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의미하는 바는 “보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빛 비춤을 받았다는 뜻으로 본문 4절과 에베소서 1:18에 두 번 번역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조명을 받았다는 말로 히브리서 10:32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18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곳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히 10:32)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그 적용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4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받아 “본다(to see)”는 의미도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3에 하신 말씀은 틀린 말씀이 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요3:3)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는 자는 다시 태어난 자, 즉 구원받은 자입니다.

“맛보다”와 “보다”

맛본다는 단어는 “genomai”라는 그리스어인데 경험하는 것이요,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히브리서 2:9에도 쓰였으며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만 보고 말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죽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경 교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맛보는 것과 먹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자신들의 억지 교리를 옹호하려는 것일까요? 동일한 단어가 베드로전서 2:2-3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도 맛보았다는 것은 체험으로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볼 때에 “맛보다”는 단어의 의미는 실제 경험을 말함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그것은 단지 만지기만 한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자

다음은 성령에 참여한 자입니다. 자, 이에 덧붙여서 이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데 그들이 단지 성령님께 동의하고 함께 동행했다는 의미일 뿐 성령님을 결코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결코 인침 받은 적도 없고, 성령이 내주하신 적도 없고 성령으로 침례 받은 적도 없고 성령으로 충만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구원과 성령 침례 등 자세하게 풀어 쓰지 않고 “성령에 참여한 자”라고만 간단하게 말했다며 아무 의미도 권능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 치심, 내주, 침례, 충만이란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마치 “삼위일체나 휴거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어디 있느냐?”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 수신자들은 분명 거듭난 믿는 자로서 성령께서 내주하셨던 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참여자(partakers)”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네 번에 걸쳐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히 3:1, 14, 6:4, 12:8, 10). 그리고 이것은 “동료들”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서 1:9에 한번 번역되었습니다.

다같이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그 단어들이 쓰여진 구절들을 찾아보고 과연 그러한가 대조해 봅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히 3:1)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히 3:14)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요 아들이 아니니라.”(히 12:8)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히12:10)

이상 네 구절 외에도 다른 몇 구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여한다”는 뜻은 그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9에는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동료들(fellows)이라는 단어는 참여자들(partakers)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9:10에도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라고 우리 믿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2:6에도 약간 다른 형태로 사용됐는데 그러나 의미는 동일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딤후 2:6)

고린도전서 10:17, 베드로전서 4:13, 베드로후서 1:4도 참고하십시오. 이 모든 경우 끝까지 최고의 정도로 다 나누어 갖는 것, 즉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히브리서6:4을 다시 봅시다. 이 내용은 “성령에 참여한 자들인데도 그들이 넘어질 수 있고 또 떠나려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구절이 어떤 해석 법칙에 의해 완전히 참여한 자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 예가 뒤에 더 이어지는데, 동일한 흠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가시를 맺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땅을 잘 경작하였다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그 땅을 소홀히 하면 가시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좋은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중에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100배를 맺었다고 합니다. 장차 모든 사람들이 행한 일이 다 불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에 은혜의 구원을 소홀히 하고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 얻은 가시나무들은 다 타서 연기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의 경고가 효력을 발생해서 구원뿐 아니라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즉 구원과 함께 성장하여 열매도 맺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랑의 일과 수고를 기억하시며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 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 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히 6:10)

그리고 나서 11절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히6:11)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그분께 순종하고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한 경우에 충만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보상과, 확신과,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여” 라고 하신 마지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조심스럽게 걸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눈을 더 좋은 것들의 목표에 고정하고 히브리서 6장의 징계와 경고의 결론이 얼마나 적절한

지 한번 깊이 상고해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
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히 6:12)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죄는 다 냉정하게 판
단하고 스스로 심판하고 그분께 고백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십시오. 그렇
게 되면 우리가 강력하게 경고를 받고 있는 그 심판을 더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늘의 제사장 직분

히브리서는 엄숙한 경고의 책입니다. 13장에 걸쳐서 많은 훈계와 위험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경고하며, 불법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위험 신호등을 설치해 놓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이탈하고 그 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의 각오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동족과의 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물론 민족과도 갈라서는 것입니다. 이전에 연결되었던 것이 다 끊기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동료들과,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로부터 가장 멸시받는 이단 종파였던 기독교라는 그룹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광신자라고 하는 이단으로 간주되었고 땅의 찌꺼기 같은 자들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옛 종교와 그 사회적인 관계들과 완전히 갈라져 결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도 많았기에 그들의 믿음은 그리 길지 못했고, 생활과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러한 입장을 타협하려는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두 담 위에서 양다리를 걸쳐야 하는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발은 율법을 딛고 다른 한 발은 은혜를 딛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앙의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쁨과 간증과 보상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에 포상(incentive)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주님의 칭찬이요, 미래에 받게 될 보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승리의 획득을 위해 주님께서서는 예수님을 통해 본을 보이셨고 권능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언제든지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 편에 계신 대제사장께서 중보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양하게 배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에 실패하는 것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믿음에 실패하는 것은 주님의 징계를 불러오고 그 징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부할 히브리서 12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징계가 무시되고 멸시되는 경우 주님께서서는 더 강력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로서 쫓대가 옮겨지고 한 쪽으로 제쳐지고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히 6:6)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요 보상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은 후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버

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자 독려하십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시도는 말씀에 의해서 권고되고 반복되는 경고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도가 무시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용하시는데 그 징계는 연약함과 병약함과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형태를 띠 수도 있습니다(고전 11:30). 이 말씀은 아주 엄숙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징계에 의해서도 단련 받지 못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자를 죽음으로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야 불로 정결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무엇인가 경종(alarm)을 울립니까? 아니면 당신은 혹 그 말씀에 분노합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것처럼 엄하게 자신의 자녀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까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스스로 물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징계가 아무리 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던져 버리셔서 우리를 지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식의 위치에서 버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저는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기력한 믿음으로 불법 가운데와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고전 11:23). 한 번 당신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오, 어떤 것이 더 좋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때에 징계를 통해 당신을 고쳐 주시고 당신이 정결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손실을 당하게 하시는 것과, 불 호수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내버림을 당하게 하시는 것,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어떤 것을 당신은 더 좋아하시는지요? 그 답변이야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강한 징계를 잠깐 동안 당하는 것이 영원을 지옥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를 바로잡으시기 위해 때로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본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는 히브리서6:13-19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믿는 자가 실패하고 떠내려가는 것에 대해 경고하신 후에도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하면 신속하게(hastens) 징계하시는데, 이는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는 예를 들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분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는 믿는 자들이 그들의 확신과 소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명심해야 할 것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부지런하라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을 유지하기 위해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히 6:22). 그리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보상을 상속받아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히 6:12).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주어진 인센티브가 있는데, 우리의

신실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하는 사실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심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더 큰 이를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히 6:13-1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똑똑함이나 장점이나 신실한 행실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목적은 그 어떤 것도 변경시킬 수 없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덧붙입니다.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히 6:15)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실함같이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렇게 확인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분명히 보여 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써 확증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후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히 6:17-19)

이 얼마나 복된 확신입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딤후 2:13)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신실하신 그분은 실패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의 실패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회개하도록 하는 동기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도록 이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과 정결을 위해 모든 필요를 제공하셨으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을 바위에 튼튼하게 매어있어 움직이지 않는 닻에다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의해 흔들릴 수도 있고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닻은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닻이 휘장 안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진대 감사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며 힘을 얻지 못할 자가 누구입니까?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히 6:20)

히브리서의 다음(7, 8, 9) 장은 삽입장에 해당됩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 세 장에 설명하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시요,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그 세 장에다 정리해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삽입에 해당되는 세 장에는 우리가 배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과,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여 회개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모든 필요가 기록되

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용서를 제공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은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잘 섬기고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6장과 10장에 나오는 준엄한 심판은 실로 우리를 낙담시킬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도록 하기까지 이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절망감으로부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공홀이 많으신 대제사장에 대해 아주 선명하게 묘사하는 내용이 이 두 엄숙한 경고, 즉 6장과 10장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 죄들을 범했다고 생각되어 내가 버림받은 자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그분께 나아가 회개함으로써 그와 같은 심판이 당신에게 이르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공홀을 구한다면 당신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붙잡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 1:9)

대제사장을 바라보자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에 관한 세 장에 도달했고 그분의 백성을 대신해서 그분이 하신 사역을 다루는 내용의 세 장에 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왕이며 대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 관해 기록된 곳이라고는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에 짧게 언급된 것이 전부입니다. 이 신비로운 인물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혹은, “그는 특별한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특별한 사자임에 틀림없다.” “노아의 아들 셈”이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그는 강한 천사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 자신이든가 아니면 주님의 예표이든가 둘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히 7:2). 그의 조상은 신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버도 없고 어미도 없습니다. 날들의 시작도 생애의 끝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예표합니다.

왜 그가 소개되었는가?

그렇다면 왜 이 인물이 여기 히브리서에 소개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의 “회개 불가능한 죄”에 대한 경고와 히브리서 10장의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경고 사이에 멜기세덱이란 인물이 왜 소개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주신 최상의 것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목적 때문에 대제사장인 그분이 하나님 왕좌 오

른편에 중보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등장하게 된 멜기세덱을 창세기 14장의 기록이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롯이 소돔에 살고 있는 동안 그 도시는 공격을 받았고 네 명의 강력한 왕들의 군대에 의해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소돔왕을 사로잡아 갔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당한 재앙의 소식을 듣고 아주 담대하게 318명의 종들로 구성된 잘 훈련된 작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는 소돔이 빼앗긴 모든 노획물을 다 되찾아왔고 롯과 그의 가족들도 구출했습니다. 전쟁의 규칙에 따르면 그 노획물들은 승리자에게 다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노획물들을 자기가 차지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통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시험에 굴복했다라면 그것은 그의 간증을 망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에게 매우 큰 영적인 시험거리였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의 도덕적인 간증은 다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약함을 알고 계셨고 물질적으로 큰 이득을 쟁취하는 이 기회에 굴복할 위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 도움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는 다름 아닌 가장 높으신 지존자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그가 모든 것의 십분

의 일을 그에게 주니라.”(창 14:18-20)

아브라함이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을 쟁취할 시험에 직면했고, 잘못하면 그의 간증을 잃을 위협에 놓였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제사장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훨씬 더 뛰어난 것을 갖고 있으니, 곧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너의 후원자요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의 후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는 부요하게 되고자 의심 갈 만한 거래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상기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멜기세덱은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 지어다.”(창 14:19)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듯했습니다. “너는 갈망하는 눈초리로 그 망해버린 소돔의 노략물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아주 가치 없는 시시한 물건들에 불과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아, 너에게는 그와 같은 물건들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네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수천 개가 넘는 언덕들에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때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을 잘 상기합니다. “아, 전쟁을 내가 이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셨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멜기세덱의 다음과 같은 말에 아브라함이 십분의 일로 반응합니다.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그가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니라.”(창 14:20)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속삭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전리품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오직 나를 신뢰하라. 소돔 왕이 제공하는 그 시시한 전리품들을 거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보상하겠노라. 네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내가 더 큰 보상을 하겠노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그는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때에 소돔 왕이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취하라”(14:21)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이것은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 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창 14:22-23)

승리, 승리

아브라함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명의 강력한 왕에게 거둔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둔 것은 자신의 욕신의 욕망을 이긴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는 자아를 정복하고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셨습니다.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창 15:1)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중보자로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후원자들을 받아들이려는 시험에 직면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우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기 위해 빵과 포도즙을 가져왔듯이, 그분께서는 주의 만찬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죽으심과 부활의 기념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 성공하고 싶다면 세상과 협력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와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입장을 선포하는 것이 인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뜻하고 물질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가난과 파산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행실을 용납하도록 시험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경계선상에 빠지도록 시험당할 때도 있습니다. 의심쩍은 행실을 하도록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사회나 또는 경제적인 거래에서 깔끔하지 못한 행동을 불사하면서 우리의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간증을 흐리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자는 시험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위하여 온전하게 되라. 깨끗지 않은 것에는 손대지 말라.” 때로는 거룩하게 분리된 신앙 생활이 너무 큰 희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담대히 신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희생을 아주 가치 없고 시시하고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요, 우리가 손을 대기만 해도 조각나버릴 것 같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

님의 자녀 된 독자여, 담대히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큰 이득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이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져 가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장난감들은 이름에 불과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거하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히 13:5-6)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나라.”(히 7:19)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구원받은 후 그분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도록 해 주지만 믿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은 그를 제자가 되도록 해 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그분의 제자는 아닙니다.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된 섬김과 분리의 삶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거저이지만 제자의 도는 대가를 포함합니다. 그 대가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말합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도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단순히 믿는 자로 만드시는 일만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성도들을 제자들로 만들기를 추구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결과로 믿는 자들이 생기지만, 믿는 성도들을 가르쳐야만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두 사명은 마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8장에서 발견됩니다. 첫째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

이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명은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요즈음 인기를 끄는 복음 사역에 전념하는 분들에게는 거의 잊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구원받고 지옥으로부터 피하여 하늘로 가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을 완전히 향유하고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이 더 풍성하게 향유되고 또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와는 사뭇 다른 사명을 마태복음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미 앞에서 언급한 그 사명과 같이 이 또한 우리에게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마 28:18-20)

마가복음16장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명령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사명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명은 섬김의 권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권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은 받았으나 권능 없는 성도로 살 수 있지만, 제자의 도를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 이 사명의 목적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믿는 자로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가르친다”는 단어의 의미는 “제자를 만든다”는 뜻이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란,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배운 바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1:29이 가르치는 진리와 똑같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만약 당신이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선생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요, 그 말씀의 교훈을 부지런히 배워야만 합니다.
3. 제자의 도(道)는 그 안에 이미 순종을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제자는 우선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필수 조건으로 믿음이 강조되어 있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것을 다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마 28:20).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부담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교훈이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서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그리

스도 안에서 갓난아기”였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이지만 제자의 도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히브리서 5:12입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들은 단순히 믿는 자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옹당 성장을 해야만 하고 단단한 말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충고가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6:1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희생과 분리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자의 도는 커다란 희생을 수반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상당히 인기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 반해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멸시받는 그룹에 편입 시키는 것이요, 아주 소중한 전통과 사귀를 모두 내 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선택된 민족의 지체들이요, 아주 놀라운 종교 의식과 경배 의식을 갖추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감동을 주는

종교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숙한 명절에 익숙해 있던 자들입니다. 그것은 유월절, 속죄일, 그리고 무교절 같은 타 민족이 갖지 못한 주의 명절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아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여러 민족들 중, 가장 교양 있고 종교성이 있는 민족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자신을 일치시켰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경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경배하는 유대교인들과 함께 명절도 더는 지킬 수 없습니다. 명절에 어린양이 희생물로 바쳐질 때에 그 군중과 함께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편 유대교인들 측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배교자들이요, 몹쓸 염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제나 교리 문제에서도 그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이나 그들이 즐기는 명절에도 더 이상 흥미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이 루엇도다.”(요19:3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행해져 오던 그 그림자들은 실체에 모든 것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동물의 희생과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것과 제사장들의 섬기는 모든 것이 이제는 텅 빈 모방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신비로웠던 휘장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

실 때 찢겨졌고, 옛 경륜은 지나가 버렸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떠나기가 어렵다

전통주의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의 대중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감동적이고 장엄하고 의식으로 치장되고 텅 비어 있는 공허한 종교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은 공허한 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뒤로 버리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감동적인 종교의식은 더 찾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황금 성전도 없습니다. 멋지게 옷을 차려입은 제사장 직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적 형식주의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시험은 아주 강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만 타협한다면 그들의 신앙 생활은 훨씬 더 쉬워지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제자의 권능을 잃어버릴 것이요, 보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주의 징계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엄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7장부터 9장까지는 구약 시대의 율법의 제도와 은혜 아래서 새로 누리는 자유와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대조적인 모습이 훨씬 더 눈에 띄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께서 주실 보상을 사모하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면 이는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이 세상에서 잠시 인기가 넘치는 쉬운 길로 가며 보상도 없이 끝나는 것보다 우리가

가는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당신은 더 성숙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7, 8, 9장, 그리고 10장의 일부를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다 강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주석서에 잘 다루어 놓음으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은혜가 율법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예표) 보다도 얼마나 더 뛰어나신 분인가를 보여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7, 8, 9장이 기록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동물의 피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7, 8, 9장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음의 다섯 가지보다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낫습니다.

1. 그리스도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낫고(7장)
2. 그리스도는 광야에 있는 성막보다 더 낫고(8:1-6)
3. 그리스도는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보다 더 낫고(8:7-13)
4.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있었던 모든 희생 제사보다 더 낫고(9:1-15)
5. 그리스도는 희생 제사에 바쳐진 모든 동물의 피보다 더 낫습니다(9:15-28).

아론보다 더 나은 분

첫째,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은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죄인이었고 자기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도 희생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더구나 율법 아래

에 있어서의 제사장 직분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일을 다 마치기 전에 제사장은 죽었고 그의 자손들에 의해서 그의 섬김은 지속되어야만 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유다의 지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레위 지파에서 나온 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제사장께서는 유다의 왕가에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유일한 제사장은 또한 왕이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죄는 없으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떤 왕도 제사장이 되도록 허락받은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제사장도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 즉 왕과 제사장이 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덕분에 그분은 멜기세덱을 뒤따르는 분이요, 다름 아닌 “의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이 사람은 항상 계시므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히 7:23-25)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너희 히브리인들이여, 어찌하여 너희 옛 종교를 뒤돌아보느냐? 그리스도 안에 훨씬 더 나은 것이 있는데…” 반면 진리를 알고 경건한 자들에게는 아마 다음과 같이 외칠지도 모릅니다. “오, 너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여, 왜 너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왜 옛 생활을 자꾸만 뒤돌아보느냐? 왜 종교와 율법에 관한 것들로 매달리려고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집트에 있는 그 고

기 가마를 탐내느냐? 양파와 부추와 세상의 마늘을 탐내느냐? 완전함을 향해 성장하라.”

성막보다 더 나은 분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월등하심과, 모든 것이 충족되심에 대해서 그 다음의 논쟁은 성막의 건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 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 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네게 보여 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히 8:1-5)

가장 완전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의 가장 완전한 예표는 광야의 성막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은 광야에 있던 성막이었습니다. 그것은 “만남의 천막”이라 불렸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한 장소였

으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연합하는 곳이었습니니다. 이 건물의 모든 부분은 가장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인 물질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은 주님의 구속을 의미하고 있고, “금”은 그분의 신성을 말하고 있고, “나무”는 그분의 인성을 말하고 있고, “놋”은 그분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진설병”은 생명의 빵을 의미하고, “등잔대”는 그가 세상의 빛이심을 말하고, “향단”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신 중보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예표로서 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며, 그것들의 실체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히브리서 9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 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시매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 하였으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히 9:2,3, 6, 7, 11, 12)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특별한 사역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백

성의 잘못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바치는 일이었는데 여기서 “잘못”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무지(無知)의 죄”(모르고 짓는 죄)를 의미 합니다. 반면에 의도적이요, 고의적이요, 미리 다 계획된 죄들은 심판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보았듯이 이것들은 율법 아래에서 심판으로 예표되어 있었습니다(21, 22).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어 맡기는 일에 실패하는 죄와 이미 알고 있는 죄와 그리고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집을 부리는 죄는 우리 주님에 의해서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면 우리가 어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제공하신 승리의 수단들 즉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간증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그분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피에 의해서 완전한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죄의 속임수가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하고 당신의 확신을 질식시키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전에 지금 그분께 나아와 빈손으로 그분을 왜 만나려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모든 것과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제공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순종에 대한 그분의 보상의 약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마 25:21)

15

율법과 은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리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히 9:27-28)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새롭게 된 사람은 두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옛 사람의 성품과 새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두 성품은 계속해서 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옛 성품은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고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태어날 때 물려받았습니다. 새로운 성품은 두 번째요, 나중이며, 거듭남에 의하여 받게 되었는데 바로 성령에 의하여 다시 태어날 때 받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장자가 우선권을 갖고 둘째보다도 더 지배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아들의 법칙이며 나이 많은 연장자가 더 우선권을 갖는 법칙입니다. 장자는 일정한 권리와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장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아담의 성품 역시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새로운 성품에 대해서 아주 우월감을 갖고 자기 자리와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 의해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갈 5:17)

옛 성품은 자기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인간을 통치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변화를 가져왔고 자연의 행로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들의 자연적인 순서를 뒤바꿔 놨습니다. 옛 율법의 자리에 새 은혜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자연의 법칙에 의하여 이스마엘이 첫째인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요, 인간의 수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말씀하시기를,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창21:12)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롬9:12-13)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에서가 분명한 장남이지만, 은혜에 대해서는 첫째가 나중이 되고 나중이 영 안에서 먼저가 됩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첫 번째 출생한 육신을 진멸함으로써 오며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게 하는 데서 승리가 오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얻은 교훈

지금 당신에게 말씀드리는 이 서론이 바로 히브리서의 공부에 조명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율법주의로부터 구원받았고 여러 가지 규례의 율법으로부터 구출되었으며 그리고 은혜의 자유 위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에 여전히 매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 안으로 줄곧 미끄러져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

들의 옛 종교와 타협을 합니다. 그와 같은 입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첫 사람 아담보다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무한한 우월하심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그림자에 불과한 아담의 경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과 예표와 상징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리스도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도 훨씬 더 나은 직분으로 제시됩니다. 그분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었습니다(히7:1-17).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성막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오셔야 할 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서는 모든 섬김보다도 더 나은 분으로 제시되었습니다(히8:1-6). 본문에는 옛 언약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시다는 사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그 어떤 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율법은 오히려 완전함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사람에게라도 저주와 정죄를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오백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에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종교 의식법과 규례들도 있었고 천오백 년 동안의 투쟁과 수고와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천오백 년 동안 완전한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온 우주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만 율법에서 실패한 것으로도 모자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완전히 지켜내신 단 한 사람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주에서 제일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율법을 성취하셨고, 율법이 원하는 짓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율

법의 행위가 하나도 필요 없이 구원을 은혜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제공하고 계십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추측할 것입니다. “자 이만하면 족하지 않느냐?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는 율법 아래에 놓이지 않도록 해 준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인간의 옛 성품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끈질기고 적극적인지,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대신에 자아와 육신의 행위로 되돌아 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에서 나타난 모습으로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어나?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갈 3:3)

이것이야말로 또한 히브리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다시 율법주의를 향해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옛 성품은 율법에 푹 젖어 있어서 종교 의식과 여러 가지 예표와 그림자 같은 종교 제도로 물러서므로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바로잡음’이라는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주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보다도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는 사실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 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

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대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히 8:6-8)

이스라엘의 예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이여,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언자를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경건한 왕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언약들을 주셨고 완전한 율법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떨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약속의 땅은 약간만 남아 있고, 그들은 이방인들 사이에 다 흩어져 살고 있으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과거에 정복한 자들의 도구와 노예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어찌해서 그들은 오늘날 이와 같이 아주 비참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왜 다 전세계로 흩어졌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실패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새 언약이 체결될 때이므로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히 8:9)

성경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배우라. 그리고 율법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너희의 노력을 중단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히 8:10)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교훈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붙들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딤후2:11)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부인하고 세상의 욕심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딤후2:12), 하지 않은 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래 전에 배웠습니다. 육신을 더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굴복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나은 피

자신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논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희생의 피에 있음을 믿고 나 자신도 피흘림에 동참하십시오. 은혜의 새로운 언약은 최종적이에요, 더는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그분의 완성하

신 사역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깨질 수 없는 인치심과 확실한 보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 논증은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히 9:16-17)

죽음에 의해서 확정되기 전에는 그 어떠한 것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유언자가 죽기 전까지는 그 유언은 바뀔 수가 있고 취소될 수가 있고 파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한 사람이 죽으면 그 마지막 유언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효력이 있게 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피흘림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벨의 희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동물들의 피가 그와 같은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 그리고 그 구속의 대가는 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모형으로 보여준 모든 짐승의 피로도 죄를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증거로는 그들이 계속적으로 동물들의 피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이고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흘려진 그 피의 제사는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젠 우리도 연습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히 10:2-4)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하여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히 10:12)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히 10:14)

그러므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그분은 그것을 완전하고 죄 없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피로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유언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유언에 대해 살펴봅시다. 오늘날 어떤 한 사람이 죽으면 그의 유언의 집행은 다른 사람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그는 그 죽은 자가 미리 쓴 그 지시를 따르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그의 재산은 그 죽은 자의 소망에 따라 유언장에 기록된 그대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유언 집행관은 그 죽은 자의 소망을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의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흔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법원조차도 그 유언한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어렵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다른 사람은 그 유언에서 배제시켜 버렸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집행관이 인간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유언장 안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 재산을 그 죽은 자가 진짜 바라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쌍한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가 유언장에 쓴 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와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다면, 고인들 중 다수가 일어나 의분에 차서 무덤 속으로부터 나와서 그 재산이 자기 의도와 달리 다루어진 것에 대해서 항의할지도 모르고 그 외에 유언이 잘못 해석된 것에 대해서 항의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불의와 왜곡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언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어떤 때는 하나도 수행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나 보도상으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유언자의 친필 서명이나 도장이나 날자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그분, 우리 주님은 죽었으나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유언하신 분이 살아계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유언은 이 세상 사람들의 유언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분은 자신의 유언을 작성하셨고 그 유언을 우리에게 남기셨는데 그것은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으실 때에 그것을 자신의 피로 인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즉 그 유언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시행되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집행관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언을 죽음으로 인치시고 그 유언이 합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하신 후에 그 유언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동시에 유언 집행자와 재판관으로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 집행관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시며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권위를 가지시고 그분의 마지막 유언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수행하십니다. 이 사실이 히브리서10:9에 얼마나 놀랍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이요 둘째 언약이야말로 첫째 언약의 효력을 폐합니다. 첫째 언약이었던 율법은 제거되고 둘째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유언입니다. 첫째 언약 아래에서는 모두가 다 정죄 받았습시다. 그러나 마지막인 둘째 언약 아래에서는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현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히 10:10, 14)

그리고 나서 그분은 자신의 유언을 집행하시기 위하여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히 10:15)**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주님께서 당신에게 남겨주신 그분의 유언장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히 여겨야 합니다. 관심을 뒤야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유언으로 당신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는다면, 그 상속자들은 아마 고인의 유언장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유언장을 열기까지 조금도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유언장 내용이 궁금해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도 차마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구원의 상속자들이 자신들의 상속에 대해서 것처럼 관심도 보이지 않을까요? 아주 고귀한 약속들이 들어있는 성경책을 읽는 데 거의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 그들은 그분께서 그 유언장 안에 공급하시는 것들을 알아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

것들을 즐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 놓으신 그 부요함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까지는 영원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요 17:24)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있는 일시적이고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마음을 기울이십니까? 그러기에 주께서 다음과 같이 골로새 교인들을 훈계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골3: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16-19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히 10:26)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은 반대 주장자들에게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비난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잘못 전파한다는 비난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죄를 짓는 면허증, 즉 구원의 단번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허가장을 내 주는 복음이요, 성도로서 느슨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주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고 한 번 받은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 받는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다음엔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때위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에 걸맞지 않은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은혜만 믿고 죄를 마음껏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사로서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답지 못한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 가운데

데 떨어져서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치욕을 끼치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증거를 찾아봅시다. 노 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죄가 없는 완전함이 요구된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해결책, 두 가지 치유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용서와 정결함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는 레위기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희생물을 제시해 주셨음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의 죄(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죄(Omission), 반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으로 저지른 죄(Commission)입니다. 셋째는 더럽혀진 죄(Defilement)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할 때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9에 우리도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미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저 모른 척 하시고 그에 관해서 다 잊어버리고 마십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은 후로 지은 죄는 다 덮어주시고 다 잊어버리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모든 것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해

결됐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할 것 없이 다 용서하시고 덮고 잊어버리십니까? 아니면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어서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성경은 둘 중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는데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면? 성경은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올바른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면 위험한 복음을 전한다는 비난을 정당화하는 꼴이 됩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들은 은혜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무어라고 비난합니까? 위험한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면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지옥에서 나온 저주받을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서두에 예를 든 것 같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구원의 영원한 보장만 가르치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은혜, 은혜하면서 거져 받는 공짜 은혜만 전파하는 것은 은혜의 책임에 대해서 균형 잡힌 진리를 빼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짓게 되는 죄에 대한 징벌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의 구원을 부끄럽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이 지상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도

우리가 손실을 당할 수 있다는 교리는 가르치지 않고, 은혜나 공짜만 가르치는 것은 실로 싸구려 복음이며 위험한 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주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보내십니다. 이 징계는 회개하지 않은 성도의 몸이 약해진다든가 질병이 걸린다든가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형태를 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할 경우, 이 세상에서 데려 가시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의하여 심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고전3:14-15). 오늘날은 은혜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영적 나태함과 주님의 경고에 대한 무관심과 성경교사들의 게으름, 그리고 영적 성장에 필요한 다른 것은 가르치지 않은 채 오직 은혜의 복음만 전파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아주 잘못된 인식 즉,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수준낮은 성도들이 양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고의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벌을 받지 않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비록 믿는 자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해결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을 소홀히 여김과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를 지심으로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구속을 소홀히 여기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주의한 순간에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다 다툼을 벌이고 싸우다가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 후 그들과 어울림에 대해 회개한다면 주께서는 나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한쪽 눈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싸운 것과 다툼 것에 대해서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잃은 눈을 다시 만들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흉터는 영원토록 나로 하여금 그것이 기억나도록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나서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항상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흉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덮기 위한 살인까지 한 후 그가 치러야만 했던 그 대가가 얼마나 컸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바를 배워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죄인이 진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와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여 그분을 자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에 그는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의무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함께 깨닫는 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순종하면 하늘에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습니다. 그가 혹 불순종의 죄를 졌다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됨을 알면서도 고의로 계속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자의적이고 지속적인 불순종은 죽음에 이르는 죄에 이르게 할지도 모를

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 죄는 주님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1.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 징계하실 것입니다.
2.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고전5:5, 11:30) 심판하십니다.
3. 그가 사역자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실격되어 촛대를 옮기시고 버림받은 채 내버려 두십니다(고전9:27).

믿는 자들 중 많은 이가 그들이 저지른 실수와 죄들의 흉터를 가지고 다녀야만 하며, 그 흉터는 육체적인 죽음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믿는 자들의 육체적인 질병과 죽음도, 대부분 고백하지 아니한 알고 지은 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냥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할 때까지 ‘네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완악하게 계속 고집을 피우는지 회개를 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들도 세상으로부터(Egypt)는 분리되어 나왔습니다만 승리의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러면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0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두 부분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든 바와 같이 같이, 성도가 고의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상의 것에 미치지 못하는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6장에서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히브리서 10:26-39의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이 두 장은 배교(falling away), 즉 떠내려가는 것(회개 불가능하여 죽음에 이르는)과 고의로 짓는 죄(sinning willfully),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엄숙한 경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 두 군데 다 죽음에 이르는 죄와 연관이 되는데, 절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을 받느냐, 혹은 잃느냐에 관련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심각한 경고가 있는 6장과 10장 사이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히6장과 10장 사이 7장과 8장과 9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세 장은 가장 완전하고 자세한 예수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7장 8장 9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류를 저지르는 죄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의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는 것이야말로 두 가지 경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회개와 우리의 죄들을 고백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넘어짐으로부터 지켜 내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믿는 자도 내버림을 당할 정도까지 미끄러지는 것에 대해서 남을 탓하고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 8, 9장에 잘 제시되어있는 것처럼 하늘에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며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히 4:14-16).

우리에게 하늘에 대제사장이 계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 우리가 실패했을 때 대제사장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긍휼을 베푸기 위해서입니다.
2. 우리로 하여금 다시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지켜 주시기 위해서, 혹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신데도 그분의 섬김을 무시한 채, 그분의 사역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지식과 조명에 의하여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문제를 히브리서 10장에서 다루고 있습

니다. 좀 길지만 히브리서 10:26-31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 같은 격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 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얼마나 엄숙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내포된 것을 바라본다면 참으로 떨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글의 저자는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두려운 메시지를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당 안 된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 받는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아들이는 칼빈주의자들은 이를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고의적인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시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메니안 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히브리서 6:4-6에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칼빈주의자들은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고 구원에 가까이 왔었으나 진실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구

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전달되었을까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에 관해서 저자가 이 편지를 썼을까요? 만약에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에 대해서 실수하면 성경 해석에 서도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가장 흔하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이 문장이 자기들에게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결코 거듭난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으나 박해가 일어나자 유대교로 되돌아갔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히브리서10장의 기록 의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10:26의 바로 앞의 문맥을 살펴보기 위하여 19절부터 시작하는 문장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히 10:19-20)

모든 성도나 학자들은 히브리서 10:19-20 말씀의 대상이 “거듭난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그들은 “형제들”이라 불리었고, “지성소 안으로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 했으므로 그들은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시므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히 10:21-22)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에도 의견의 충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오직 거듭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집에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고 오직 믿는 자들만이 충만한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집 안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므로 여기에 아무런 논쟁이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 봅시다.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3-25)

그 누구도 이 구절 또한 믿는 자들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라”고 훈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이 한 신앙 고백은 거짓 고백이 될 것이고 거짓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라고 충고 받을 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선행을 하라고 훈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훈계 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곧 오시니까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저는 이 대상자들이 거듭난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진실로, 참으로 완전히 회심한 자들이요,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구절들이 해당된다고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 구절에서 충격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 같은 격노에 대하여 두 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 있느니라.”(히 10:26-27)

주목하십시오. 앞 구절과 26절은 논리적으로 중단이 없고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여전히 거듭난 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단절 없이 계속해서 우리(We) 즉 믿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렇다면 그 어떤 성경 해석의 규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논리와 어떤 이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학자들과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그냥 앵무새처럼 의무감에서 그 이야기를 따르고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19-25까지는 믿는 자들에게 해당된다고 해 놓고 갑자기 다음 26절에 가서 이것은 구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할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인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말하기를,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절에 관한 균형 잡힌 해석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히 해 둘 것은 우리(we)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주님의 사역자요, 주 안에서 형제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구원받은 자들이 고의적이고 주제 넘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엄숙한 경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빛의 조명을 받았고 분명한 경고도 있었고 훈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찌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5절까지는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26절에 나오는 사람들도 문맥상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주제를 열린 마음으로 깊이 검토해 봅시다. 물론 전통적으로 알려진 해석 방법들을 버린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도 이 사람들은 거의 믿을 뻔하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주장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추구는 지속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잠 4:18)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공부해 봅시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진리와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요. 어떤 진리냐? 거저 받는 은혜를 전파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거저주시는 은혜에 대해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책임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잡아놓지 않으면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롬 6:1-2)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심판이고, 우리로 하여금 보상을 받도록 하는 심판입니다.

17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히 10:31)

이 구절은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것이냐를 알려면 31절 앞에 있는 구절들을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일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0:26-39까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앞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 구절은 결정적으로 “우리가”라고 했는데 이는 히브리서 기자도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아서 더 나은 영적 빛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성도를 말하며 이러한 진리의 지식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모르고 짓는 죄나,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은 죄나, 더럽혀지는 죄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로 짓는 죄”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면 온유한 영으로 회복시키라는 갈라디아서 6:1의 경우가 아닙니

다. 베드로처럼 나약해진 순간에 두려움이나 육신에 굴복한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마 26:70). 오히려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자의적인 죄를 말합니다. 더 많은 은혜의 체험과 조명을 받고 있으면서도 뻔히 알고 짓는 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죄 같은 것(행5)을 말하며 구약에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린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 같은 것을 말합니다(레10:1이하).

더 이상의 희생물이 없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 같은 격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 있느니라.”(히 10:26-27)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용서하고 정결케 할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와 같은 자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질병이나 약함이나 혹은 죽음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고전 11:30) 그런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불같은 진노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고 아주 고집스럽고 불순종하게 유도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불같은 진노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 있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고의로 죄를 짓는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시는 대신에 먼저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그 대적으로부터 희생당하는 자신의 자녀를 빼앗아 오십니다. 마귀에게 아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매를 대서라도 되찾아 오는 것이 그분의 사

랑입니다. 히브리서10:27에 언급하고 있는 심판과 불같은 진노는 회개한 탕자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마귀가 성도를 미혹하여 타락시키려는 계획을 좌절시키면서 다른 편으로는 실수한 자녀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

이 진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동일한 경우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헤어날 길을 제공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히 10:28)

이 진술이야말로 이 본문의 해석에서 핵심 열쇠(key) 역할을 합니다. 본문은 지금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율법은 분명하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 줍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 신성 모독, 안식일을 어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 살인, 도적질, 거짓말, 그리고 음행 같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지 율법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은 죄들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누구도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금지된 이러한 죄들을 고의적으로 어겼을 경우에는 용서를 위한 그 어떠한 희생물도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죄는 그저 죽음이 그 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대제사장이 증보할 수 있는 죄는 세 종류입니다.

1. 무지의 죄(Sins of Ignorance)
2. 행하지 않는 죄(Sins of Omission)

3. 더럽혀지는 죄(Sins of Defilement)

이 죄들은 각각 죄 헌물과 범법 헌물로서 완전한 해결책이 제공되었습니다.

무지의 죄

무지의 죄(Sins of Ignorance)는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짓는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레위기4장에서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만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그것이 집회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들이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범한 죄가 알려지면 회중은 그 죄로 인하여 어린 수소를 드리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갈 것이며 회중의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자기 손가락을 그 피의 일부에 담고 주 앞에서 곧 휘장 앞에서 그 피를 일곱 번 뿌릴 것이며...죄 헌물의 수소에 한 것 같이 그 수소에 한 것 같이 그 수소에 그리할지니라. 제사장 이들을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들이 용서받으리라.”(레 4:2, 13-15, 17, 20)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행하지 않는 죄

행하지 않는 죄(Sins of Omission)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안 일에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레 5:1)

더럽혀지는 죄(Sins of Defilement)도 있습니다. 셋째는 더럽혀지는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레 5:2)

이와 같은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해결책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레5:5-6)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자신의 자녀들의 약함에 대해서 용서가 가능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실수라든가, 그들의 잘못이라든가, 그가 모르고 지은 죄라든가, 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은 죄라든가, 더럽혀진 죄들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셔서 다 알고 있는 죄인 살인죄, 간음이나 우상 숭배 같은 죄들을 고의로 짓는 자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헌물도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보면 고의적인 죄가 처벌받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관련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살펴 보아도 이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출 21:14)

이 죄의 기록에 대한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자의로 저지른 죄와 고의로 저지른 죄,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 ‘내가 살인하면 반드시 나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은 죄 등 그 결과를 분명하게 경고 받고도 지은 죄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는 주께서 “내 제단에서라도 그를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주의 제단은 제아무리 죄값을 치러 준다 하더라도 고의적인 죄를 지은 자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다윗 왕 시절의 군대장관 요압도 죄를 지은 후 자기가 제단의 뿔을 붙들고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그를 끌어내어 죽이라 명령했습니다(왕상 2:28이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친다든가, 어머니를 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간음을 한다든가 분명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과 또 다른 자의적인 죄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율법 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28절을 다시 봅시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히 10:28)

이는 알지 못하여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죽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데도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계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히 10:29)

그들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시 한 번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로 묘사되어 있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계 죄를 지은 이 자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둘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언약의 피로 자기가 거룩해진 후에 다시 그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히 10:30-31)

“주가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주께 고의적인 죄를 지은 자는 피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불순중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계속 죄를 짓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의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백성이요, 아들이지만 결국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증거

마지막 논증은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다음에 묘사된 단어들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버림받은 자가 받을 위협에 대해서와 그리스

도인들에게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지혜로운 충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히 10:32-33)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역시 구원받은 뒤에 고난도 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과 동료 역할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열매도 보입니다. 즉 그들은 빛 비춤을 받았고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치욕을 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히 10:34)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거둬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열매도 맺었고 그 증거가 보여 주듯이 히브리서 기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동정심을 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겼고 그들의 재산도 히브리서 기자를 위하여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

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확신의 문제

이제 더 많은 증거가 점점 더 쌓이는 것을 봅니다. 다음의 훈계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히 10:35)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확신(confidence)”과 “보상(reward)”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35절은 “너희의 구원을 버리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확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 위험은 보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히 10:36).

보상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한 일을 따라 심판 받게 됩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보상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자는 보상을 빼앗기고 유업을 잃을 것이지만 그들도 불에 의한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가운데 보상 없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 줍니다. 고린도전서3:12-15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이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히브리서 10장의 훈계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것입니다. 회계 보고를 할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히 10:37)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때에는 다른 어떤 것도 계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마무리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히 10:38)

여기서의 경고는 뒤로 물러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왕관을 향해서 앞으로 힘써 달려가는 대신에 뒤로 물러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로 이것이 10:26에 경고의 시작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히 10:26a)

바로 이 이야기가(drawing back)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이 “뒤로 물러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뒤로 물러나는 자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까? 혹은 단지 보상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손실을 당한다”라는 말입니까? 답변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뒤로 물러난다”라는 단어 해석을 누군가가 혹 잘못할 것을 염려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히 10:39)**

여기 마지막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는 자가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미끄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듭남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설 자들이 아니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라고 마지막 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합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가장이라도 됩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
것을 거두리라.”(갈 6:7)**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무는 영원토록 제거됩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죄책은 제거됩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더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요 5:24). 그러나 이 은혜의 구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가능하고(히2:3),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련하신 최상의 축복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히4:1),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상기해야 합니다. 우

리의 구원이 거저 받은 것이요 무료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을 바깥으로 드러내어 일하는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Work it out”(빌2:12) 일하여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여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밖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언젠가 회계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음의 경고에 주의합시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골 3:23-25)

18

믿음의 승리

히브리서11장은 성경 중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로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살았던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히 11:33-34)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단순한 믿음의 장 이상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어서 바로 이 11장에 이 내용이 등장하는 데는 엄청난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10장의 고의로 짓는 죄를 다루다가 곧이어 이와 같은 엄청난 것을 기록합니까? 우리는 히브리서의 주제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승리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엄숙한 경고입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것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으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갓 난아이의 신앙에서 더욱 성장하도록 호소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핵심은 “경고와 호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혜의 기회들을 흘려보낼 위험성에 대한 것(2:1),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히2:3), 승리에 미치지 못할 위험성에 대한 것(4:1),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르게 될 위험성에 대한 것(5:12)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순종할 경우에 끔찍한 결과가 생길 것이 반복해서 진술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바로잡으심을 거부하며 말씀에서 너무도 멀리 가 버려서 그 마음이 강박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다시 그들을 회개케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지경입니다. 고의적인 죄를 짓는 것, 의도적인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한 믿음의 실패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스스로 심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면 우리에게 “배교”(떠내려감)라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겐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이 나는 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가지, 바로잡아 주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결코 정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잡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불신자의 구원에 관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엄하게 다루시면서까지 그들을 바로잡아주고자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징계하지 않고 곧바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2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고 완전함으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누가 충분한 자인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것처럼 엄히 다루신다면 도대체 누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경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획득하거나 받을 수 있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승리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승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믿음의 확신을 확고하게 끝까지 굳게 붙들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승리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중보자요 대제사장 이신 주께서 돕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몇몇 예들을 우리에게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다윗, 사무엘, 그리고 많았으나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선배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자들이며 흠이 많으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조 명보다 훨씬 더 적은 빛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일시적인 패배나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이나 뒤로 물러서는 것,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반대들에 맞서며 그들은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물론 승리는 싸움을 의미하며 싸움이 없는 곳에는 또한 승리도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원은 거저 받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훈련이 전제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예들 중에서 몇몇을 살펴보면 승리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다. 그러나 대가에 앞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능토록 해준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쉽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나누어집니다.

1. 믿음에 대한 정의(1-3절)
2. 믿음의 예들(4-32절)
3. 믿음을 통한 승리의 대가(33-38절)
4.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의 보상(39-40절)

믿음의 정의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달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히 11:1-3)

이것은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주목해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웨스터 사전에 나온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정의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웨스터 사전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신적인 계시의 진리에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권위에 근거해서 의지를 확실하게 일치시키거나 혹은 마음을 거기에 일치시키는 것, 생각(mind)뿐만 아니라 의지(Will)와 마음(heart)도 일치시키는 것, 전적인 확신, 혹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혹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교리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확신하거나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에 대한 정의인데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킴으로서 그분의 인도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하거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도 불린다.”

이와 같이 믿음은 동의하거나 일치시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누군가의 말에 근거해서 그 어떤 증거나 그 어떤 입증만 한 것 없이도 내가 볼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것, 느낄 수 없는 것, 맛볼 수 없는 것, 냄새 맡을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참되다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로 요약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문 1절에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사람들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 더 이상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권위의 원천

믿음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가? 이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관한 둘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둔

그 사람의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한 말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말에 우리가 믿음을 두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신뢰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신뢰성과 평판에 근거했습니다. 만약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한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평판이 있으며 사전에 신뢰감을 가질 수 없다고 입증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 두기를 거부합니다. 반면에 그가 오랫동안 신뢰감을 쌓아왔고 그 사람을 믿을 만 하다라는 평판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감히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마찬가지로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인 성경적 믿음도 그 누군가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획득되는데 다른 어떤 증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누군가의 말을 믿음으로써 얻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을 가짐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입증이 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의 평판에 의해 그분을 믿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대한 평판은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그분을 신뢰한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거나 실망해 본 적이 없으므로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5:9-10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

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
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마지막 문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것을 믿으라
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에 관한 예로 히브리서 기자는 창조의 기록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
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히 11:3).

자연인 즉 본성에 속한 사람은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셀 수 없는 많은 추측들을 양산해 냅니다. 그런데 그 추
측들 중에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론이라 하는 것
은 이론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므로 그 진술들이 확정되기도 전에 거의 다
폐기됩니다. 증명이 되기도 전에 이론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창 1:1)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내버리든지 창세기 1:1보
다 더 나은 답변은 결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이요, 최종적이요, 참됩니
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고 질문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셔야 할 의
무가 없으십니다. 또한 인간에게 신용이라도 얻고자 머리를 굽히실 필요도 없

으십니다. 성경의 첫 구절을 믿으면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의 첫 장 첫 줄을 믿지 못하므로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에 이르는 열쇠

그렇다면 창세기 첫 구절이 첫 믿음의 예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창세기 1:1을 믿으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무(無)로부터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난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건대,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것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해가 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창세기 1:1만 확실히 믿는다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고, 모든 기적들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과 하나님이 동시에 될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고,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가 곧 하나님의 피요, 그 피가 당신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성경 말씀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당신이 죄인이란 사실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믿게 됩니다.

믿음의 예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의 정의를 내린 후에 믿음의 권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구원만 해 주는 권능이 아니라 승리를 가져다 주는 권능입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믿음이며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핵심이었습니다. 이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던 갓난아기들이 영적인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를 얻는 권능,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부담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16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다 공통적으로 있는 잘못과 약함을 그대로 지녔습니다. 그들은 한때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넘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어섰고, 회개했고, 인내했고, 그리고 결국 승리할 때까지 다시 전진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경험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승리는 쉽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서 승리는 자아의 희생을 동반했습니다. 아벨의 승리는 그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했고, 에녹의 승리는 절망적으로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만 동행하고자 했을 때 세상으로부터의 칭찬이나 갈채를 받지 못하는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노아의 승리는 그에게 실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배를 지으며 말씀을 전파했는데도 단지 자기 가족 일곱 사람만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는 그에게 이삭을 희생물로 드리도록 요구하는 시험을 통해 쟁취했습니다. 그 시험에서 그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어 이삭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삭의 승리는 그의 의지를 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를 속인 자였습니다.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어야만 하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야곱의 승리는 절름발이라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왔습니다. 그는 브니엘 땅의 압북 여울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렸을 뿐 아니라 타국의 지하 감옥에서 총 13년을 인내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부귀영화와 왕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승리의 값을 치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머지 모든 믿음의 영웅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

이들은 모두 다 단순한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승리는 희생을 통해서 쟁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겹세마네 동산과 갈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의 보상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가져다 줄 치욕과 손실을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분리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의 대가가 너무 클까봐 두려워서 당신은 뒤로 물러서 있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초대장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네 위에 내 멍에를 지라. 그리고 내게서 배우라.” 하는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로마서 12:1-2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세상의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승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의미합니다. 상처와 흉터와 실망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므로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유업과 왕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음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히 11:35-38)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에게 그런 정도로 희생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이와 같은 혹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바치라고 요구하면 불평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라고 말씀하실 때, 죄로 가득한 쾌락들을 금하라고 명하실 때, 악한

것과 타협을 거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는 곧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맙니다. 그분께서는 주님을 위해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증언 때문에 우리가 돌로 맞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방해받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일을 거부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분을 위해 것처럼 작은 희생을 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롬12:2)는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집단의 사람들이라든가 광신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내고 있으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끌려서 세상과 짝을 이루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두려움과 타협 없이 굳게 서 있기를 외면한 결과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상실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빌 2:5-8)

19

믿음의 보상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에서 21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라는 표현이 5번 나오고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13번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승리한 믿음을 기록한 믿음장이라 부릅니다. 이들 믿음의 영웅들은 구원에 이르는 단순한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에 보상과 유업이 더하여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희생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와 섬김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조용히 멈춰 있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함을 향해 끊임 없이 나아갔던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를 가져오도록 해 주는 성장하는 믿음이요, 발전하는 믿음이요, 증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 사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항상 초보 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는 자들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의 현실적인 필요에 관해서는 그분을 선뜻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상한 역설입니다. 자신들의 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매일 생활에 있어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참으로 묘한 역설이 아닙니까?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의해 그분의 손에 자신의 영원의 운명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매일 매일의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 그들의 건강, 그들의 사업, 그리고 소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가 걱정합니다. 이유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라면 그분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적은 믿음

“적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작은 믿음으로는 완전한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큰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큰 믿음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제자들은 “적은 믿음”으로 인해 꾸중 하셨습니다. 반면에 가련하고 내버려진 이방인의 한 어머니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나?...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

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마
6:25, 28-30)

이 말씀은 주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녀는 메시아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할 만한 법적인 권리도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고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마 15:26)

이 말씀도 그녀는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꾸중은 그녀를 즉시 낙담시켰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녀를 자녀들의 빵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불쾌하게 여기는 대신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마 15:27)

그녀는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어떤 모욕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몸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두고 그분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그녀에게 보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대로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지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마 15:28)

믿음이 적은 자는 그 대신에 육신의 자존심은 크고 강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그저 구원을 받기에만 합당할 정도의 믿음입니까? 당신을 지옥으로부터나 건져낼 그러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당신이 썩을 육신을 벗어날 때 딱 하늘나라로만 데려다 줄 믿음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기본적인 믿음인 지극히 “적은 믿음”입니다. 아니면 당신의 믿음이 자라나고 더 성장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써 구원보다도 더 나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입니까? 그래서 주께서 주실 유업을 기다리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구원받은 믿음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구원에 덧붙여 그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치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것처럼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히 11:35)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에 동참하는 정도보다는 훨씬 더, 그 이상의 그 무엇을 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부활보다 더 나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이런 큰 믿음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별개의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받은 적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발전시켰을 뿐입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실천하고

성장하고 자란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에 불과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젖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권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Let us go on to maturity)고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의 비밀이 마태복음 6:28에 인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마 6:28b)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백합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와 태양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들을 잘 수용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에는 세 단계로 언급된 세 명의 믿음의 영웅에 의해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로 단지 세 사람만이 믿음의 모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 세 단계를 예시해 줍니다. 이 세 사람은 순서대로 배열되었습니다.

1. 아벨은 -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2. 에녹은 -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3. 노아는 - 믿음으로 견디며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제단에서 양떼의 첫 새끼를 드려 경배했

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믿음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주께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희생물로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에 언급된 사람은 에녹인데 그는 삼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벨과 같은 참된 경배의 결과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시대에서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세상에게 입증해 줍니다. 그 일 후에 홍수 이전 시대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 자로 방주를 지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모세 오경도 같은 순서를 보여준다

우리는 성경 첫 다섯 권에서 이 순서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책 창세기는 사람의 기원과 그 타락을 기록한 책이요,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 온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에 의하여 이루어진 구별과 구속의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구속받은 백성과 더불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속받은 목표는 승리의 땅 가나안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가 끝이 아니고 모세의 세 가지 책이 더 나오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레위기는 경배에 대한 책이요,

2. 민수기는 하나님과의 동행하여 걷는 책이고
3. 신명기는 일하는(행위) 책입니다.

구속의 책인 출애굽기의 뒤를 이은 책은 레위기인데 희생물과 섬김과 성막에서의 경배를 위한 율법과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민수기가 나오는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가 나오는데 이 책은 그 이름이 암시하고 있듯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으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십계명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받아 복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율법 책인데 많은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우기 전까지는 결코 바르게 걸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는 결코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의 경배에 더 관심이 있으시므로 만약 우리가 먼저 창조주께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저 육신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동물의 행동과 다를 것이 없다고 여기십니다. 우리가 걷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본부에 가서 우리의 걷는 것과 행할 일을 위해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일이나 활동이 거의 효과가 없는 이유는 행위보다 경배가 앞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최상의 섬김이 되려면 그녀는 마리아가 취한 것을 먼저 취해야만 했습니다. 에녹에 앞서 아벨이 있고 노아에 앞서 에

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벨의 바른 경배가 먼저 있어야 하고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이 있는 뒤에 노아의 순종하는 일 즉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한 섬김이 열매가 없고 낙심되는 경험의 반복입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데 얼마의 시간을 보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명령을 받았는가? 기도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셀 수 없는 종교적인 많은 활동을 하느라 너무나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의 결핍으로 인해 우리는 무능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매일 당신은 경배에 얼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주보를 보면 두 페이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광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클럽 모임, 사회적 활동 모임, 무슨 위원회 모임, 무슨 운동 시합 계획, 교회 바자회, 저녁 식사 모임 등, 그런데 영적인 열매는 너무도 적고 결과도 너무나 없습니다. 기도 모임이야말로 일주일 동안 가장 적은 수가 참여하는 모임이라고 할 만합니다. 주님께 경배를 위해서는 성도가 소중히 여길 만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위해서 일꾼을 찾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요 4:23).

그리고 나서 걸으라

이제 경배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기도 생활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건강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걷는 일(행동)에 반영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았을 때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
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
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행 4:13)

우리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보낸 시간만큼 우리의 걸음걸이에 반영될 것입니
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걷는 그 걸음이 수치스러운 정도를 겨우 넘는
다면 정말 우리의 간증은 너무나도 미약할 것입니다. 주님과과의 교제가 확실하
고 나서야 선한 행위가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경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 걷는 것이 올바른 간증이 될 때까지는 우리의 행위와 일은 별로 쓸모가 없
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관점

이 모든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승리자 영웅들의 기록에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올바른 경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에게서, 일하며 복음
을 전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에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생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벨은 그
의 형제 가인의 증오를 대면해야 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만 했었습니다. 노아는 그가 마른 땅위에
오랫동안 방주를 지을 때, 그리고 다가올 홍수의 심판을 전파했을 때, 군중들
의 놀림과 조롱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승리는 당신의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들 믿음의 영웅들은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순간과 현재를 뛰어
넘어서 멀리 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시험을 미래의 관점
으로 바라보고 험한 장애물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희생을

영원이라는 저울에다 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보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믿음”에 만족하지 않았고 정복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결승점에서 상급을 얻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겪어야 합니다.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에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히 11:6)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한 채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비웠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히 11:10)

이렇듯 구약의 승리자들은 멀리 있는 보상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 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 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히 11:13-14)

이 히11장에서 반복되는 승리의 비결은 미래의 영광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복자들은 고문을 당했고, 시험을 당했으며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그런데도 구출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히 11:35).

더 좋은 부활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것 즉

몸 된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첫째 부활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단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만이 이에 동참할 것입니다. 누구나 승리하지 않고서는 승리자의 왕관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에 근거해서 보상은 배분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같이 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기대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못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신실한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획득하게 되겠지요? 우리보다 제한된 빛과 제한된 기회들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현재 그들보다 더 많은 빛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약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11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마무리됩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히 11:39-40)

그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나 그들이 죽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에도 즉시 보상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상을 받기 위해 나타나게 될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데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달릴지라도 시상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께 신실했다면 땅 위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딤후 2:12a)

따라서 이들 구약 성도들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히 11:40b)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습니다. 반면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의 보상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과, 주님과 함께 걷는 것과, 믿음을 통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춘 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앞서 간 승리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이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엮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1-2)

20

지켜보고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양하고 폭넓은 비유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비유들은 믿는 자의 경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갓 거듭난 자는 어린 아이로 비유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 곧 신앙 생활입니다. 성도들은 또한 양으로 비유되었고, 영적인 집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성전으로 비유되기도 하며 농장이나 순례자, 군인, 신부(新婦), 몸의 지체 등 다른 여러 가지로 믿는 사람이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멋지고, 잘 표현한 성도의 신앙 생활은 바로 운동 선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 선수는 상급이나 트로피를 얻기 위해서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도입부의 광경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엮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히 12:1)

이 비유는 넓은 육상 경기장에서 달리기하는 경기로부터 나온 비유인데 수많은 응원단과 팬들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응원단과 팬들은 구름 같이 많은 증인들이나 관중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관람석에

는 층계마다 열정적인 구경꾼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경기를 응원하고 관람합니다. 관중석 아래 트랙에는 육상선수가 머릿속에 오직 한 개의 목표만을 가지고서 달리고 있습니다. 오직 결승점을 향하여 달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갈망하는 상급을 목표로 하고 달립니다. 초대 교회 당시 흠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달리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 있는 운동 경기였기 때문에 이 비유는 그들에게 낯설지 않고 매우 친숙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신앙의 여정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증인들

이 육상 트랙의 그림에서 히브리서 12장이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객이고, 다음은 선수들이고, 다음은 달리는 사람들이 받게 될 상급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급을 받는 순간은 언제나 하면 그들이 목표지점을 통과한 다음입니다. 이 경주에서 달리게 될 선수들은 시합에 출전할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거듭난 자들입니다. 지금 달리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며 오직 선수들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서 계신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사용할 수 없고 발걸음 하나 옮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상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쳐 쓰러질지도 모른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은 것이며 중간에 다 지쳐서 쓰러지고 실패할 것이다.” 저는 어떤 사람이 매우 열정적으로 그의 교회 회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아주 잘못 배운 사람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옮겨 봅니다. “저는 오늘 단 네 단어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고린도전서 9:26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I therefore so run)’ 라는 네 단어인데 오늘 제 설교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요점은, 당신은 하늘나라에 도착하기 위해서 달려야 합니다. 둘째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빨리 달려야 합니다. 셋째 당신이 하늘나라에 도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그는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 회중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하늘나라에 너무 늦지 않도록 달려라, 엄청나게 빨리 달려라, 쉬지 말고 계속 달리라고 강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회중들에게 계속해서 달려가고, 뛰어가고, 물을 만나면 수영도 하고, 산에선 기어 올라가고, 그리고 하늘까지 날면서 천국에 가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언뜻 능력 있는 설교요 정렬적인 웅변 같이 들리나 제가 듣기에는 살인 칠종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 뒤에서 그들을 독려하는 악에 받친 감독관의 울부짖는 발악 같았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설교자는 하늘나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설교자가 그럴진대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어떠할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자는 도둑이며 강도”(요 10:1b)**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자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유혹을 받았었습니다. 한 번 로마서 9:16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라고 요청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경주에 나서서 달리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히브리서 12장이 제공하는 전체의 교훈을 놓쳐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달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육신적으로 나약한 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마저도 갖지 못한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달리기 시합에 나설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달리는 것이라면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 또한 젖병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수 명단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젖을 필요로 하는 갓난아이이므로 그 경주에서 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요점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달리기 하는 데 예를 든 것처럼 약하거나 다리를 저는 자들은 아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도 못하는 꼴이 되는 것을 히브리서 12장에 쓴 게 아닙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달릴 수 있도록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아주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도록 자라라. 그래서 경주에 나가서 훌륭하게 달리기를 마쳐라. 너희가 성장하지 않으면 달리기 경기에 나가 봐야 이내 지쳐서 중단하고 말 것이다.

증인들

이제 당신은 본문의 경주에서 경기에 나간 사람들이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경기장의 스탠드에 앉아있는 증인들 즉 관객에게로 관심을 돌려 봅시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그 단어는 곧바로 이 관객들이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12장을 앞선 11장과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벨로부터 열거된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관객들인데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관객들 중에는 아주 유명한 올스타들이 있는데 그들은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기드온, 삼손, 다니엘, 그리고 많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엄청난 무리들도 과거에는 역시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경주를 다 마치고 관객과 응원단으로서 마지막 주자가 경주를 마치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시상식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객들이 구경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큰 구름 같은 증인들로 언급되었으며 이미 시합을 끝내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합의 규칙을 생각나게 해 줍니다. 이 구름 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은 하늘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의 무리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가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땅위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알고 있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 알고 있을까? 그들은 얼마만큼이나 보고 듣고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분들인데 이는 상당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아흔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눅 15:7)

그런데 이 기쁨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을 기쁨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10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기뻐하는 자가 천사들이 아니고 천사들의 눈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뻐하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매번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 뉴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아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땅 아래 있는 우리를 내려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지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이진 추측이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엄숙한 생각입니까? 저는 다음과 같은 일에 감격합니다. 혹시 나를 사랑하던 믿

음의 선배들이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투쟁하면서 달리다가 비틀거릴 때 나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이 나로 하여금 더 마음을 굳게 먹게 해 주고 더 열심히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던 선배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좋지 않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절제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나의 믿음 생활하는 것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의 실제적인 신앙 생활에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엄숙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엄숙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결코 감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같은 증인들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 역시 엄숙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를 보지 않을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들의 신앙 여정 기록이야말로 증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그들의 삶의 기록이 우리에게 증인 노릇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달리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왕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치 히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승리한 내용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인내했고 어려움을 극복했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소유하고 있고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져서 손실을 겪게 될 일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스로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게 될 처지가 된다면 우

리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이 올바른 해석 인지는 개인적 견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성도 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알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제공해 줍니다. 이는 달리기 경주에서 힘차게 전진 할 수 있는 유익입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경기 규칙을 어기지 않게 하는 강력한 억제제 역할을 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히브리서 12:1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히 12:1)

커다란 유익을 준다

증인들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유익을 줍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응원단 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달리기 하는 선수들에게는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 다. 선수들이 홈경기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관중과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 문에 그들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 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엮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 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히 12:1)

우리는 이 증인들과 이들의 격려로 힘을 얻고 모든 장애물을 벗어나야 합 니다. 우리의 달리는 것을 어떻게든 지체시키고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다 벗 어 버려야 합니다. 이 장애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거운 것들이고 다 른 하나는 죄들입니다. 육상 선수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겁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가장 좋은 운동복을 입고 달리기 가장 좋은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그리
한 의미로 쓸데없는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무거운 것
들의 하나는 비만 즉 지나친 체지방을 말합니다. 이 구절이 가르치는 것은 과
체중을 피함으로 최적의 컨디션이 되도록 하는 훈련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
합니다. 운동 선수들은 엄격한 식단(diet)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운
동도 해야 하고 엄격한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몸무게를 줄이고 달리는 데 필
요한 근육들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나친 비만(지방)은 최소한으로 줄여
야 합니다. 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볼 때 그러한 장애물이란, 그
자체로는 해가 없는 것들이지만 만약에 달리기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즉시
버려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쾌락이나
생활상의 사치스러운 것들을 말합니다.

히브리 그리스인들의 경우 지방분에 해당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
의 생활에서 누렸던 옛 지인들과 신앙생활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유대적이고
올법적인 여러 가지 규례들과 의식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
되었는데도 붙들고 있는 규례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분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지방분에 해당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습니다. 그 자체로 볼 때는 해나 죄가 되지는 않지만, 세상 친구들과의 사귄이
나 동창회나 술자리가 벌어지는 회식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즐기거나 지
나치게 빠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느슨해질 수도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사람
들에게 비방 거리가 됩니다. 일상 생활에는 가벼운 스포츠나 관광들은 즐겁고
좋은 일들이나, 그런 것들에 탐닉하는 것은 신앙의 방해물이 될 수 있고 사실

상 그 어떠한 합법적인 즐거움도 너무 집중하거나 빠지면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낚시 그 자체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항상 그것만 하다가 가정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진다거나 말씀 보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들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무거운 것과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한 사람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돈을 번다면, 즉 제일 좋은 차를 사고, 제일 멋진 집에서 살고, 유행을 따르는 명품을 좇으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무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섬김에 사용된다면 그 돈버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늘 앉아서만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허리 운동을 하기 위하여 골프를 친다면 그것은 죄가 전혀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므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골프 광이(golfbug) 된다면, 그 골프는 죄를 짓는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프로 야구팀의 모든 선수 이름을 알고 있는데 비해 신약 성경 27권의 이름을 다 못 외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와 지침이 신약 성경 안에 있는데도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여 그에겐 그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당신의 사업도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업에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거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내지 못한다거나 영적인 섬김의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당신에게는 너무 바쁜 사업이 무거운 짐입니다. 당

신의 사업이 영적 성장과 영적 개발에 방해가 된다면 당신의 사업을 반으로 접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리를 신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에 믿는 자들이 말씀과 경배와 기도에 그가 사회 활동하는 데 들이는 시간의 절반만큼만 투자하면 이 세상을 아예 영적인 열정으로 불태워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일에만 텔레비전을 보는 만큼만 시간을 드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식단에 해당되는 만큼 영적인 식단에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약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소화 불량 이 되거나 빈혈이 되거나 무기력증과 같은 영적인 병에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이어트 시대이고 저칼로리 시대이고 비타민 시대이고 건강 식품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과 활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제일 좋은 식품들이 찾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껍질에 해당하는 육신의 양식만 즐겨 먹고 있고 속사람의 양식인 말씀을 보는 일에는 소홀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세상 돌아가는 뉴스와 스포츠와 연속극과 신문,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을 읽고 보고 즐기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혼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는 얼마만큼 시간을 보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최상의 것들을 다 쏟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당신의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만드는 무거운 것입니까? 당신이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기름기가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깊이 검토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나의 영적 생활을 돕는가? 방해하는가? 내게는 어떤 것이 무거운 짐일까? 정말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 하고자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심판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왕관과 우리 주님의 칭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운동선수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트레이닝을 하면서 아주 엄격한 훈련에 복종해야 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전 9:24b-27).

21

섬김을 위한 징계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 시느니라, 하셨느니라.”(히 12:6)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믿는 자들이 선수로 참가하는 경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갈망하는 상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들이 달리는 트랙은 이 땅 위에 있고, 하늘의 커다란 스탠드에 앉아서 관심 있게 경기를 지켜보는 관람객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베테랑들 즉 전쟁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들로서 이미 경주를 다 마친 자들입니다. 모든 참가하는 선수들이 마지막 경주를 마치는 그 때에 목표 지점에는 상을 주실 심판관이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1-2에 묘사되어 있는 배경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엮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1-2)

어찌서 하늘에 있는 관객들이 이 아래에 있는 우리의 경주에 것처럼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11장의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선수까지 경기를 모두 마쳐야 시상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선수가 그 경기를 다 마치고 모든 기록이 끝날 때에 비로소 시상식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관객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히 11:39-40)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 주자의 경주가 끝나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코치이시며 지도자이시며 심판관이신 분께서 공중으로부터 소리를 외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참가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으로 모일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각자가 얻은 모든 성적표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상급을 판정할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실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 생활의 길에 놓여있던 장애물이나 약점들이나 그들의 능력들을 고려해서 성적이 매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개인은 자신의 신실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 심판관의 결정에 완전히 만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내리신 심판은 완전한 정의와 의로움에 입각해서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다른 형제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그 길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부족함을 비난하지 말고 마지막 판결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분께서 어둠의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

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고전 4:5)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경주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침은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쁨으로 가야 할 그 길을 다 마치지 못했다면 변명에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첫째 규칙은 분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 놓아야만 합니다.” 어떠한 장애물이든지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모든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급된 규칙은 우리의 죄들인데 “너무도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들은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은 무거운 것들과는 대조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이 무거운 것들은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뒀을 때 죄가 되는 것들로서 우리가 상급받는 걸 방해합니다. 그 무거운 것들은 지금 당장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중요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우리는 우리의 코치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귀를 그분의 가르치심에 기울여 합니다. 우리는 환호하는 관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에 우리의 눈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께서 보이신 본을 우리 앞에 간직한 채 달려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보다 먼저 그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달리는 그 길에 놓인 모든 시험과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도 아낌없이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뒤에 감추신 것이 없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다름 아닌 인간으로부터 거부당하신 가장 추악한 치욕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무시해 버리셨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눈을 그분으로부터 떼어서 자기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거나 스스로 지쳐 버린다면 우리는 최고의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 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히 12:3-4)

당신이 그분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하신 고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당신이 불평을 늘어놓고 투덜댄 것에 대해서 영원히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피를 흘리기까지 대가를 치르게 하지는 않았습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을 겪었다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친구 몇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인하여 조롱을 당하거나 멸시당한 적이 있다? 그것도 그럴 수 있겠지요. 우리의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당했다? 그도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혹시 당신이 예수님 때문에 옷이 벗겨지고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당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실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손발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치르도록 한 아주 작은 희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저 사회적 물질적 또는 종교적 성격을 지닌 몇 가지 필요 없는 무거운 것들을 버린 것이 조금은 있겠지요. 흔에다 작은 흉터를 남기는 죄들을 포기한 적은 있겠지만 그 정도를 희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순교자들이 치른 대가, 신실한 선교사들이 치른 대가, 자기 피로 자기의 간증을 인친 그러한 이전 시대의 성도들이 치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만 할 경우가 발생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다음 찬송가 가사와 같이 노래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이제 징계가 올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과 죄를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의 대장께서 우리를 자신처럼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목표를 포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
 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
 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

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요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히 12:6-10)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때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화를 내고 계신다고 상상합니다. 물론 어떤 죄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징계는 여전히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는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주할 때에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반드시 받아야 할 트레이닝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우리들에게 해 주는 일에 대해서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엄한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셔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징계를 받고 바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요? 모든 징계는 우리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징계에 관해서 본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의 징계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1.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요(6-8).

2. 우리의 유익과 잘되기를 위한 것이요(10).
3.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요(11).
4. 우리로 왕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기 위함이다(15).

징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음을 입증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
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히 12:7)**

하나님은 마귀의 자식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 때 유황 불 호수에 내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의 둘째 목적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일시적이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데 동시에 영적인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위치적인 거룩함은 우리가 믿었을 때 다시 태어남에 의해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실제적인 거룩함은 분리한 삶과 그분께 헌신하는 삶은 훈련과 징계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셋째, 징계는 우리를 정결케 함을 위함이요,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생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chastening”의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chaste”의 “순

결”이라는 뜻인데 “chastening”은 순결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이 목표가 완성되기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깨끗케 하시는 작업은 세 가지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드러운 방법이고 둘째는 엄한 방법이며 셋째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부드러운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스스로 깨닫고 자백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요일 1:9), 이 방법을 거절하면, 그때에는 약함과 질병이라는 엄격한 징계의 방법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고전 11:30). 그런데 이 방법도 통하지 않으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사용될지도 모르는데, 이는 죽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죽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당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징계 방식이 세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2:5-6입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책망하시는데 만약에 책망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다음 단계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징계 조치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전 11:28-32)

의미는 분명합니다. 자신을 점검한 뒤에 알고 있는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빛나간 성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질병이나 약함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 통하면 하나님께서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믿는 자를 육체적 죽음을 맞게 해서 그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루시게 됩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합니다.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자는 보상을 잃게 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고전 3:15)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히브리서12장의 가르침과 똑같다는 사실을 잘 주목하십시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히 12:11)

마지막 문장을 주목하십시오. 징계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징계에 의해서 단련된 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의 교훈을 배우는 자, 그것을 갖고 뭔가를 하는 사람에게만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도 단련이 못 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오히려 쓴 뿌리를 지닌 채로 반역을 하고 자신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특별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극단적인 다루심이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셔서 이 순간에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충만케 하시며, 신실함에 대해 왕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주제로 이 해당사항을 끝마치기 전에 제가 당신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징계가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심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옹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인내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예로 연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깊은 체험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더욱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고난을 계기로 당신이 알고 있거나 의심스러운 죄를 당신의 마음에서 잘 찾아내서 그분께 고백을

하게 되면 가장 잘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징계에 잘 순복함으로써 기쁨이 오고 성장하게 되며 주님과와의 사귄이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빛나게 단련하셔야 할 금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당신 안에 더욱 반짝거리게 제련할 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베드로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 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만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벧전 4:12-17)

나중에

이 구절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나중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끝마친 후에, 뒤로 돌아보니까 주님의 징계는 당연한 일로 감사하게 되겠지만, 오늘날 겪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러한 시련이나 시험이나 환란이나 징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신비로운 다루심을 통하여 아하, 하고 답변을 발견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경주를 다 끝내고 뒤를 돌아다보면 비로소 이런 것 때문에 경고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것처럼 엄하게 우리를 다루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로마서8:28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위대한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실망을 하게 되고 손실을 입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격동시키십니까? 왜 조용하게 인생을 즐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저도 수없이 했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두지 않으시

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요? 거기에는 아주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이유들은 한 가지로 종합될 수 있습니다. 한 단어 “Afterward” 나중에 알게 된다는 “나중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들은 “나중에”라는 말씀에 의해서 결정적인 답을 얻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거기에는 미래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단지 지옥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죽을 때 하늘나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미래를 위해서 이 지상에서 열매를 얻게 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요 15:16)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없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열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이루려면 땅에 쟁기질과 씨레질과 과일 나무의 전지 작업과 밭에 잡초를 뽑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씨앗으로부터 성숙한 식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물은 완전히 성숙하게 자라기 전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부담입니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성숙하도록 나아가라는 간청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들에 대한 책임 소재는 바로 그들이 성장하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좀 더 경작이 되어져서 열매 맺는 상

태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거듭난 성도가 성숙하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29)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결국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끄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징계라고 하는 가장 엄한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거룩함에 동참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완전함과 거룩함이 목표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그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하기에 합당하게 되려면 우리의 모든 얼룩지고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엄한 징계에 의해서 다 씻겨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태워져 버리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흠과 티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결케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결케 되어야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

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엡 5:25-27)

하나님의 “나중”을 다시 한 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중에 점도 주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징계를 통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룩히 구별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두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거룩히”라는 단어와 “정결하게”입니다. 거룩케 한다는 단어는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요일1:9). 반면에 정결케 한다는 이 단어는 카타르시스라는 그리스어 원문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catharsis)라는 그리스어에서 영어의 “cathartic”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배변을 촉진하는”이란 뜻입니다. 깨끗하게 장청소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부드럽게 씻는 자백이라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더 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배변을 촉진하는 정결의식으로 관장약을 먹인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강제성을 띠는 의미가 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약한다면 깨끗이 하다 “sanctify”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청결하게 하기의 “cleanse”는 강제적인 방식으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나중”을 향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들 앞에 제시하시는 것.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곧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기에 다시 두 단어가 있는데 점(spots)과 주름(wrinkles)입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튀어 묻는 것입니다. 부주의함의 결과입니다. 그 점은 물로 씻으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 즉 우리에게 점이 생겼으면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름이라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주름은 활동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주름은 어떤 한 장소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생기는 결과입니다. 내 옷은 내가 똑바로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옷을 입은 채 팔짱을 끼거나 무릎을 접은 채로 앉으면 주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주름도 제거될 수 있는데 물로 씻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뜨거운 다림질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더럽혀지거나 우리가 열심을 내다가 점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 그것을 깨끗케 하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섬기는 데 있어서 노력하고 허둥대다가 실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내하시고 그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안에 실족하거나 뭔가 주님을 위해 죄와 실수를 저지를 때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자들은 엄히 다스리십니다.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넘어지는 경우에는 전혀 한 걸음도 가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뜨거운 다림질을 통해 우리를 뒤흔들어서 활동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 있는 그 갓난아이들은 완전함을 위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손을 위로 들어 올리고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히 12:12)

계속 가라! 제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 달리기를 시작하라.

“너희 발을 위해 끈은 행로를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피 하나님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돌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히 12:13-15)

주님의 징계는 깨끗하게 함과 달콤함과 거룩함과 평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무시되는 경우 쓴 뿌리가 나타납니다. 자주 경고를 받았는데도, 주님의 징계를 꾸준히 받았는데도 그 믿는 자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계속 부리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달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쓴 뿌리가 나서 그는 홀로 남겨질지 모릅니다. 어디에? 어떤 장소에. 그를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돼 버려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끔찍한 손실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서의 경우

에서의 경우를 다시 한 번 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에서가 노력했지만 쓸모 없게 된 경우가 예로 본문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엄숙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빛을 주었는데도 거기에 대적하는 것에 대한 엄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히 12:16-17)

이 구절은 에서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가 구원받았다가 다시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구절도 아닙니다. 단지 축복 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위험에 관해서 예를 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에 대한 사랑과 육신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주님의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에서는 나중에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저 현재를 살았을 뿐입니다. 그가 후에 그 실수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축복을 다시 찾으려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지극히 현실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몫이 없음을 깨닫고 아무리 후회하고 유업을 받으려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잃어버린 상급에 대한 회개는 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에서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히브리서12:17을 다시 봅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관점

영적 승리의 삶의 비결과 그 경주를 성공적으로 달리는 비결은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나중에”라는 것을 놓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눈을 상급에다 놓고 달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 관점으로 종결됩니다.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지 같은, 정말 형편없는 율법의 기초 원리들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조그마한 현재의 불편함과 모욕과 박해를 피해 보고자 율법의 속박 아래 자기 자신들을 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유대인들로부터 욕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율법과 은혜의 대조, 시내산과 갈보리의 대조 이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꺾꺾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도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히 12:18-21)

여기에 율법과 율법의 정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뒤로 가 있어, 넘어오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냅니다. 율법은 죄를 다 드러내지만 그 죄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심판을 제시하지만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하나 완전함을 만들어 내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나 죄인으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도울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그 누구를 구원하고자 주어진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도록 기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에 누구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분은 어떤 죄인도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무기력해서 전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우리가 그분을 비난해야 합니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십니까?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결코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은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3-4)

그런데 자신들을 다시 율법 아래에 놓기를 원하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오류의 어리석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 아래의 이스라엘과 은혜 아래의 믿는 자들을 대조해 볼 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율법 아래에 놓으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히 12:24)

구약에서는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을 때는 바로 주

님의 뿌리는 피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상속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면 무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러한 성향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나?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갈 3:3)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행위로써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로부터 속박으로 되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영적인 유아기의 증거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자기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희망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얻는 것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 신앙 생활도 은혜로 해야지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엄숙한 경고로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 12:29)

“나중에!” 라는 단어,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왕국에 우리의 눈을 고정 시킵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 12:28-29)

신앙 성적표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히 13:1)

학교에서 한 학기 중간이나 학기가 끝날 무렵이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룹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에 들어갈 학생들은 시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등록된 과목의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그간 배운 것에 대한 시험을 치거나 리포트를 쓰게 됩니다. 목적은 그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얼마나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잘 유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매일 매일의 수업 시간에 가르쳐진 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잘 간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학교에서는 습관적(customary)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며 그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기말 시험의 결과는 그 학기의 평가에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이 그 학기에 통과할 학점을 얻을 것인지 통과하지 못할지를 학기말 혹은 학년말 시험 결과로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매일 숙제를 잘 해 오고 과제물을 통하여 뛰어난 성적을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기말 시험에서 요구하는 점수에 낙제하면 유급하거나 다시 공부해야 하므로 시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성경공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신약 성경을 읽다보면, 특히 서신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기록된 내용들의 기본 규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서신이든지 앞의 몇 장은 인사로 시작되고 다음은 교리적 가르침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의 몇 장은 이 진리들을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제적 가르침들은 서신들 뒤쪽의 몇 장에 붙어있습니다. 바로 그런 규칙이 이 히브리서에도 해당됩니다. 히브리서 첫 열두 장은 교리적인 부분에 해당되고 가장 깊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그 말씀의 진리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망은 그들의 신앙 생활에서 그것들을 듣고 배웠는데도 너무도 성장이 없는 결과 그들이 여전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수준이라는 책망입니다. 그들은 이미 교사의 자격증을 얻기 위한 자격을 갖추었어야 할 사람들인데 아직도 유치원 아이의 수준밖에 성장이 안 되었다는 지적이 히브리서 12장까지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징계와 책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반복했지만 히브리서 5:12에서 그들에 대한 책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히 5:12)

이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흘렸으나, 그 성적을 보려고 시험을 치러보니 모두 다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충고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히 6:1)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단단한

음식이 지금 그들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교리들을 그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은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대제사장직의 사역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하는 삶을 기록했으며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구원은 영원한 보장을 말해 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의 보상에 관한 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에 이르는 죄와 그리스도의 심판석, 또한 믿음의 능력(11장)과 하나님의 징계의 사역(12장) 등 모든 교리들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교리적 설명이 끝나고 히브리서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장에서 기말 시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시험은 퀴즈 스타일로 지금까지 당신이 공부한 것들이 제시됩니다.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암시적인 질문들이 나오는데, 독자가 스스로 자기 점수를 매겨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히 13:1)

저는 이 말씀을 질문 형식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당신의 형제 사랑은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했을 때 형제사랑으로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 보면,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공부가 당신의 형제 사랑을 더 늘려 주었습니까? 아니면 줄여 놓았습니까? 지속이라는 것은 무언가의 발전을 의미하고 전진을 의미하며, 성장을 의미하고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장(히 13장)에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형제를 향한 사랑이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더 줄어들었습니까? 다른 모든 질문들의 답변들은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당신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히브리서 1-12장 공부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이 책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의 여러 내용들을 들었거나 공부했는데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는 것입니다. 독자들로부터 온 편지를 보면 형제사랑이 아닌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당신의 솔직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비판을 환영합니다. 저는 항상 유익한 논쟁에 마음이 열려있습니다. 저의 견해가 오류라고 입증되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도 언제나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아무리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것조차도 동의하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저렇게 생각하니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당신이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교제를 끊자고 한다면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견은 좀 가볍게 취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제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강요하

려고 책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점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서로 다른 견해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경을 공부하도록 해 준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자극제가 되어 준다면, 더욱더 성숙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서로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든 “형제 사랑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견이 다르지 않다면 얼마나 단조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없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견해가 다 같다면 얼마나 지루한 삶이겠습니까? 저의 아내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가 내 생각과 반대되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기주장이 없이 흐물흐물한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wishy-washy) 해파리 “jellyfish”같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욱 좋아합니다. 저도 처음엔 저와 다름에 대해서 불쾌하고 짜증나고 싫었습니다. 제 생각에 반대를 하고 제동을 걸 때마다 나는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의견이 똑같으면 새로움도 더 나은 발전도 없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가릴 줄 알면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상대가 나와 다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안다면, 자신이 성숙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두 개의 사고

방식이 없다면 결혼 생활은 재미나 양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개의 사고방식이 사랑으로 함께 일하게 될 때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마음은 하나인데 생각은 항상 하나는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르게 만드셨음을 빨리 깨닫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당신, 본문의 첫 번째 질문 즉 “형제 사랑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제가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6개월 동안 강론했는데 제가 강론한 것이 다 틀렸다고 생각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만큼이나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셨을 때 우리들은 얼마나 잘못된 상태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이 보기에 제가 지금 히브리서 12장까지 완전히 엉터리로 가르쳤을지라도 사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롬 5:8)

친절한 대접

모든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성장에 관한 시험은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히 13:2)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어떤 나그네도 아무런 조심성도 없이 어리석게 무조건 집에 받아들여서 대접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형제들에 관한 적용이요, 개인적으로 만나 본 적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한다면 그리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dear ones" 사랑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뜻을 생각하고 2절을 살펴보면 1절의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와 같은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비록 그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지체 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형제들을 향한 친절을 의미합니다. 형제 사랑의 세 번째 테스트는 본문 3절의 동정심입니다.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자신도 몸 안에 있는즉 역경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히 13:3)

오늘날 약육강식(dog eat dog)의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번 훈계는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프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통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락을 즐길 시간도 있고 운동을 할 시간도 있고 재미있게 놀 시간도 있고 사회적인 친목 활동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우리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돌아보십시오. 순수한 믿음과 더럽히지 않은 신앙심이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약 1:27). 오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고 외로운 시간들을 당신이 가서 방문하여 위로하고 시간을 같이 해 줌으로 그들에게 줄 기쁨과 행복을 생각해 보면 당신도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문제

를 안고 있거나 슬픔에 젖어 있거나 당혹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십시오.

가정에서

이제 자기 가정을 돌아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가정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가장 잘 평가하는 것이 가정보다 더 좋은 장소와 방법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가장 잘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4절에 말합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히 13:4)

이 구절을 읽고 자유스럽게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혼인을 존중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순결하도록 지키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가정에서의 순결은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이것들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생활의 표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의 조화 가운데 살 수 있으며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단 한 구절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가능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여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엡 4:32)

아주 오래 전 어느 날 한 여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좀 자기에게 와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가정 불화로 인해서 거의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오랫동안 싸워 왔고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싸움과 반목을 겪고 있다 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깨어질 상태가 와서 그녀가 그 남편에게 이혼을 하겠다 하고 그 남편도 집을 나가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제발 오셔서 우리 가정을 좀 구해 주세요”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내가 어느 정도 그녀의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에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남편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녀는 남편도 구원받았다며 말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다른 전화기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남편도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싶어합니다. 제발 좀 와 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한 가지 일을 먼저 한 후에 내가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했으니깐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네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당신들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신다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니 앉아서 성경을 펴시고 두 분 다 같이 이 구절을 읽으십시오. 그것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4:32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당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바로 그 구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두 분이 순종하신다면 아마 제가 갈 필요는 없을

것이고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누구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이 별 효과가 없으면 다시 전화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는 그 문제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화해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32의 단순한 공식이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족하기

이제 만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 가운데 신앙 성장에 있어서 맺게 될 그 다음 열매는 만족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히 13:5-6)

제가 이제껏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자기가 먹는 것도 아까워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복을 모르는 정말 너무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단 몇 천원도 아까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반면 우리 교회 당신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이 적은 수로 교회가 운영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은 분명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므로 많은 것으로 보상 받으실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더 아픈 사람을 생각하며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

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고통을 당하고 극심한 시험을 당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고 모임을 다스리도록 임명하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훈계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7-8)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1-9까지의 단락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내용이며 끝으로 훈계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당신이 여러 가지 이상하고 다양한 교리에 끌려 다니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혼탁한 오늘날 꼭 필요한 충고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날들에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 온 역사 이래로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속임수와 거짓 교리가 오늘날만큼 넓게 번진 시기는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이단 종파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별의 별 종교들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하나씩 생겨납니다. 겉보기에 가장 환상적이고 신비적이고 하늘에 속한 교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천상의 가르침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희귀한 현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방언이나 병 고침이나 환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언이나 환상이나 병 고침이 구원을 준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외쳐댁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

하기도 하고 초능력을 주장하기도 하고 믿음에 대해서 떠들기도 하고 치유를 약속하기도 하고 건강이나 부자가 된다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이단 종교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많은 혼들이 뒤에 남게 됩니다. 이들 이단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엄청납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떠받드는 교리나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들은 전혀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경건한 체 하며 성경을 인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하면서 그 메시지를 실제 생활에서는 잘못 해석을 할 때에도 그 많은 추종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따릅니다. 그들은 다 같은 성경구절을 인용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잘못 해석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도 잘 속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도 쉽게 농락당하는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성장 단계에서 시험을 치러야합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속고 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속지 말라는 경고가 마지막으로 본문에 주어졌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약하고 어리고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찌꺼기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이와 같은 속임수의 물결에 대한 대책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이 바로 유일한 대책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으로 성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

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 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 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벧후 2:1-3)

아주 경건한 약속이나 부드러운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악 탈하는 이리니라.”(마 7:15)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마 7:21-23)

모든 것을 말씀으로 비추어 대조해 보십시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누구도 당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들이 마지막 때의 표적입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속임수가 너무 크고 많아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마저도 아마 속게 될 것입니다(마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 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막 13:22-23)

분리하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히 13:10-14)

이 히브리서의 가르침 중에서도 실제적인 삶의 적용에 관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우리의 의롭게 됨과 우리의 거룩하게 됨, 이 두 가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필요를 충만하고 적절하게 제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열매들이 형제 사랑과 더불어서 히 13장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은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라는 말로 시작되었는데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다음 일곱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1. 친절한 대접(2절)
2. 동정심(3절)

3. 개인의 삶의 순결함(4절)
4. 만족(5절)
5. 확신(6절)
6. 중보기도(7절)
7. 안정(9절)

분리

우리가 일곱 가지를 앞 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것과 연관있는 것이 바로 성막에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태우는 헌물의 피는 성막의 여러 기구들 위에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희생물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그 고리를 먹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헌물들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헌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은 거부의 장소요 분리의 장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영 밖 모욕과 거부의 장소에 계신 옛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라는 훈계가 바로 다음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히 13:1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진영 밖에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피와 몸을 모두 드리셨는데 그분은 여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 한다면 우리 또한 그

분이 계신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분의 모욕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조차도 십자가를 외면하며,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기는커녕 그 진영 밖으로 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참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진영 밖 갈보리의 십자가를 모른다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요, 그분의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시에 대한 이야기이고 당시의 종교 중심지였으며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예배들은 일찌감치 타락해서 공허하고 생명이 없는 종교 제도가 되었을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자신들의 속죄를 위하여 주님께 드릴 희생물을 잡는 그 대제사장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어린양을 거부했습니다. 율법의 박사들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전통을 늘 자랑했던 바리새인들도 구원자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께 그 도시 안에서 죽을 장소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고 반대로 그분을 성벽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갈보리 산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으며 그분의 얼굴에 침 뱉고, 그분을 때리고 욕하며 결국 지치신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예루살렘의 진영이라는 곳은 부패한 종교 제도를 대표합니다. 형식만 남았고, 의식만 남았고,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린 습관적인 종교행위일 뿐입니다. 모든 형식은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거부해 버린 종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공식적인 종교 제도의 틀 안에 박혀 있으면 평안하고 존경받고 잘 짜여진 진영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들

바깥으로 나아가 진리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유별나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 진영 밖에서 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천주교 같은 의식적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거룩한 종교 행위와 규격화된 의식은 있으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단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라 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십자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참된 성도는 모든 기본적인 구속의 진리들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과는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의 메시지이고 종교 통합이 아닌 성결의 메시지입니다.?

진영 밖에는 모욕(reproach)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쓰레기들을 내다 버리는 장소로 잡동사니를 버리는 곳입니다. 그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쓰레기 내다 버리듯 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 모형의 한 예를 들기 위하여 레위기 4:11-12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수소의 가죽과 그것의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소 전부를 진영 밖의 재를 버리는 곳 즉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 위에서 불로 태워 재를 버리는 곳에서 태울지니라.”(레 4:11-12)

그 진영은 그 자체가 가식적인 종교의 상징으로, 타락한 예루살렘과 그것의 공허한 종교의 행위를 의미하는 깨끗하지 못한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룩한 희생물을 바치는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분리하라고 부르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기 원

하는 모든 믿는 자는 피 흘림 없는 종교 제도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신을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믿는 자는 자신이 진영 밖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계로부터 인기도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홀로 유별나다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확실하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분리시킨다는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이 “나는 너보다도 더 거룩하다” 그런 상대성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로부터 자기를 내세우는 고집스러운 분리를 뜻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분리는 세상과의 분리요, 비진리와의 분리입니다. 혹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혹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권이 아닌 다른 믿음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식의 고집스러운 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몸은 이들 모든 그 어떤 교단이나 교제권이 나 그룹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의 첫 구절은 자기 그룹만의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라며 13장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고 그리스도의 원수들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 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도 승인해 주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의 악한 행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분리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이나 사업이나 인기나 사회적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구원자께서 걸어가

셨던 그 길이었습니다. 제도적 장치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히 13:12-13)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의 모형을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뿌리박고 살 곳(성읍)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단지 나그네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옛 세상의 삶의 방식과 나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말로 이 세상의 유행에 의해서 발명된 우리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도 차츰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잘 가꾸기를 원하시고 옷을 단정하게 입기를 원하시므로 우리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잘 간수하고 지켜야 하고 그 성전은 옷을 구별하여 잘 입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은 방식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옷차림이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걸맞지 않게 아주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 변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명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세대 즉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통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고 마고자나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날 관능적이고 극단적인 옷차림도 더 강력한 마음으로 거부합니다. 오늘날 옷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쳐다보기 민망할 정도로 올라가는 것이나, 남녀를 불문하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너무 짧거나 몸의 노출이 심한 옷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온 몸에 험오스런 문신을 한다거나 짙은 화장이나 덧붙인 눈썹이라든가 손톱을 길게 기르고形形色색의 칠을 한다든가 독수리 발톱처럼 한 차림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세상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극단적인 습관이나 행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땅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벧전 3:3-4)

당신은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증거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드리는 시간과 몸을 치장하는 데 드리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왜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분들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공개 석상에서 당신의 몸이 노출된 옷차림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당신의 행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증거가 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신지요? 당신은 올바른 간증을 세상에 보이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적용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3:10-13까지의 핵심 해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다 조금 더 적용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든 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습관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얽히는 일들, 이런 일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자주 가는 장소에서, 우리가 자주 행하는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가 옷 입을 방식에 있어서, 이세상의 현대 스타일의 극단적인 방식들을 취하지 않는 옷차림에 있어서, 만약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마 우리의 간증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삶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진리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말씀이나 그러한 교육을 거의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딤후 2:19)

데살로니가전서 5:22에서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할 거리가 된다면 그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닐지라도 실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개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 옳으나? 그르냐?” 의 한 가지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 방해가 되는 행동인가?” 그것까지 따져야 하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의 일상 생활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당신 사이에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렇게 되면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아마 인기가 별로 없을 것이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약 4:4)

그리고 요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 2:15)

우리는 이 시간 로마서12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습니다. 다같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롬 12:1-2)

입술의 열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

히브리서13장은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한 바구니입니다. 이 열매들은 믿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열매들입니다. 또한 이 열매들은 성도가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 그 결과로 이러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나무가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할수록 열매의 양은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듯이, 믿는 자가 은혜 안에서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알려면 매일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의 양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의 첫 열네 구절에서 아홉 가지 열매가 주어진 것을 살펴 봤습니다. 이제 열째 열매를 살펴보려합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

이 열째 열매는 “입술의 열매”라 부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희생이라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찬양의 희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기도회에서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하나님

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희생”이라고 불립니다. 이 찬양의 희생은 “지속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쩌다 생각나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간증 집회라든가 헌신 예배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 갈 때든지, 세상 사람들과 사회 활동을 하든지, 사업을 같이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찬양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서 말로 직접적인 증언 또는 간증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이 찬양과 감사로 충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 마디의 말을 안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미심쩍고 의심 갈 만한 행실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바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찮은 장소에서 여럿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될 때 가담을 거부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자기를 주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음주와 퇴폐적인 가무와 음담패설에 가담하지 않고 자기를 분리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욕을 당했을 때 아주 밝은 미소를 짓는 것도 간증이 되고 박해를 당할 때 친절한 행동과 인내심도 간증이 되고 아주 거친 욕을 듣고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는 것도 간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따른 희생의 열매들입니다. 여기의 “희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므로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머리 숙여 감사 기도하는 것 역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 앞에 일어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우리의 단순한 기도 하나도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한가운데에 “계속해서”라는 단어의 삽입이 의미심장합니다.

찬양의 희생물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찬양의 희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우리가 신실하게 행동하려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희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굳건하게 서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에게 조롱당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욕을 듣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에 굳건하게 굴복하지 않고 서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태도가 때로는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희생도 있고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희생도 따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뻔뻔하다는 조롱을 당할 희생도 있고 때로는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할 희생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희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그런 희생은 그렇게 큰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는 원래 “내 양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이 희생 제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4:14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당신이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란 사실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간증에 있어서도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해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다는 생각으로 일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간증을 망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주님을 증언할 때, 그리고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간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순복음 출신의 목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모임을 떠났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 때문에 저 역시 그 목사님을 한때 존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정말 두려움 없이 전하는 것을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아주 슬프고 낙심한 모습으로 한 형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하기를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박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직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자신의 형편없는 판단력 때문에 해고당한 것입니다. 그분은 한 종합 대학에서 주차 관리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는 중에도 고객들에게 말을 걸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장이 그에게 경고하기를 근무 중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불만스러웠지만 잠시 쉬는 시간에는 자기 시간이니까 문제될 것이 없겠지 하며 쉬는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동료들에 의해 비난을 받고 상사에게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사에게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 말을 하자마자 그는 곧 해고당했습니다.

잃어버린 간증

그가 직장을 잃고 자기를 위로해 달라고 형제를 찾아왔을 때 그 형제가 그분에게 묻기를 “목사님이 근무 시간에 그 일을 했습니까?” 하니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놓친다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해고당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점심식사 시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었다면 직장을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기다렸다가 퇴근 후라든가 다른 기회를 택했다면 직장을 잃거나 복음 전할 대상을 잃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의 열정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낙인과 함께 직장도 복음 전할 대상도 모두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고용되었을 때 그가 받는 월급에 대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기로 약속되었습니다. 그가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분별력을 잃고 그가 일하는 직장의 시간을 도둑질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좀 더 신중했다면 훨씬 더 큰 간증을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일하는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항상 지각하지 않고 일찍 출근하고 그가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다른 동료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했다면 더 큰 간증을 남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자신은 직장을 잃는 대가를 치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입술로 하는 본인 간증은 당신이 평상시 흠잡을 데 없는 삶으로 지지를 받기 전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동기나 행동이 순수하지 못하면 좋은 간증은 아닙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해 줍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

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벤전 4:15-16)

평소 당신의 말이 당신의 행동으로 지지받지 못하면 당신의 말들은 아무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믿음의 열매들이 열거된 후에야 비로소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훈계가 주어진 이유입니다. 다른 열매들을 맺은 후에야 입술의 열매는 의미가 있으며 지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하고, 이웃에게 동정심을 가지며, 가정생활의 순결함과,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주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진리의 교리 안에서 굳게서서 그가 진영 밖에서 즉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면서 입을 열면 그가 하는 말이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와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증언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

이러한 입술의 열매에 이어 “관대함과 사랑”의 열매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간증을 지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히13:16)

구두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모순된 말입니다. 구두쇠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단어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딤후전6:10).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아주 부끄럽

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이 실제적인 생활면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동정심이 많고 훨씬 더 관대한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기도와 행동이 항상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경건하다는 한 집사님에 대해서 들은 예화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어느 날 어느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가난하여 그 과부가 당장 먹을 음식도 없다는 말을 듣고서 성경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야고보서에 “순수한 신앙심은 고아와 과부가 고통 당하고 있을 때 돌아보는 것이다”(약1:27)라는 성경구절을 기억하고서 그 가난한 여인을 방문하여 무릎 꿇고 주님께 그분의 고통을 해소해 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마침 그 집 창문은 열려 있었고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게에 가서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그 과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사님은 여전히 열심히 기도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음식 바구니를 창문을 통해 방바닥에 살짝 놓고 그 기도하는 장소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집사님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가 눈을 떴을 때 그것을 보고 주님의 응답이라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이 사건이 야고보서 2:14-16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

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는 사람들의 거룩한 말투와 설교에 아주 지겨워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16 전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니라.”(히 13:16)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한 희생 헌물이 되기 위해서는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 13:17,18절에는 두 가지 열매가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계 보고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히 13:17-18)

17절에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덕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양 무리들을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한 존경입니다. 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특별하게 택함 받은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양 무리를 다스리고 감독하고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지도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가르치는 장로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한 목사라고도 불리며 교사라고도 불리고 감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맡은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존경을 받아야 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려운 임무 때문에 양 무리가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용기를 복돋아 주며 힘을 주는 일이 꼭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합니다. 목자들이 개인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드높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직분 때문에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은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소년 시절에 우리는 설교자를 존경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가 설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목자들에 대한 복종과 존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는 오늘날 사역자는 성도들의 심부름꾼이나 사환 정도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그분들의 충고도 무시합니다. 저는 말씀 맡은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다른 지체들보다 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하거나 그 사람이 더 낮고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존경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에게 사역을 허락하셨고 직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과 직분이 존경과 명예와 존중과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의 혼들을 지키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계보고 해야 될 것처럼 지키는 사역자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해야지 그들로 하여금 슬픔으로 그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그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사를 비판하거나 약점을 찾기보다는 그를 위

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그가 하는 일을 도와서 그가 하는 여러 많은 일들 중에 몇 가지라도 거들어 그런 일로부터 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복을 받았다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우쭐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자를 겸손하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그를 지원하십시오. 적어도 당신 생활 정도의 수준만큼 그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근이 연명하므로 늑대가 와서 보니까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문 앞에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처럼 사역자로 하여금 먹고 살 걱정을 하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하는 자가 자기의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농사꾼은 자기 밭의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가장 소중한 열매는 기도인데(히13:18), 그것은 결코 작다는 의미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것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요, 잊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은혜들이 아주 풍성하다면 기도는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의 용사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히 13:20-21)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완전함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5장에서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였느냐?’ 야단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성장이 덜 되고 발육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훈계의 내용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숙한 나무만이 최대한의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아직도 자라지 못한 나무들은 엄청나게 많은 꽃봉오리들이 맺힐지 모르지만 꽃이 피기도 전에 떨어지므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맺은 열매도 결실하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끝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숙된 모습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형제 사랑으로 시작해서 섬김과 기도로 마무리하게 합니다. 그 뒤를 따르는 축복은 그들이 성장하는 것이요, 모든 선한 일에 완전하라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표현은 주께서 완전하게 종결지어 주셔서 당신의 영적 성숙이 마무리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증거는 생활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변명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가 주님을 통한 축복의 권면을 들려 준 뒤에는 그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와 책망에 따른 일종의 변명이 뒤따릅니다. 그 변명은 매우 부드럽고 감동적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느니라.”(히 13:22)

기록자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기록한 권면의 말씀들을 허락하고 받아들이라고 부탁합니다.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는 그 권면은 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날카롭게 찔렀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영적 어린아이이고, 마음이 강박하고, 구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그들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과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한 엄한 징계에 대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은 결코 즐거운 내용이 아니었으며 결코 환영받는 진리가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심판과 보상의 상실을 의미하는 바가 감당하기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들이 원한을 품지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자기들에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고 하는 마음이 들까봐 안타까워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은혜라든가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갖게 될 상속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내용을 듣기를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은혜에는 책임을 수반한다는 메시지까지 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선언에 대해서는 아마 별로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변명하는 마음과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권면하는 말들을 용납해 달라. 싫은 소리인 줄 알지만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말하노라.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니 허락해 달라.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써 온유한 자세로 권면합니다.

현 세상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2천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정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의 메시지는 인기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도 지금까지 히브리서 강해를 들으면서 과연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나 저역시도 당신의 영적인 성장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장차 성도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하지만 “보상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하지도 않고 한다 해도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경건치 못한 신앙생활은 보상이 손실을 당할 것이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현 세상에서 당장에 이루어질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듣고 싫은 소리는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경고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엄숙한 경고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시되고 있으며, 서신 내용은 거듭나지 아니한 종교만을 가지고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자들이며 구원의 문턱에 겨우 도달했다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

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존경받는 정통적인 입장을 거부하는 것과 이 히브리서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인기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독자 중에 제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인 22절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 강해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형제들이여 제가 간청 드립니다. 저의 권면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석

히브리서에 관한 어떤 강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덜 알려져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계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강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히브리서 강해를 완성하기 위해 이 부분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은 바울이 던진 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롬6:1-2)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엡2:9-10), 또 은혜를 넘치게 받겠다고 계속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또한 “믿는 자들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받는다”(롬 8:35, 39, 고전 5:1-5)고 가르치니까 구원받은 후에 계속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은혜로 구원받이고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교리를 가르쳐 놓았더니 개중에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범해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만약 은혜의 구원을 그렇

게 알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정말 그가 받을 보상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적으로 살도록 하고 평안에 대해서 진실한 감사가 아니라 거짓 느낌을 갖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짓을 하든지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걱정 없이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비난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리를 내세워 막 살아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비난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질문들을 합니까? 일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권리까지 줍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신다면 어디서 어떻게 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죄를 지닌 채로 살다가 죽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의 답변

그렇다면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에 아주 완전하고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수백 개의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목회자나 성도들은 그런 구절들은 그냥 넘어가거나 무시합니다.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즉시 다 처리되고 영원토록 제거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결코 정죄 받거나 죄 때문에 또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그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주 완전하고 정의로운 심판 가운데 그가 행한 일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잃게 될 것이며 왕국에서 그의 지위와 위치가 그가 행한 일의 기록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이 사실은 많은 성경 구절들이 말씀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3:11-15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10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6:6, 10:42, 누가복음 6:22, 35, 골로새서 3:24, 히브리서 11:6, 계시록 22:12도 참고해 보십시오.) 주님의 종들은 회계보고를 할 날이 올 것입니다(마 25:19).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세 가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심판이 있고 현재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미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책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완전히 주 안에서 해결된 과거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기의 위치를 확실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해서 영원의 구원의 보장은 과거에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요 5:24, 10:28, 롬 5:1, 8:1).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

니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약함과 질병과 육신의 죽음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고전 11:29-31).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잡음과 징계에 관한 내용입니다(고전 11:23, 히 12:6). 그러나 세 번째 심판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이 미래적 심판은 현재 우리의 행위들과 관련됩니다.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 우리가 받을 보상을 결정짓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보상의 손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보상에만 해당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심판받는가?

이 세 번째 미래적 심판을 살펴보기 전에 각자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1. 이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누가 서게 될 것인가?
2. 그 심판은 언제 열리게 될 것인가?
3. 어디에서 열리게 되는가?

성경은 믿고 구원받아 들림 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크고 흰 왕좌의 심판석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심판석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잃어버려진 자들만 불려나오게 됩니다(계 20:11-15). 이 두 가지 심판이 다르다는 사실은 그 심판의 시기가 다르다는 점만 봐도 확실합니다. 믿는 자들의 심판은 이 땅에 천년왕국 통치가 시작되기 전 하늘에서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친 후에 어린양의 혼인식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주와 함께 이 땅에 오게 됩니다(참고구절 마 16:27, 고전 4:5, 살전 3:13, 벰전 1:7, 계 22:12). 이 믿는 자들이 행한 일에 대

한 심판은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지상 재림 전의 어린양 혼인 잔치 사이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공중 혹은 영계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살전 4:17). 이 땅의 환란이 끝나 갈 무렵 모든 믿는 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불에 의한(고전3:13-15)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국에서 다스리는 시기가 시작될 때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지위와 직분을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고전 15:40-41).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것을 갖고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벧후 1:11), 그들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확신을 갖게 될 것이며(요일2:28), 아주 충만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요일 8). 다른 형제들은 그분이 나타나실 때 부끄러워할 것이고(요일 2:28), 불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될 것입니다(고전 3:15).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볼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들을 무시한다면 실망스런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죄와 고백하지 않은 죄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떳떳한 상태로 살아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이 오심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11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빌미로 느슨하고 부주의한 생활을 일삼는 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렇게 반갑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에 모든 것이 그들의 영광이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보상의 손실

로 인하여 후회와 원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에서 통치하게 될 때에 그는 아주 낮은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몸 안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합당하게 보상해 주기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준 기회와 개인적인 능력에 근거해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열 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여 여덟 달란트를 남기고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면 비율로 보아 다섯 달란트 남긴 자가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일들에 근거하여 보상할 것입니다.

1. 긍휼과 사랑의 행위들(눅 6:35-36)
2. 신실한 기도에 근거하여(마 6:6)
3. 형제들에게 친절한 대접을 한 것(마 10:42)
4. 주님을 섬기는 내적인 동기(마 6:1, 고전 4:5)
5.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눅 6:22-23)
6.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딤후 4:8)
7. 선한 일을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갈 6:9)
8. 그리스도를 위해서 얻어 온 혼들(살전 2:19)에 근거합니다.

지금 언급한 8가지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덟 가지가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선사하는 확실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심판도 있다

그런데 이 심판에는 보상을 얻는 것과 상실하는 것 외에도 무언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보상에 관심이 없고 다만 그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상급이나 왕관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별로 두려움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주께서 많은 보상을 주신다는 것은 좋아하나 보상 받을 일이나 그 보상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보상에 대하여 별로 두려움을 갖지 않는가? 상 많이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그만이지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은가? 그것은 “보상을 손실” 당하는 고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고전 3:15). 보상의 손실에는 반드시 두려움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가 잃어버림을 즐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보상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라는 표현은 분명 즐겁거나 기쁘거나 달콤한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신실치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은 무언가 좀 두렵고 피해야만 할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47-48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눅 12:47-48)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신실한 종들에게 주시고자 언급한 보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처리자로 삼으리라.” (눅 12:43-44)

이 구절들에서 실신한 자에게는 보상이 있고 신실치 못한 종들에게는 채찍으로 맞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종에게 열을 주었는데 다섯만 남기고, 다섯을 주었는데 넷만 남겼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매를 맞을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있을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 맞는 숫자는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적 조명과 기회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문장의 “채찍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함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신실치 못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벌은 고통스럽고 모욕적이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것과 왕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수천 개의 설교들이 행해졌고 또 많은 책들이 지어졌습니다만, 보상을 상실할 것이라는 내용과 그에 따르는 고통이나 두려움에는 거의 자료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에는 믿는 자가 환란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뒤에 그 다음 구절에 아주 엄격한 경고가 담겨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당신이 확인해 보십시오. 계시록 3:10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그런데 이 10절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환란은

피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은 속빈
위로일 뿐입니다. 즉 환란을 피하게 된다는 것은 위로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는 것은 위로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
므로 요한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관(冠)을 빼앗
지 못하게 하라.”(계 3:11).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으나 보상과 왕관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
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손실에 대한 고통이나 두려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행실이 느슨해지고 우리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느슨한 생
활과 무관심한 생활을 한다면 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깨끗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성도가
자발적으로 신실하지 않을 때에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바울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임하고 있
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딤후 1:12)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보상이나
왕관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울이 보상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26-27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버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구원에서 버림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상으로부터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으로써 이집트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다름 아닌 그들의 승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속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와 보상의 땅에는 미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보상의 근거

보상하시는 것과 왕국에서의 지위를 제공하는 것은 양이 아니고 비율에 근거해서 정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두 달란트를 남긴 종은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과 똑같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시작할 때에 두 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했고, 상대방은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아서 다섯 달란트 남긴 것이나 두 달란트 받아서 두 달란트 남긴 것이나 상은 똑 같습니다(마 25:21,23). 비록 그 한 사람이 두 달란트 밖에는 벌지 못했지만 다섯 달란트 번 사람과 비율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본금의 백 퍼센트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눅 19:17)의 므나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섯 므나

를 번 사람은 십 므나를 번 사람과 똑같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때에도 보상은 비율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본금을 한 므나씩 받았는데 (눅 19:16) 한 사람은 열 므나를 벌고, 한 사람은 다섯 므나를 벌었습니다. 그러므로 열 므나를 번 사람은 열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다섯 므나를 번 사람은 다섯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눅 19:17-18).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능력 그 이상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만 요구하십니다. 다섯을 주셨으면 다섯만 벌면 됩니다. 보상은 전적으로 비율에 근거한 것이며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그 원칙은 오늘 본문 48절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눅 12:48)

재판관은 누구인가?

재판관에 대한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관이 되실 터인데 그분의 심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여건들을 다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건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고 때로는 우리들 자신에게도 숨겨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이큐가 얼마인지,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일할 여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고려하셔서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나약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분에 의해서 칭찬받게 될 것이고 또한 반대로 큰 성공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칭찬하고 우러러봤던 사람들이 낮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며 우리보다 더 작은 보상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비율로 하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주실 때 주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를 바라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무슨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 마음을 보십니다. 승리가 아니라 어떠한 영적 방식으로 싸웠느냐, 육신적인 방식으로 싸웠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했느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헌금하고 봉사를 했느냐? 동기가 중요하지 그 양이나 드러난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패배한 순간에도 그 싸움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싸웠느냐가 중요하지 그 승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취한 결과를 보고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실함을 가지고 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의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고전 4:5)

하나님의 구원 계획

GOD' S SIMPLE PLAN OF SALVATION

Dr. Ford Porter

저는 지금 당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지 슬픔을 맛볼지는 당신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선한지, 혹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7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그 계획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오늘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롬 6:23)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죽는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히 9:2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지고 대신 벌을 받게 하려고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예수님께서서는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레 17:11)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히 9:22)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롬 5:8)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무관하게 저의 죄와 당신의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졌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행 17:30)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당신이 생각을 바꿔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30-31에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당신의 죄를 지고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부활시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분의 부활로 인해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 1:12)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3)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에는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던 간에 지금 당장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13에서 죄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임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나 단체나 선행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단순한 구원 계획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

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구원자로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받고 그분의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것일 리가 없어.”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단순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만일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이 글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당신의 혼은 온 세상보다 귀중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막 8:36)

반드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의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모든 걸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구원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3)

당신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이

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매일 해야 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세요.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당신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딤후 1:8)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증거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마 10:32)

잠깐만요!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니라!(롬 6:23)

당신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7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의 네 가지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는...



자기 자신을 제일 앞에 두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르지 못함

●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 보면 커다란 죄인들입니다.

질문 1: 당신은 성경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질문 2: 당신은 죄로부터 돌아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까? (회개)

죄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불순종하는 것

1.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
3.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4.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 탐내지 말라.

2.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당신이나 저나 모두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종교를 통해서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9절

이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받아들여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천국(heaven)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 다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몸은 무덤에 묻히게 되고, 흙으로 돌아간다 (전도서 12장 7절)

그러나 우리의 혼은?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고 과거의 업적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3.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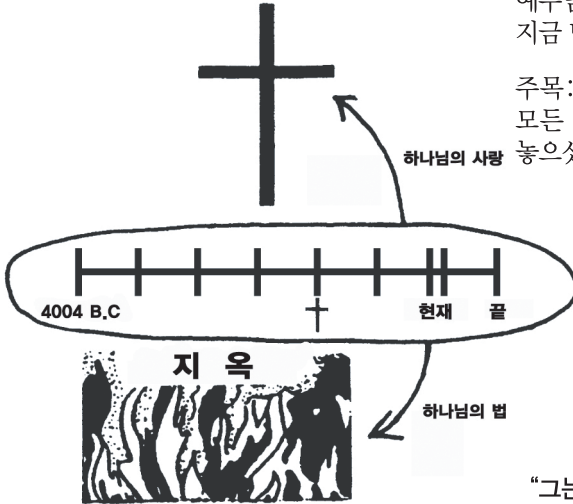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당신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목: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취하셔서 그리스도 위에 그 죄들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예수님께서서는 지옥에서 영원히 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한 형벌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이사야 53장 5절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모든 이들의 구원자(죄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천국(heaven) 문은 지금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 4. (a)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고 믿는 자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자들,
- (b)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지금 바로 값없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지은 죄 값을 온전히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선한 행위나 어떤 종교가 아닌,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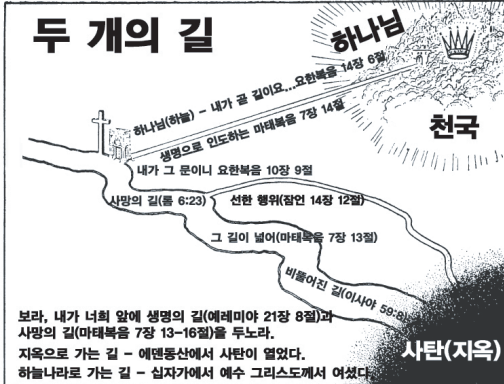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인해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질문:아래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신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요한일서 5장 12,13절)



예수님께서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속에서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주시기를 원합니다.
- 저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저의 구원자요, 저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님께 부탁하오니 저의 죄들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 지금 제 마음의 문을 당신에게 여오니, 주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저의 구원자요,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명 날짜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0장 28절)

질문1: 당신은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왜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

질문2: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매일 성경을 공부하십시오.(베드로 전서 2장 2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가르치는 올바른 교회에 출석하십시오.(히브리서 10장 24,2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지 다른 이들에게 말해주십시오. 침례를 받으십시오.(사도행전 10장 47,48절) 누군가에게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말하십시오.(로마서 10장 9절)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순종하며 사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아래 연락처로 우리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사무엘 김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52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64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64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별책부록 124면)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32	15000
30	창세기 1:1-3 강해 (간극이론)	Jeffre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6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32	1000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92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52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28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108	4000
43	합당한 섬김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56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4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8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12	4000
55	두분성	George Zeller	64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	56	1000
57	거리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1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다	Timothy Morton	64	2800
2	바람 아래서 뿌리고 구름 위에서 거둔다	이우진	128	5000
3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성경 공부	Paul E. Heaton	88	4000
4	성경을 찾아보라	이우진	80	3000
5	칼빈주의 비평	James W. Knox	96	4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21종과 소책자 38종 등 59종의 도서를 총 12만 4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3년 4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영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 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지은이 : M. R. De Haan(1891-1965)



다한 박사님은 27년간 “라디오 성경 교실(Radio Bible Class)”을 통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호프대학교(Hope College)를 나왔고 일리노이즈 의과대학(University of Illinois Medical College)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웨스턴신학대학교(Wester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유익한 20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으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Our Daily Bread)”

에 영적 성장을 돕는 수많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 옮긴이 : 김영균

* 前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강사

* 前 단국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 現 진리침례교회 담임 목사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원장

*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 역서

* 척 스미스, 〈창세기〉, 〈출애굽기〉, 도서출판 포도원

* 알렉산더 히슬롭, 〈두 바빌론〉, 도서출판 안티오크

* L. E. 맥스웰,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채 태어났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 제임스 W. 닉스, 〈성령의 열매〉, 〈성경적 종말론〉, 도서출판 킹제임스 외
다수